

제429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2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교진)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교진) 인사청문회

상정된 안건

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교진) 인사청문요청안 1
2.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교진) 인사청문회 1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교진)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교진) 인사청문회

(10시02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교진)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교진)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25년 정기회 첫 번째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이자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교육부장관의 역할은 단순히 한 부처의 행정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길러 내고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다져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이러한 중요한 사무를 관장할 교육부장관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준법성·책임성들을 두루 갖추었는지 국민 앞에서 엄격히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는 교육부의 수장이 장시간 공석인 상태에서 열리고 있어 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유보통합, 인공지능, 인재양성, 고교학점제, 대학구조개선 등 교육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청문회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

부드럽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위원장 김영호 질의와 답변의 과정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고요.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 나아가 교육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여야 위원님들의 질의는 곧 국민의 목소리와 궁금함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부디 후보자께서는 이를 흠집 내거나 비난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국민께 답변드린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명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설명하시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책임을 인정해 국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교육철학과 방향성을 담아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도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의 장이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위한 발전적이고 정책적인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후보자의 자질 검증은 철저히 하되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갈 비전과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 그리고 모두발언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마무리발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위원장님, 후보자 선서 전에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진행하시고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영호 잠깐만요.

일단은 선서를 받고 하는 게…… 그럴까요?

○정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먼저 후보 선서를 받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 이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9월 2일

공직후보자 최교진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모두발언 순서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게 낫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정훈 위원 모두발언 듣고, 예전에 하던 대로 하시지요.

○고민정 위원 예, 모두발언하시고……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모두발언을 마치고 질의가 들어가는데, 모두발언 마치고 의사진행발언을 몇 분 듣고 본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모두발언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10분 이내에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자로서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제가 한결같이 추구해 온 목표는 오직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돕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처음 교단에 섰고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도 학교 혁신, 학교 민주주의의 회복과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교육부장관후보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두려운 마음이 크지만 그간 교육 현장에서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이제는 대한민국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고전적인 명구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아이들의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자라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이끄는 선생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교권 침해로 인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 여건과 학생 지도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도 늘고 있습니다.

저는 공교육 회복을 위해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고 돌보는 데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선생님으로서의 헌신과 사명감이 존중과 보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경쟁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이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꽃다운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학생들의 마음건강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학습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저마다의 속도로 배움을 즐길 수 있도록 기초학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돌봄과 교육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유아부터 초등까지 양질의 돌봄과 교육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 갈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융복합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기술변화를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앞장서 주도하고 첨단기술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력과 AI 기초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AI 시대에 진정으로 요구되는 생각하는 힘,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인간다운 상상력을 키우는 인문학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시민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힘으로 지역혁신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세종시의 교육감으로 근무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교육 자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서울의 특정 대학에 쏠리는 과도한 경쟁체제를 허물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기 지역에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졸업 후에도 그 지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에도 서울대 수준의 전략적인 투자와 체계적인 육성을 추진하고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작은 시냇물이 모여 거대한 물길을 이루듯 교육공동체는 물론 온 사회가 지혜를 모으고 함께 힘을 합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언제나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육공동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대학 그리고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며 무엇보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항상 깊이 귀 기울이겠습니다.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고민 끝에 얻은 해답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즐거운 학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주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사명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국민주권정부의 교육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후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로서 저의 소신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진실되게 그리고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의사일정 중에 저희가 몇 분의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김대식 위원님……

잠깐만요. 오늘도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러면……

○정성국 위원 자료제출과 관련해서요……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요.

일단은 김대식 위원님 그리고 백승아 위원님 그리고 김민전…… 간사님은 제일 나중에 하시지요.

○조정훈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제가 여야 순서대로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민전 위원님 그다음에 정을호 위원님 다음에 정성국 위원님. 서지영 위원님도? 예, 이렇게 지금 여섯 분 신청하셨거든요.

그러면 순서대로 먼저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사상구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위원장님, 교육부장관이자 사회부총리는 국민 통합 또 교육의 일선에서 앞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물론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지난 18대 대선 직후 문재인 후보가 패배를 했어요. 그때 후보자가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제2의 도시고 330만의 부산시민들을 저는 모독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후보자가 사과를 하지 않으면 본 위원은 이 청문회를 불참하고 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꼭 사과를 받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것 사과를 받아 주시지요.

○**위원장 김영호** 지금요?

○**김대식 위원** 예, 지금 받고 제가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발언을 마무리하시고, 왜냐하면 3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김대식 위원** 그렇게 할까요?

후보자가 제출을 요구한 답변 속에서 북한을 열여섯 번 방문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평양 세 번, 금강산 다섯 번, 개성 두 번, 개성공단 여섯 번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반드시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후보자가 본인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 따르면 ‘2007년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평양을 다녀왔고 그것이 네 번째 방문이다’, 이것은 자기 페이스북에 썼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통일부에 자료를 요청하니깐 딱 세 번을 갔다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세 번을 갔다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2000년부터……

○**고민정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질의에 해당되니까, 자료 요구만 해 주시지요.

○**김대식 위원** 2000년부터 이해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 하는……

○**위원장 김영호** 2000년부터 몇 년이요?

○**김대식 위원** 2000년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대식 위원** 오늘 점심시간까지 이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2000년 이후부터 방북한 자료를 보내 달라는 것이지요?

○**김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 위원님께서 지금 부산 출신의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아마,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후보님,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이천십……

○서지영 위원 위원장님, 여기 부산 출신 4명이나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김영호 서지영 위원님이 국민의힘은 부산 출신 네 분의 위원님이 있다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글은 제가 직접 작성한 글은 아니었고요. 2012년 12월 대선이 끝나고 나서, 당시 저는 문재인 후보의 세종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가 선거 패배를 했는데 부산에 사는 어느 시인이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인가 하는 제목의 시를 올린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해서 그냥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시를 읽고 혹시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상처를 입으셨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하면 신중하지 못했던 공유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직접 그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시인의 문장을 공유했었다는 말씀인데 그래도 부산시민들에게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위원장 김영호 김대식 위원님, 사과를 받으셨으니까 좀 이따 청문회 때 문제가 있으면 질의를 통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요.

○김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북한 방북했던 그 자료, 김대식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을 테니까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백승아 위원 예.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김건희에게 금거북이와 편지를 건넸다는 사실이 특검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고 국교위를 담당하는 상임위 위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수년간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살아온 분이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 몰랐을 리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책임지는 국가교육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수장이셨는데요. 단순히 이것이 사적으로 정리될 사안이 아닙니다. 아니, 네 줄짜리 입장문 내고 사직해야겠다는 것 이것 도망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저희가 ‘뉴라이트 국가교육위원장 인정할 수 없다’ 수없이 말해 왔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버티셨지요. 그런데 금거북이 나오자, 매관매직 의혹 나오니까 바로 딱 네 줄 입장문 남기고 지금 사라지셨거든요. 이렇게 도망가게 둘 수 없습니다.

특검은 편지와 금거북이가 단순한 친분을 위한 게 아니라 특정한 의도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설사 임명 전 행위라 해도 과거 박근혜 때를 보면 탄핵 결정에서 현재가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는 임기 개시 전후를 막론하고 계속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공직을 얻기 위해 매수하려 했다면 그 자체가 공정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겁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탄핵·파면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의 일탈 아니고 국교위의 위상과 신뢰를 뒤흔드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절대 이대로 그냥 사퇴하게 되서는 안 됩니다.

이배용 위원장 입장문 내고 사직하겠다는 것은 국민과 교육을 우롱하는 것이고요. 지금 연가 쓰고 나서 국무회의·예결위 다 출석하지 않고 있거든요.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사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탄핵소추도 불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백승아 위원님, 이배용 위원장 문제는 정말 저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오늘 청문회에서 이배용 위원장을 우리가 직접 불러들일 수는 없으니까 청문회 마치고 나서 여야 간사님들께서 한번 상의를 하셔서, 이배용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를 떠나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시는 거잖아요? 한번 여야 간사님들께서 상의하셔서 상임위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든 아니면 국정감사 때 불러들이든 하여튼 그것은 간사님들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김대식 위원님, 아까 문제 제기하신 방북 문제가 교육부에서 마련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보면 72페이지에 방북 횟수 자료가, 이때 김민전 위원님의 질문에 답한 그것이 혹시 참고가 되시는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그것 다 파악했고……

○위원장 김영호 했는데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대식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할 때 그것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김대식 위원 왜냐하면 본인 페이스북하고 통일부 자료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말씀 주셨다 그거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드리면요 사실 이 인사청문회와 관계없는 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주의를 주셔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료 요청을 제가 몇 가지를 했는데요 그중에 오지 않은 것 중의 하나가, 왜 이런 자료도 주지 않는가 이해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원대 석사과정 당시의 성적증명서, 등록금 및 장학금 수혜 내역을 제출해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웬만한 직장에 취업할 때 성적증명서나 등록금·장학금 냈는지 여부 이런 건 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주지 않는 것인지, 저는 이걸 주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혹시 이런 것은 아닐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년 9개월 동안에 토지공사 감사로 재직하면서 4억 7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도 또 국가, 토지공사 자금으로 석사학위를 다닌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있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오고 있지 않고요.

또 이 기간에 벌써 8차례의 방북, 15일간 방북을 한 바가 있고요. 17차례에 걸쳐서, 51

일간입니다. 51일간에 걸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의 여행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과수에 가서는 지방 기사에 의해서 여행을 다 끝내지도 못하고 돌아왔던 적도 있고 이런데요.

이렇게 많은 해외여행과 북한 방북을 하면서 어떻게 석사학위를 4시간, 그것도 왕복 4시간 이상 걸리는 곳을 오가면서 석사학위 과정을 했는지 보기 위해서는 바로 성적증명서 등이 필요하나라고 해서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교육청은 인사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임 모 전 교육국장, 김 모 전 비서실장, 안 모 전 진로교육원장, 최 모 전 유치원장 등 4명에 대해서 인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전혀 온 바가 없습니다.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중에 아마 이배용 위원장님 언급하신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청문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배용 위원장이 주요 토론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배용 위원장에 대한 그 사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위원회에서 한두분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이 토론의 주제를 이렇게 단정 짓기는 조금 무리가 따른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청문회의 주요 목적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검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좀 충실히 해 달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후보님, 저희 교육위원회 전통이 자료 요청에 대해서 후보께서는, 역대 교육부장관 후보께서 다 성실히 제출하셨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료제출을 해 주시는 것으로 원칙을 삼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실제로 지금까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출을 하려고 했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 존경하는 김민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목원대 등록금·장학금 그건 제 개인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학교에서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사 문제 감사 결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거의 다 퇴직하신 분이어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의 자료, 그러니까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내부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중징계 요청을 했었고 그것이 또 징계위원회에서 감형이 되고 했었던 자료를 제출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그 당사자들이 지금 현직이 아닌 경우가 많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전 위원 위원장님, 제가 47초가 남아서요.

목원대에서는 자료를 보냈는데 그 후에 국회 제출이 안 됐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목원대에서는 자료제출을 후보한테 했는데 후보자가 그것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지금 김민전 위원님 말씀 들으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위원장 김영호 목원대에서는 아마 자료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후보님께서 개인정보, 아주 치명적인 개인정보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선에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의혹이나 궁금증으로 비쳐졌을 때는 자료제출을 해서

그런 의혹에 대해서 말씀히 해소하는 것이 후보자의 바람직한 태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의사진행해 주세요.

○**정을호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리는 해 줬지만 이배용 위원장님 관련해서 여기서 의사진행발언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서지영 위원** 청문회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정을호 위원** 그래서 아까 정리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대학의 총장까지 지낸 교육자가, 백년지대계를 논하던 인사가 결국 매관매직 의혹과 직무유기로 지금 국민께 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공인 의식조차 없는 분이 저 자리에 앉아서 그동안에 백년지대계를 논의했다는 자체에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매우매우 망신스럽고 창피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모든 것들이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게 과연 믿음직스러울까, 아마 신뢰를 추락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최대한 빨리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배용 위원장님이 지금 사퇴서를 냈지만 아직 사직서 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배용 위원장님께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매관매직 실체와 추가 의혹 여부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고요. 특검 조사는 조사대로 진행하되 국회는 국회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또한 이를 거부한다면 위원장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서 반드시 국민 앞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빠른 시기에 전체회의를 개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이제 여당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은 마무리돼서 더 이상 이배용 위원장님 말씀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정성국 위원** 김민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비속의 대학·대학원 시절 장학금 수령 현황에 대해서 보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 이 부분을 제출하기 곤란하다 하는 부분까지는 백번 양보를 하더라도 본인의 장학금 수령 현황을 왜 공개를 안 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에서 장학금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또 정치적 공세니 이런 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장학금 수령에 문제가 생겨서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공정성 훼손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최고진 후보자님, 이 부분은 피하지 마십시오. 이건 못 피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냥 장학금 수령 현황 이것 끌리는 것 없으면 내놓으시면 되잖아, 이게 뭐 문제라고. 자신 있게 내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동의 여부에 엑스치셨는데 내실 거지요? 답 주세요.

○문정복 위원 이쪽 보고 얘기해야지요.

○정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굴 한번 보는 거지 뭐 또 그것 가지고 그라노? 우리 사이에 말이야. 그렇지요?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호 예.

장학금 수령에 대한 자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제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약속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 부산 동래구 서지영 위원입니다.

아까 ‘부끄러운 부산’이라는 글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글에 부산만 지역을 폄하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글에서는 문재인 후보에게 물표를 준 광주와 또 다른 후보에게 물표를 준 대구는 다르다, 대구는 정의롭지 않은 듯한 지역으로 폄하한 글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시민 여러분들께도 후보자는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드리고요.

○고민정 위원 위원장님, 이런 질문들은 질의 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지영 위원 왜 끼어드시지요? 왜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끼어드십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청문회와 상관없는 발언도 하셨는데 청문회와 상관있는 후보자에 대한 발언입니다.

○문정복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님 보시고……

○서지영 위원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사과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서지영 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북 기록에 대해서, 방북 기록이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의 SNS를 통해서 2001년에 평양을 처음 방문했다고 본인의 SNS에 밝혔지만 실제로 제출한 기록은 2003년 이후의 기록이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방북 기록이 몇 회나 되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 수가 없고 깜깜이 방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를 통해서, 통일부를 통해서 후보자의 방북 기록 일체를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민전 위원님과 정성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목원대학교의 등록금과 장학금 관련 사항입니다. 목원대학교는 제출했다고 했고 아까 후보자는 ‘학교에서 그것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제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목원대학교는 제출했으나 교육부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제출을 거부했는지에 대한 소명도 위원장님께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목원대학교에서 후보자의 출석 기록과 수업 일자에 대해서 기록이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후보자는 토지공사 감사 기간, 재직 중 목원대학교 석사과정을 지냈고, 무려 지방 출장이 49회나 있었는데 그중에 22회가 목원대학교가 있는 대전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공공

기관 감사 재직 중 석사학위를 받기 위해 목원대로 간 것이 아닌지, 그리고 목원대가 있는 곳으로 과도하게 대전으로 출장을 간 것이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상세하게 후보께서 소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입니다.

후보자는 5·18 민주화 유공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과 후보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자세히 소명하지 않았습니다. 지정된 사유와 보상금 수령 여부, 수령액 등에 대해서 일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5·18 민주화 유공자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면 이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상……

시간이 종료된 겁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3분.

○서지영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금 간단히 정리를 해 보면 후보자님께서도 말씀 들으셨겠지만, 대구 시민들에게 사과를 요청하신다는 내용은 들으셨을 테고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는 다 자료 요청 부분인데 방북 기록이 누락됐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 속에서 답변하셔도 되고 잠시 후에 답변하셔도 되고요. 목원대 자료제출 여부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소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18 보상금 수령 문제 또 유공자로서의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아마 청문회 과정 속에서 질의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겁니다. 다만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셨으니까 후보자님께서 간략하게 답변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청문회 과정 속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이라고 하는 시는 제가 쓴 시가 아니고 다른 분이 쓴 시를 그냥 공유했던 차원이어서 그 상세한 내용 하나하나까지를 제가 다 책임지고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목원대 관련해서 자료는 정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최대한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방북 기록이나 5·18 유공자 관련한 부분은 이따 청문회 과정에서 질문해 주실 때 상세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금 자료 요청인데요, 이따가 하여튼 청문회 과정 속에서 소명이 잘 안 되면 아마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은……

○조정훈 위원 제가 발언 아직 다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간사님 안 하셨군요. 죄송합니다.

조정훈 간사님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제보와 그리고 의혹에 대한 내용을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후보가 특정 교조, 전교조 출신 장학사와 전교조 출신 인사에 대해서 세종시교육감으로 있을 때 인사 승진을 시켜 줬다, 부정하게라는 주장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세종교육청을 종합감사한 결과보고서를 요청했는데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에서 현장평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 이걸 제 주장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진행했던 감사 결과보고서를 인용한 겁니다.

또 승진후보 명부 작성 시에 10등 후보였을 사람을 2순위로 등재해서 승진 발령을 시켜서 징계 그리고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의,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저희는 알고 싶은 것이 후보자가 이렇게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특정 후보를 승진 그리고 교육청에 남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야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후보에 대한 걱정 중의 하나가 정치적 편향성과 함께 전교조를 위한, 전교조에 의한, 전교조를 향한 교육부가 될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전교조 경력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짐작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국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분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후보가 법을 어겨서까지 승진한 사람들이 과연 전교조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금전을 받고 승진시킨 건지 알아야되는 것은 저희 야당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부에 요청드립니다. 이걸 교육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후보는 아직 교육부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에 요청합니다.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세종교육청에 대한 2018년도 감사 결과보고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준비를 한번 해 주시고요. 후보님께서도 그 자료제출의 여부를 빠른 시간 내에 판단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질문이 있습니다.

방금 이 자료는 후보의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한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출할지 여부를 후보가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아마 후보가 아닌 다른 분들의 개인정보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판단해 보자는 거지요.

저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자료제출할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너무 과도한 자료제출일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조정훈 위원 그리고 언제까지 교육부가 회신을 줄 겁니까? 점심 때까지……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우리 고민정 간사님이랑도 한번 판단을 좀 해 주십시오. 오전 중에 판단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질의 순서에 따르면 김용태 위원님이십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태 위원** 경기 포천시가평균 김용태입니다.

먼저 교육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도덕성도 중요할 것인데요 사회부총리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사회부총리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사회부총리라고 하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함께 지고 있는 각 부처와 소통하고 의견을 모아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러면 국민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김용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내정된 이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과연 국민 통합과 공정한 그런 통합을 이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정치적 편향성입니다. 헌법 31조 4항에 따르면 교육에서 만큼은 저희가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께서 걸어오신 길을 보면 극단적 편향성을 여과 없이 표출하셨고 또 특히 음모론을 동조하는 그러한 행태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 전파에 앞장서신 겁니다. 후보자께서는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결론 내린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을 SNS에 공유하거나 게시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설을 주장해 온 신상철 씨 관련 글을 공유하고 대표적인 천안함 음모론 영화인 '천안함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해당 영화감독하고도 별도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또한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 좌초된 것일 뿐이라는 글에 동조하기도 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의 그때 생각과 지금의 생각 같습니까, 다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내린 공식적인 입장을 신뢰해야 하고 저도 신뢰하고 있고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분들은, 희생자들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위원** 입장이 바뀌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제가 늘 사회적인 쟁점에 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때는 그것을……

○**김용태 위원** 입장이 달라지신 겁니까, 그때 당시하고? 정부와 국제사회의 결과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입장이 달라지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그때 당시에도 제가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발표를 무시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라고 하시는 누군가가……

○**김용태 위원** 정부와 국제사회가 조사한 내용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음모론을 동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도……

○**김용태 위원** 말씀은 달라지셨다라는 것도 아니고 정부와 국제사회의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주장을 계속해 오셨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음모론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그러니까 음모론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때……

○**김용태 위원** 입장이 안 달라지셨다는 겁니까, 그러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그때의 제 입장은 음모론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김용태 위원** 그러니까 천안함 관련해서 북한의 어뢰 공격이 아니라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설과 같은 글들을 공유하셨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김용태 위원** 그 입장 계속 유지하시는 거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아닙니다.

○**김용태 위원** 왜 달라지신 겁니까, 그러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저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은 당연히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위원** 조금 전에는 그게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러한 가능성 때문에 글을 올리신 것처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입장이 안 바뀌신 것 아닌가요, 그러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아닙니다.

○**김용태 위원** 지금 말이 계속 논리가 달라지셔 가지고, 조금 전에는 정부와 국제사회의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주장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또 정부와 국제사회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따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말이 왔다 갔다, 앞뒤가 안 맞으신데 지금 정확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저는 정부의 입장을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그러면 신뢰하지 않으시고 다른 주장들을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꼭 신뢰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문제 제기하는 의

견을 혹시 함께 검토하거나 토론해 볼 가치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용태 위원** 그러면 천안함 음모론과 광우병 파동 음모론, 사드 전자파 선동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깊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김용태 위원** 아니, 전문성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음모론에 대한 공통점이 무엇인가 여쭙보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

○**김용태 위원** 이런 음모론들의 공통점은 모두 확인되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지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마치 상대 진영들이 거대한 기획을 하는 것처럼 국민을 허구적인 이야기로 선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당시에 천안함 음모론을 가지고 국민을 선동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그렇지는 않았는데, 선동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

다.

○**김용태 위원** 그게 선동이라고 생각되고요. 천안함 음모론, 당시에 국제사회와 정부가 북한의 공격이었다라는 것을 발표한 보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를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주장을 한 것 자체가 저는 음모론에 선동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천안함 음모론과 관련해서 해당 마흔여섯 분의 용사들 그리고 한주호 준위 그리고 유가족분들, 생존 장병들께 사과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혹시……

○**김용태 위원** 사과를 하실 때 왜 입장이 바뀌어지셨는지 그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그때 당시에 제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이견 아니다, 음모론이다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의 의견이 일정하게 토론해 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공유를 했었는데 저는 지금은 분명하게 국가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또 특히 그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일로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건 제가 사과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오후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후보님께서 당시의 발언에서도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은 존중했었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 유가족들에게도 진심을 담아 사과하신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준 위원** 서울 중구성동구을의 박성준 위원입니다.

최교진 후보자님, 교육계에 계신 지 한 40년 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박성준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40년 역사를 바라볼 때 격동의 역사 아니었어요? 교육계 현장도 그런 현장이, 대한민국 정치의 축소판이 또 교육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박성준 위원 그런 가운데 사회운동도 하셨고 또 교육 현장에 있었고 또 책임 있는 세종시교육감까지 3선을 연임했기 때문에, 그러한 업적과 일들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장관후보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장관후보자가 된 가장 근본적 이유, 지명받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지난 40년 동안 일관되게 미래세대의 주인공이어야 할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교육을 해 왔고, 특히 지역에서 교육감을 세 차례 하면서 추진했던 다양한 교육혁신의 정책이 현 새로운 정부의 철학과 일정하게 맞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성준 위원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부의 어떤 성공의 가늠자가 될 정도로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영향력이 있는 건데, 교육정책을 볼 때 초등·중등·고등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초중등 교육의 현장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또 정책을 집행했던 분이기 때문에 가장 적임자다. 앞으로 남아 있다고 하면 초중등,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까지 포괄하는 한국 교육 백년지대계를 만들 수 있는 큰 역할을 좀 해 주시면 한나라는 아마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장관후보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우리나라 관료들이 장관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바로미터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민주주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학교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5000년 역사를, 우리 교육부에서 그러한 역사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민주주의와 관련된 민주주의 훼손, 무너지는 부정의 역사에 대해서도 교육부장관은 명확한 인식과 역사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앞서 이배용 교육위원장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국정감사에서 어떤 지적을 했냐면 이배용 위원장이 역사학자 출신인데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질의했었어요. 그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윤석열 내란과 관련해서 학자이자 총장이자 교육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라고 했는데 정확한 입장도 못 내놔던 사람들이 교육계 수장으로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 산하에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라든가 동북아역사재단이라든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런 분들이 역사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내란에 대한 얘기도 제대로 못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교육부장관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12·3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교육부장관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교육부 수장들이 어떤 입장도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오류로 남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우리나라에는 온 국민이 합의하고 지켜야 하는 헌법정신이라는 게 있고 그 헌법정신 속에서 교육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공직자는 당연히 헌법정신에 기초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로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지켜지는 나라여야 하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민들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셨듯이,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민주주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런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매우 중요하고요. 지난 과거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 극우 이념 교육을 한 리박스쿨 같은 그런 사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장관후보자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일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데 과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바로잡음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있었던 교육정책이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가 장관이 된다고 하면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윤석열 정권의 교육정책 중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 역사의 바로잡음이 있다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무너진 교육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가 장관에 지명되면 저는 6개월 안에 바로잡음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판이 있어야 장관후보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정책 중에 가장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정책 자체보다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교육정책은 굉장히 섬세하게 합의 과정을 거쳐서 추진해야 하는 것인데 몇 가지, AI 교과서 문제라든가 의대 정원 확대라든가 유보통합이라든가 매우 타당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 설득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한 몇 가지 잘못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잘못된 것은 최대한 살피서 바로잡아서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박성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 정원 문제 또 유보통합 문제라든가 AIDT 문제라든가 여러 정책들이 있는데 잘못된 정책 과정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병폐로 이어졌더라는 부분을 장관후보자에게서 장관이 된 이후에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지영 위원 부산 동래구 서지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전과 몇 범입니까?

시간 갑니다. 빨리 얘기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세 번입니다.

○서지영 위원 전과 3범이지요.

PPT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정부는 전자정부가 아니라 전과정부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하여 현재 각료, 내각에 총 7명이 이미 전과자입니다. 톱7이지요. 그런데 후보자까지 임명이 되시면 이제 톱8이 됩니다. 전과자 내각이지요. 전과자 정부입니다. 후보자까지 임명이 되시면 국무위원 전체의 전과가 총 22범이 됩니다. 그래도 후보자가 빠지면 20범은 안 되겠지요. 19범이 되는 거지요.

다음 PPT 주세요.

그중에 음주운전 전과자들이 4명이 있습니다. 대통령, 교육부장관후보, 김영훈 노동부장관, 윤호중 행안부장관. 아까 말씀하실 때 미래세대를 위해서 교육해 왔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것 교육적입니까?

후보자님,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 내각, 전과자 8명, 교육적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첫째로 전과라고 하는 것이 파렴치범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지요.

○서지영 위원 음주운전이 파렴치범 아닙니까? 잠재적 살인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저는 나머지, 음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교육적이냐고 물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실질적으로 2003년 처음에……

○서지영 위원 후보자님, 교육적입니까, 이 전과자들 8명?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다른 분에 대해서는……

○서지영 위원 아이들과 학부모님 앞에 얘기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다른 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제 자신이 2003년, 교사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분명히 잘못됐고 어쨌든 제 생애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바로 2003년 음주운전한 일입니다.

○서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됐습니다.

교육부장관후보가 이렇게 전과 3범인 것 제가 들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음주운전 전과를, 벌금 200만 원이나 받으셨는데 교육부장관후보를 수락하신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제발 전과자 톱7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거취를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의 이념과 사상 그리고 가치관, 국가정체성이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후보자는

본인 페이스북에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북한에 처음 갔을 때 엮드려 땅에 입맞춤하고 싶을 정도로 감격했다. 그리고 북한이 고난의 행군으로 이겨 내고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좋아 보였다’.

고난의 행군이 뭘니까, 후보자님? 대답 못 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북한이 매우 힘든 상황에서 그것을 이겨 내기 위해서 북한 인민들이 같이 함께 극복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지영 위원** 당시에 이것을 하신 게, 고난의 행군으로 이겨 냈다고 얘기하신 게 2001년이고요 2000년에 북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의 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지요. 고난의 행군을 무엇으로 이겨 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은 사실상 김일성 주의를 얘기합니다. 김일성이 항일투쟁을 미화하면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했고 그것을 북한 사회가 어려울 때마다 고난의 행군으로 이겨 내자라고 얘기했던 북한 체제의 슬로건입니다. 이것을 미화하고 찬양하고 두둔하고 거기에 감격하고, 저는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사회부총리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너무나 반교육적인 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실까요.

후보자는 아까 다른 사람의 페이스북을 인용할 때 토론해 볼 가치가 있어서 인용했다고 했습니다. 자, 보시지요. 후보자가 인용한 것들.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미사일을 쏘려고 하면 북한에 쌀과 약을 갖다 바치고 꽃받침 만들고 두 팔 벌려 심장을 내밀어 쏘지 마세요’라고 하자는 겁니까? 후보자는 이게 토론해 볼 가치가 있어서 후보자 후배의 글을, 본인이 ‘후배의 글을 일부러 올립니다’ 했습니다. 이걸 보라는 거지요. 뭘니까, 이것? 북한이 무기 개발하면 무조건 갖다 바쳐서 달래자는 겁니까? 이것을 토론해 보자는 겁니까? 앞으로 이것 토론할 겁니까, 장관 되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아닙니다.

○**서지영 위원** 저는 후보자는 전형적인 친북 좌파 인사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육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교육감이 세 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숨기고 감춘 것 같습니다. 후보자의 행보를 보면 그래요.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후보자는 북한을 열일곱 번 신청해서 열세 번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아까 확인되지 않은 게 있었기 때문에 후보자의 방북 횟수는 알 수가 없고 무엇을 숨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한국토지공사 감사 재직 중에, 이것도 낙하산 감사였지요.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데 토지공사 감사 낙하산이 됐었지요. 감사 재직 중에 방북을 여덟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심지어 북한 1차 핵실험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10월 9일 날 핵실험을 했는데 10월 12일 날 또 북한에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 감사가?

그리고 또 있습니다. 2008년 6월 14일 날 금강산 다녀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우리 국민인 박왕자 씨,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못 가서 또 북한 갑니다. 박왕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해서, 북한군이 죽인 천인공도할 피살 사건에 대해서, 자국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본인 분노한 적 있습니까? ‘그만했어야 됐

어’ 쓴 적 있습니까? 어떻게 자국민이 죽었는데 공공기관 감사까지 한 사람이 또다시 북한에 갑니까? 북한의 VIP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말씀하신 것 가운데 처음에 평양에 갔을 때 감동을.....

○서지영 위원 후보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서지영 위원 질문하지 않았습시다. 후보님 답변 별로 들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후보님께서 심지어 연차 빼고는 어디 간 적 없다고 했는데 연차도 안 내고 북한 방문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섯 번입니다. 북한으로 출근한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제가 그때 당시 일이 남쪽에서 민간인의 교류를 위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서지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남쪽에서부터 남남 대화를 위한 단체였고요.

○서지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그 단체에 제가 실무자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지영 위원 후보자께서 그 단체에 관련돼서 친북 활동을 하시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감사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셔야지요. 토지공사에서 5억대의 급여 받고 북한에는 그렇게 십수 회를 들락날락거리고 자국민이 죽어도 북한에 가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전체 방북한 것이 열여섯 차례는 맞습시다만 그중에서 토지공사 감사 시절에 갔던 것은.....

○서지영 위원 핵실험이 일어나도 북한에 갔고.....

○위원장 **김영호** 답변을 좀 들어 보시지요.

○서지영 위원 자국민이 죽어도 북한에 갔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그렇지 않습니다.

○서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을 좀 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한 두 가지만 말씀.....

○위원장 **김영호** 간략하게 말씀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처음에 방북을 했을 때의 느꼈던 느낌을 그때 당시가 아니라 한참 지난 뒤에 표현했을 때 제가 ‘감격이 됐다’ 한 것은 실제로 절대 갈 수 없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김포공항에서 출발해서 1시간 만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게 우리랑 같은 말을 쓰고 있는, 언젠가 우리가 함께해야 될 우리 민족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감동을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갔던 것 가운데에서 그것은 전부 다 민화협의 공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당연히 통일부에 사전에 신고하고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제출 요구 한 건만……

○위원장 김영호 지금 방북 횟수보다는 방북의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아마 많은 분들 질문할 때 지금 답변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 질의 과정 속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서지영 위원님, 자료……

○서지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제출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서지영 위원 후보자께서는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서 수많은 비판과 비난을 했고 그 글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미화와 찬양 외에 김씨 일가나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은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능하다면 북한 체제나 김씨 일가에 대한 비판 그리고 특히 우리 자국민이 피격당한 사실을, 피살당한 사실에 관한 것 무엇이랄도 본인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례가 있다면 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저도 오늘 이 자료 요청은 처음 들었는데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이따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먼저 후보자님, 교사 출신 의원으로서 현장 전문가가 최초로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크고 기쁘게 생각하고요 축하드립니다. 긴장 푸시고 평소 소신대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감사합니다.

○백승아 위원 후보자님, 지금 북한으로 출근했냐는 소리까지 들으셨는데 놀러 간 것 아니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관련 업무로 가신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백승아 위원 우리 평화통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적화통일 아니고. 그 차원에서 가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국무위원들을 전과자로 몰아가시는데 김영호 통일부장관 2004년 7월 28일 음주운전 적발돼서 벌금 100만 원 받았는데 인청 후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2001년 혈중알코올농도 0.251%, 후보자님보다 훨씬 높지요. 벌금 250만 원 받았는데 인청도 없었어요,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되었고. 왜 낙마했냐? 만 5세 입학정책 논란으로 낙마를 했습니다.

전과자로 몰아가시는데 내란수괴범 지금 감방에서 수사받고 계시지요? 제가 지금 이 단어까지는 쓰기가 민망해서 안 하겠습니다. 어떤 말을 하려는지는 아실 것 같고요.

탄핵 대통령 두 번이나 배출한 정당에서 우리 민주당을, 민주화운동 하다가 생긴 전과자들이 대부분인 민주당을 전과당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느낍니다. 전과자의 시조가 바로 국민의힘이에요. 탄핵 대통령 2명이나 배출한 국민의힘 반성하십시

오.

제가 제 시간을 더 쓸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저는 역사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배용 위원장 임명 당시부터 자격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1년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 위원장, 2015년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던 역사교과서, 역사왜곡 교과서 추진의 주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원흉이지요, 원흉.

2013년 친일·독재 미화 교학사 역사교과서, 2016년 국정 역사교과서 사태. 다 기억하시지요, 후보자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백승아 위원 국정교과서가 왜 문제였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념에 의해서 철저히 기획되고 만들어진 국정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대한민국 수립 정신 왜곡하고 일본 위안부 서술 왜곡하고 학생·학부모·역사 교사 모두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던 반헌법적 오류투성이 기본이 안 된 교과서였습니다.

이배용 위원장은 그 역사왜곡 교과서의 한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배용 국교위에 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심의안을 국교위에 상정하면서 역사과 연구진 논의 없이 고등학교 한국사에 전근대사 성취기준을 추가하는 이른바 밀실 수정으로 아주 대혼란을 일으킨 원흉입니다.

후보자님, 교육감으로 재직하시면서 역사교육의 중요성 누구보다 강조해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면답변에서도 확인했는데요. 독도 탐방, 일제 잔재 청산 프로그램, 지역 독립운동사 교육자료 개발·보급 또 친일인명사전 보급,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역사 동아리 활동까지 교육청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을 바로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하신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제가 감명받은 것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셨어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일제 전범기업 실태, 위안부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교육과 함께 역사 탐구 체험활동 활성화,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등등등 굉장히 많은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해당 조례를 왜 만드셨는지, 그때 강조하셨던 역사교육의 가치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실제로 국정교과서 파동이 있었을 때 그야말로 검인정으로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몇 개 교육청이 함께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위해서 역사교육 보조교재를 만들어서 활용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역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세종시 안에서만이라도 합의에 의해서 그리고 또 제도화함으로써 이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시민들과 함께 말씀드리고 의회에 보고드리고 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백승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겠습니까?

후보자님,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제국주의 침략

역사를 축소·왜곡하는 교과서를 매년 꾸준히 검정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역사왜곡 그리고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 주고 독도에 대한 주권의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도 동감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공감합니다.

○백승아 위원 장관 되신다면 독도교육 내실화 이런 걸 통해서 독도교육도 하고 또 교육감 재임 때의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친일을 제대로 청산 못 해서 이 친일파의 후손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평평거리면서 잘 살고 있지요? 친일파의 후예들이 지금 얼마나 경제 또 정치계에서 큰 역할을 하면서 평평거리며 살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 이주당한 우리 백성들, 국민들, 독립운동가의 후예들, 저 머나먼 중앙아시아에서 얼마나 지금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조국이 그들의 고통을 덜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역사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백승아 위원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역사왜곡 교육을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이 지금 역사왜곡 교육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강력히 이것들을 규탄하고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의지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백승아 위원 일본 측에 교육부장관이 2013년에는 서한문을 발송했고요 2014년에는 장관 성명서 발표했지만 2015년 이후로는 대변인 성명에 그쳤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5년에 박근혜의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거든요. 장관님께서도 이렇게 일본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실 수 있는지 여쭙보고 있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장관 성명이 필요한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이런 일본 교과서 영토주권 침해 부당성 지적하고 교육감 시절의 역사교육 경험 살리셔서 독도교육을 비롯한 제대로 된 역사교육 내실 있게 또 단호히 대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호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아 위원님에 이어서 교사 출신 국회의원이지요.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국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제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를 했는데요. 뭘 했느냐 하면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답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는 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그렇게 답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정성국 위원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주적 개념이 부처마다 쓰는 게 다르다고 알고 있고요.

○정성국 위원 아니, 교육부장관 정도 되면 그 정도 개념은 갖고 계셔야지요. 부처마다 다르다는 말씀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아니요, 대한민국의……

○정성국 위원 사회부총리, 교육부장관 하실 분이 주적을 다른 부처에서는 어떻게 규정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셔야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북한 정권 또는 북한군은 틀림없이 대한민국의 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성국 위원 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까, 적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은, 특히 교육부의 입장에서 북한 주민은 우리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동 번영으로 이후에……

○정성국 위원 시간이, 답하셨으니까 됐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평화적인 통일을 이뤄야 되는 대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성국 위원 제가 정성호 법무부장관 같은 경우도 주적이 북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명쾌히 말했을 때 ‘상식이 살아 있는 분들이 계시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시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것을 물었을까요? 후보자님의 그간의 행적을 보면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느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쭙보겠습니다.

이 말에 대한 해명을 좀 해 보세요. 해방 직후 미국이 없었다면 한국이 사회주의 모범 국가가 됐을 것이라는 주장에 동조한 적이 있지요? 없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없습니다.

○정성국 위원 실제로 없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정성국 위원 팩트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해방 직후 미국이 없었다면 한국이 사회주의 모범국가로 됐을 것이라는 주장에 동조한 적이 없다는 말이지요? 없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바로 체크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 그리

하셨으니까.

화면 보여 주세요.

후보자님, 화면에 보이는 어린이 이름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정성국 위원 누군지 아시지요? 지금 화면 보세요. 안 보입니까, 화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김민식.

○정성국 위원 어린이 이름 누구인지 아시잖아요. 누구입니까?

뒤에서 말하지 마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정성국 위원 아니, 어린이 이름이라는 정도까지 제가 힌트를 드렸으면 이것은 아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민식이법이잖아요. 그렇지요? 민식이법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고민정 위원 얘기를 해 줘야 알지, 민식이가 얼마나 많은데.

○정성국 위원 왜요? 물어보면 안 돼요?

○고민정 위원 아니, 얼마나 많은데.

○문정복 위원 아니, 김민식이라고 그러니까, 민식이법이라고 하지 그냥.

○백승아 위원 지난번부터 너무 스피드 퀴즈 내듯이 하시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다 이해하세요.

○정성국 위원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 실망입니다. 여당 역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무리수 두지 마세요.

스쿨존 사망사건의 민식이는 다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죄송합니다.

○정성국 위원 그러면 다음 숫자 한번 보세요.

이것은 이제 맞추셔야지.

○고민정 위원 에이, 이러지 맙시다. 우리도 모르겠는데, 0.187.

○문정복 위원 에이, 이건 아니야.

○백승아 위원 가족오락관 아니잖아요.

○정성국 위원 에이, 그만 이야기하라니까 자꾸 왜 그래.

뭐니까? 이거는 지금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이 숫자 뭐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제가 음주운전에 걸렸던 수치입니다.

○정성국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우리 교원들은요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처벌 받지요, 교원들이? 말씀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중징계 대상이 됩니다.

○정성국 위원 어떤 정도의 징계를 받습니까? 교육감은 그 정도는 아셔야지.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정성국 위원 교직사회에서 음주운전 발각되면 용서해 줘니까, 경고 처분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사실상 평생 승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승진이 어렵고 중징계 대상이 됩니다.

○정성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승진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정성국 위원 우리 교원들은 다 압니다. 승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다 알거든요. 그렇지요? 교육감님, 아시지요? 승진할 때는 수많은 그런 조건을 갖춰야 돼요.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승진 평정도 받아야 되고 연구학교도 가야 되고 벽지도 가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수많은 조건을 이루어서 한 20년이 되면 승진할 자격이 생깁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정성국 위원 그 수많은 고생을 해서 교감·교장으로 승진을 해요. 그런데 음주운전에 걸리면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엄중한 현실에서 교원들을 통할하는, 교원들의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분이 음주 측정에 걸려서 이렇게 징계를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제 평생의 가장 잘못된 일이고 사과를 드리고, 다만 그때 당시 저는 교원의 신분은 아니었고 22년 전 일인데 그 이후에 반성하는 의미에서 단 한 차례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장관님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박순애 장관후보자 기억나시지요. 그렇지요? 그때 음주운전 경력 때문에 민주당이나 전교조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박순애 교육부장관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사퇴하라는 요구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민주당, 윤석열 박순애 음주운전 감싼다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다’ ‘임명하면 국민 우롱이다’ ‘민주당, 논문표절 의혹·음주운전 경력 박순애 후보 지명 철회해야’, 민주당이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 어떻게 하시는지 들어 보고 싶습니다.

교육부장관후보자님, 민주당 이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본인에게도 똑같은 말 저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명 철회하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제 주장이 무리한 주장입니까, 할 수 있는 주장입니까?

3년 전에 민주당이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국민의힘이 지금 똑같은 것으로 와 있는 교육부장관후보자에게 사퇴해라, 대통령 지명 철회해라 하는 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승아 위원 사과하신대요.

○정성국 위원 박순애 장관, 그때 사과로 끝났습니까? 그때 끝까지 지명 철회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백승아 위원 지명했잖아요. 임명했잖아요.

○문정복 위원 박순애 임명됐어요.

○정성국 위원 이렇든 저렇든 지명 철회하라 했잖아요!

○백승아 위원 임명했잖아요! 지금 누가 목소리 크기 더 큰지 내기해요?

○문정복 위원 임명됐어요.

○정성국 위원 민주당이 지명 철회하라 했잖아요.

○문정복 위원 박순애, 만 5세 입학 때문에 날아간 거예요.

○정성국 위원 끼어들지 마세요. 교육부장관후보입니까? 교육부장관후보 아니에요.

○백승아 위원 사과하고 그 뒤로 운전 안 하셨다잖아요.

○정성국 위원 답하세요. 우리가 무리한 요구한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부장관후보예요?

○문정복 위원 아니, 박순애 임명됐다고.

○정성국 위원 지명 철회하라고 했잖아요!

○문정복 위원 박순애 임명했다고.

○위원장 김영호 자, 정리해 주시지요.

○정성국 위원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무리한 요구한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제가 답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성국 위원 아니, 지명 철회하라는 게 무리한 요구냐고, 제가 하는 말이.

대답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음주했었던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성국 위원 사과하면 다 끝나네. 참 세상 편하다. 그렇지요?

.....
○위원장 김영호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문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실 국민으로부터 가장 지탄받아야 될 일이 맞고요. 사퇴 요구하는 것도 타당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마 2000년 초반까지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좀 관대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청문회뿐만 아니라 사회의 주요한 공직자들 또 주요 인사들의 음주운전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박근혜정부 때,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경찰청장도 음주운전 출신이었는데 결국 그분이 그런 자기의 과오를 잘 극복하고 성실하게 경찰청장 임무를 잘 수행해서 문재인 정부 때 연임됐던 사례도 있어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께서 이 음주운전 생애에서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평생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사죄 이 마음을 잊지 않으시면서, 취임하시더라도 꼭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는 가슴속 깊이 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나 또 사회통합을 위해서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저는 정성국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우리 여야 위원님들 모두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온정주의로 바라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국민들께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야 위원님 같으시지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분들이 공직자로서 이렇게 추천받는 일들은 아마 점점 사라질 것이고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면 아마 음주운전 제로 시대가 올 것이다 저는 이런 기대를 하면서 오늘 청문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을호 위원** 최교진 후보자님, 이재명 정부 교육부장관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감사합니다.

○**정을호 위원** 40여 년간 교육 현장과 행정에 헌신하신 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질의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학교와 아이들을 위한 정책 점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쭙보고 싶은 게 있는데 40여 년 동안 교육 현장에 계셨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하나하고 이것만은 좀 아니었다 생각하는 것 있으면 간단하게 한 10초씩 해서 이야기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교사를 하게 된 것이 저는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아이들을 죽이는 교육이 아니라 살리는 교육을 하고 싶어서 세 차례 해직이 됐고 그러면서 밖에 있을 때도 해직된 상태에서 한 번도 교사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도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해직된 상태였기는 하지만 그게 세 번째 해직된 직후였는데요. 해서는 안 될 일인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은 그 이후에 다시 교육계에 복귀한 뒤에 봐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가장 크게 후회하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다시 한번 사죄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동안의 과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절대 없는 것 확인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그렇습니다.

○**정을호 위원** 저는 한 가지 여쭙보고 싶은 게 아까 북한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북한은 이중적 지위로 생각하는 것 맞지요? 만일 북한이 우리나라 영토를 공격하고 우리 국민을 공격하면 당연히 적군 아닙니까? 적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맞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러나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평화적 교류 대상인 것도 맞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 맞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정을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영호** 죄송합니다.

○**정을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다……

(웃음소리)

안 들려.

○**정성국 위원** 다 들렸어, 다 들렸어요.

○**백승아 위원** 국민들이 못 들었어요.

○**조정훈 위원** 속기록에 다 돼 있어, 속기록에.

○**위원장 김영호**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 중에는 마이크가 안 잡히면 송출이 안 되기 때

문에……

○백승아 위원 시간 다시 리셋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야당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을 다시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안 돼요?

○조정훈 위원 반만 드리겠습니다. 다 들었는데.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5분으로 시작하시지요, 5분. 괜찮겠습니까?

○조정훈 위원 5분까지는 동의합니다.

○진선미 위원 아니, 이것은 본인의 실수가 아니니까 당연히 바로잡아야지요, 지금 생방송 중이니까.

○정을호 위원 나의 실수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다시 7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을호 위원 예, 해야지요.

쑥스럽지만 다시 해야지요.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정을호 위원님 질의 자체가 톤이 야당 위원님들에게 아주 거북한 톤이 아니기 때문에 7분 드리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교육위원회답게 7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고 저는 믿고 7분 드리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최교진 후보자님, 이재명 정부 교육부장관후보자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0여 년간 교육 현장과 행정에 헌신한 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고요. 오늘 질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40여 년간 교육 현장에 계셨는데 다시 한번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와 이것만은 진짜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있었으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늘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가 되었다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내가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86년도에 한 아이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유서를 쓰고 죽은 걸 보고 나서 아이들을 죽이는 교육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해서 교육운동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세 차례 해직도 되고 했었습니다만 밖에 있을 때 해직된 상태에서도 늘 교사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아온 것이 저는 자랑스럽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밖에 있어도 교사였는데 세 번째 해직된 후였습니다만 그때 음주운전을 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다시 한번 사과드려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 질의 중에 북한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북한은 이중적 지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랑 국민을 공격하면 당연히 적군

이고 저희가 함께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이지만 또 보면 평화적 대상이고 우리 민족이고 함께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적 이중 지위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화협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안보는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북한이라고 하는 곳은, 북한 주민은 언젠가 우리와 함께 공동 번영을 하고 화해해야 되고 언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함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먼 훗날 통일을 이루어야 될지도 모를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두 가지를 조화롭게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을호 위원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지표 중의 하나가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장관께서 항상 유념하면서 교육부장관 직무를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교육은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당연히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동의합니다.

○정을호 위원 그런데 최근 21년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소득수준이 낮으면 명문대에 진학하지 못할 확률이 최소 70%라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아마 후보자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계층이동 사다리가 사실상 무너져서 교육 기회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 후보자도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의대와 로스쿨 신입생 절반의 경우가 소위 집이 역대 연봉 이상 가구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지표로 보니까 더욱더 놀라고 있고요.

그리고 예시를 들어서 연고대 로스쿨 1학년 등록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개략적으로라도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2200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렇습니다. 연고대의 경우가 근 3000만 원대 초반이고요. 일반 사립대가 2675만 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도 주위에서 도와주지 못하면 로스쿨과 의대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불리한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저소득층 가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꼭 함께해야 되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국가가 부모님이 돼 주고 옆에 지원자가 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실제로 부모의 경제적인 것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기 능력이 있고 갈 수 있는 곳을 가지 못하는 것은 국가에서 당연히 책임 있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장학금을 더 늘리는 일, 지금 말씀하신 법학전문대학원 같은 곳에 능력이 되는데 실력은 있는데 가정 형편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을

위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더 확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을호 위원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급여 확대를 비롯한 학습비 지원 등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최소 선발 인원 보장과 맞춤형 교육 인프라 지원 등과 같은 것도 교육부에서 좀 선제적으로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공부할 의지가 있으면 헌법에 맞게끔 다 국가가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후보자께서 꼭 유념해서 직무를 수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의대·로스쿨 공화국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지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1등부터 좀 잘하는 친구들은 다 의대 아니면 로스쿨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표어를 내걸었지만 거기에 일할 친구들이 다 의대하고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러면 공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훌륭한 학생들이지만 지원금이 그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으로서 의대라든가 로스쿨에 못지않게 이공계를 살릴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한강 작가도 나왔지만 저희가 K-컬처 문화 강국을 지향하고 있는 입장에서 인문학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특히 현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경쟁에서의 압도적인 진입을 위해서 AI 3대 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정말 AI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전문인재 양성이 매우 필요할 것인데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소질과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의대 쏠림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사회가 다 같이 나서서 해결해야 될 과제일 것이고요. 교육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의대 공화국이 아니라 로스쿨 공화국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과학기술 공화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에서 교육부가 먼저……

○조정훈 위원 지금 10분 하고 있잖아요, 10분.

○정을호 위원 그런가요?

○조정훈 위원 그만해, 이제.

○정을호 위원 예.

하여튼 간에 교육부장관님, 지명된 거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간사님이 합의를 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12시 정도에 마무리를 할 텐데요. 아마 제가 이렇게 쪽 살펴보니깐 김대식 위원님까지 순서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문수 위원님, 오전 질의는 좀 편하게 듣고 계셔도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러면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후보자님, 질의에 앞서서 40년 동안이나 교육계에서 일하셨던 분이 교육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후보자께서는 중등교사 출신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강경숙 위원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실 것이고 그리고 3선이나 교육감도 하시고 또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님도 하셨어요. 이런 모든 이력들이 교육부의 수장으로 서 일하실 때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학생들이 매년 자살하고 있는데 한 해에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통계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마는 실제로는 거의 300명 가까이가……

○강경숙 위원 예, 맞습니다. 200명이 넘고요, 300명은 되지는 않지만. 그리고 사교육비 총액이 매년 경신되고 있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올해 발표만 해도 29조……

○강경숙 위원 맞습니다, 29조가 넘었지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아무쪼록 이렇게 정말 위기의 교육 시대에서 어떤 비전이나 해법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그렇지만 지금 교육부의 어떤 역할이라고 그럴까 리더십이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 세 가지를 들 건데요.

첫 번째로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된다고 하는데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으로 되시면 일단은 사회부총리를 겸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미리 좀 들으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특별히 들은바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정부조직법 개정하기 전까지는 잠깐이라도 부총리를 맡으시게 될 건데요. 윤호중 행안부장관께서 ‘사회부총리를 따로 두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행안부장관이 아마 사회부총리를 함께 하게 될 거라고는 했는데 이렇게 교육부장관이 사실상 사회부총리 역할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새 정부의 판단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그전에 문제인 정부라든지 윤석열 정부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제출되어 있었습시다.

자, 그렇다면 제 질문은 후보자께서 교육부장관에서 사회부총리를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그거는 정부조직 개편 자체를 국가 전체적으로 국정 기조나 정책 환경 같은 걸 변화를 따져서 결정하실 문제여서 제가 언급하는 건 좀 적절치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강경숙 위원 예, 맞습니다. 국무위원이 되시면 이런 다른 의견을 내기가 좀 어려울 텐데요. 어쨌건 이렇게 약화된 교육부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면밀하게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나 하면 이게 사회부총리를 꼭 고집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육 문제 역시 다부처 과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를테면 노동이라든지 어떤 교육, 그러니까 과학기술 분야 이런 데서 공동 대처 없이 교육부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아까도 정을호 위원님 고등교육 인재 양성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그런 부분이 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 국가교육위원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어쨌든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자체가 국가 전체의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일인데 그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책임져서 시작한 현재 2028 대입 관련해서 상당한 현장의 비평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2032 대입안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일들,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계에 굉장히 많은 현안이 쌓여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민적 합의, 숙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시급할 겁니다.

○**강경숙 위원** 맞습니다. 지금 국민적 합의, 숙의 과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참여위원회라는 것을 뒀었어요. 그런데 2024년에 500명 규모로 꾸리기는 했는데 그것을 6회밖에 실행하지 않았고요 참여한 인원은 148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데 이것을 어떻게 늘려 갈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국가교육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교육발전계획, 중장기 이런 계획도 발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완성도 되지 않은 채로 이배용 위원장님은 지금 매관매직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9월 학기제 도입을 한다고 그러지 수능을 두 번 연 2회 실시한다 그러지 내신을 절대 평가한다 그러지, 이렇게 합의되지 않은 문제들을 마구 발표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식으로 자꾸 추진이 된다 그러면 존폐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교육부장관이 되신다 그러면 국교위와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10초 정도만 얘기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임명이 된다면 제일 먼저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함께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우선적으로 함께 협력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어떻게 다수 국민의 의견을 빠르게 모을 것인가를 협의하려고 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강경숙 위원** 부디 이렇게 지금 위기의 교육을 교육부장관과 국가교육위원장께서 함께 협력하셔서 제발 해법이라든지 비전을 제대로 좀 설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강경숙 위원**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교육자치의 문제인데요. 시도 교육감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자치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초중등 교육의 권한이 상당 부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기는 한데 교육자치가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폐쇄성도 있는 것이고 일반 자치와 연계 부족도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시도교육감협의회장도 지내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10초만 얘기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저는 교육자치는 보다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자치의 꽃은 사실은 학교 자치를 이뤄야 되고 학교 자치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우선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머리 맞대고 해 나갈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맞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교육부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행정부처가 아니라 컨트롤타워로서 이행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지요. 예를 들면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든지 미래 교육……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AI 이런 것들은 지방 교육청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총괄해야지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지역의 여건이나 모든 상황들이, 재정 여건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교육부가 해야 될 역할들이 상당히 뽕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되신다 그러면 이런 교육부의 역할이라든지 일관성, 균형 맞추는 일에 전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후보님, 후보님께서 애초에 중등교원으로 처음 부임하신 이후에 전교조라는 것을 고민하시던 그 문제의식이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진선미 위원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전과라는 것도 결국은 전교조의 활동 과정에서 나온 거지요? 생긴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전교조 관련해서도 있고 87년 민주화운동 관련해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 방문 문제도 결국 민화협이라는 사단법인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 위원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체제고 우리에게 늘 고민이지 않습니까? 평화통일이라는 것, 어떻게든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교류법이라는 법을 통해서도 민간교류가 합법화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렇게 민간교류가 활성화됐을 때는 그만큼 평화가 어느 정도 더 잘 유지됐었던 것도 있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그렇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리고 전교조 활동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 교육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래도 많이 해소되고 민주화되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선미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민주화를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불만이 있어도 아무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 그렇게 용기를 내서 본인의 개인적인 영달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지점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마치 친북 좌파라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고맙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면 지금 교원단체들도 다 문제가 있는 거지요.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세종시에서 교육감을 3선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육의 문제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단독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소멸과 또 일자리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연결돼 있는 것인데 어쨌든 신생 도시기도 하고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기도 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과 관련된. 그래서 아마 조례 같은 것도 다양하게 경험했고 그 세종시의 경험을 전국의 다른 교육의 과정 속에서 녹여낼 수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관심이 있는 문제가 어떤 거냐면 지금 영어유치원이라고 얘기하는, 막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 영어유치원 아니지 않습니까? 영어학원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진선미 위원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내모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몇몇 위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이지요, 8월 21일에 학원협회에서 이른바 7세 고시라는 것, 입학시험 같은 것들을 없애겠다 이렇게 선언도 했고요. 그리고 8월 25일에는, 요즘 국가인권위원회가 참 엉망인데 그나마 이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끔 이 7세 고시에 대해, 그러니까 사교육에 대해 교육부에 대해서 이제는 방관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 부분들을 꼼꼼히 읽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들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실에서 조사해서 발표했던 그 자료들을 인용하면서, 특히 강남 3구에서 어린아이

들이 우울증 이런 걸로 정신과 상담을 받은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일종의 아동학대일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으셨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있는 것에 백번 공감하고 저희 세종 교육은 2014년에 처음 출범하면서 유아들에 대한 영어, 외국어교육 자체가 아동학대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공립 단설 유치원에서 일체 영어 수업 또는 방과후 학기도 못 하게 했었습니다.

처음에 좀 반발도 있었지만 실제로 다 같이 안 하게 되니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 대신 우리 아이들이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바뀌는 것에 의해서 굉장히 건강해지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유아 학원이 늘고 있는 것을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실제 국가 교육과정 전체로 볼 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해도 충분히 국제적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어서 사회적 합의를, 설득 과정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유아들에게 너무 조기에, 우리말도 인식되기 전에 외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선미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하셨는데 올해가 광복 80주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독도 관련한 부분들이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미미하거나 오히려 체험관 이런 것들을 없앴다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독도 탐방 연수 부분을 전국적으로 좀 더 확산하고 강화해야 된다. 직접 가서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교육효과는 너무 다를 텐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17개 시도의 독도체험관은 그래도 나름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세종시 같이 조그마한 도시에 독도체험관이 있다면 큰 자치 시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체험관이 있으면 좋겠다, 있도록 지원해야 되겠다 싶고요.

○**진선미 위원** 직접 방문하는 것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왜냐하면 체험관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독도를 방문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원들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들이 독도 체험 연수를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교육감협의회와 논의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정복 위원** 내란을 일으켜서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요 금거북이와 샤넬백 등

금품을 받고 그다음에 주가조작 사건으로 10억 원 이상 수익을 챙겼다고 하는 국민의 힘 전직 1호 당원 대통령 부부가 감옥에 가 있는데 이재명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평가할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지금 장관후보자의 전과를 막 거론하면서 마치 파렴치범인 듯한 뉘앙스를 받았어요. 혹시 국민들께서 굉장히 오해하실까 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음주운전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백번 사과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거 놔두고, 지금 2개의 전과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파렴치범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서 보시면 후보자의 살아온 이력에 대해서 즉 나오는데 후보자께서는 군사독재, 유신·신군부 탄압 피해 당사자입니다. 보니까 집시법 위반하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공무원법 위반하고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런 후보자의 과거 이력이 최고진이라는 인간의 활동 과정에서 충분한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공무원법 위반과 집시법 위반 전과가 있는데 이것을 단순 불법행위로 보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으로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75년도에 대학을 제적당하고 강제로 군대에 끌려간 일이 있고요. 80년 전두환 시절에 끌려가서 고문 등등을 거쳐서 삼청교육을 받았던 일이 있고요. 87년도 6월 항쟁 직후에 집시법 관련해서 구속이 된 일이 있었고 89년도에 전교조 결성에 책임을 지고 구속이 됐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 2건의 범죄사실은 사실 다 복권이 된 거고, 복권되신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그렇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운동과 사회적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복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오해하시지 않으셔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전과 3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지점이라는 거가 있고요.

혹시 천주교 인천교구의 오용호 신부님이라고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문정복 위원** 저희 본당 신부님이셨는데 민화협을 같이 하셨던 분이세요. 민화협이 200여 개의 사회단체가 모인 상설협의체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그렇습니다.

○**문정복 위원** 이 민화협이 결성이 되고, 뽕뽕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단체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문정복 위원** 적어도 후보자께서 민화협 단체의 회원으로서 남북 간의 교류를 위해서 방북하신 것들이 대다수의 방북 요인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그렇습니다.

○**문정복 위원** 저는 민화협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저희 본당 신부님이셨기 때문에…… 하나원에 계시는 탈북주민들이 한국 가정을 체험하는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3회에 걸쳐서 저희 집에서 탈북주민들에 대한, 두 분씩 오서 가지고 한국 가정 체

협하는 그런 체험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단체의 일원으로서 북한에 간 것들 그리고 거기에 가서 한 그런 표현들이 마치 좌파 중북의 원흉인 양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저는 굉장한 불편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좌파 중북 세력입니까? 저희 신부님도 좌파 중북 세력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화협의 회원으로서 활동했던, 그런 남북 간의 교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는 의견을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민화협은 구성 자체가 남쪽 안에서 서로의 이념적인 대립을 줄이기 위한, 우선 남남 대화를 먼저 하고 남쪽의 의견을 모으고 그다음에 남북 간의 서로 다른 이견 이런 것을 통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구성 자체가 제가 민화협 공동집행위원장을 할 때 여당에서, 지금 민주당 쪽의 설훈 의원님께서 집행위원장을 하셨고 그때 당시 이쪽으로는 원희룡 의원이나 정병국 의원 같은 분들이 공동집행위원장을 하면서 함께 활동해서 그곳에서는 정말 좌우가 하나가 되어서 민족 전체가 하나 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것이 정부당국에 의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 민간부터 통일해 가자는 그런 취지의 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렇습니다. 민화협의 전직 상임위원장들을 보면 이수성 전 총리도 있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그렇습니다.

○문정복 위원 홍사덕 전 저기도 있으시고요. 하여튼 간 이게 좌우를 넘어서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상설 기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국민들께서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후보자님께서, 전교조 활동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전교조 활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참교육 실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입시 경쟁에 내몰리지 않고 각자가 정말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존중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요. 제가 시도 교육감을 3선 하면서도 모든 교원단체, 한국교총이나 교사노동조합이나 전교조나 실천교육교사모임이나 새로운 학교네트워크나 거의 모든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같이 뜻을 모아서 일을 했지 전교조 특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정복 위원 후보자님,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교단에 다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에 복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제가 했던 일이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문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 속에서 참 많은 분들의 땀과 희생과 피가 있었는데요 아 마 그 과정 속에서 민주당 인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인사들도 민주화에 기여한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사실 80년도에는 민주협이라는, DJ·YS 선생님이 만든 민주협 인사들도 집시법 위반, 여러 가지 법 위반이 있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과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지탄받을 전과는 아니라고 저도 판단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민주화 부분의 전과에 대해서는 아마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존중해 주시는 게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부산 사상구에 지역구를 둔 김대식 위원입니다.

제가 대학교수 하면서 학생처장 보직을 맡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과천선한 조직폭력배 두목을 제가 만나서 특강을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특강 제목이 뭐냐? ‘나처럼 살면 안 된다’. 최교진 장관후보자께서도 음주운전 거기에 대해서 지금 평생 그것을 잘못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관이 되시든 안 되시든 이 음주운전에 대한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홍보대사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까 후보자님께서 2007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면 4월에 평양을 방문했고 그것이 네 번째 평양 방문이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밝힌 평양 방문 세 번하고 명백히 이게 한 번은 하는데, 한 번은 바로 갔습니까, 아니면 중국으로 해서 들어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직접 페이스북에 나와요. 한 번은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왜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그것을 대조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데,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가셨더라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김대식 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사무처장을 했어요, 공교롭게. 제가 임명하는 게 아니고 노무현 정부 때 임명한 그것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직능상임위원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요 세 번을 평양을 방문했는데 공교롭게……

8월 15일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광복절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김대식 위원** 평양은 뭐라고 합니까? 조국해방 기념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김대식 위원** 그때 방문을 하셨고, 두 번째는 10월 10일은 북한에서 굉장히 행사를 크게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노동당 창립일입니다. 또 이때 방문하셨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4월 15일, 2007년도 4월 15일에 북한에서 최고의 축제 중의 축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지요? 김일성 생일의 태양절입니다.

좋아요. 나는 북한에 갈 수 있다고도 봐요. 그런데 왜 공교롭게 이때 딱 간 겁니까? 이게 민화협 특사로 간 겁니까, 아니면 축하사절단으로 간 겁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단체로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간 일 없고요.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단체로 가든 어쨌든 간에 왜 그때 딱 맞춰서 가시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제가 맞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양묘장 이

런 사업 하나를 하려면 몇 년간 협의를 하고 해서 일정을 맞춰서 가지 않습니까?

더구나 4월 15일하고 직접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아주 명명백백 사실대로 근거대로 설명을 하시겠다고 아까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후보자님께서 한국토지공사, LH 감사를 언제 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2005년 11월 하순경에 발령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2008년, 3년을 채 하지 못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평통 사무처장도 하셨고 열린우리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도 하셨고 대전참여연대 상임의장도 하셨고 민화협 집행위원장도 하셨고 전교조 부위원장도 하셨고, 좋아요. 이걸 얼마든지 말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LH에 상임감사로 발탁된 그런 배경이 뭐니까?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임명권자의 뜻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전참여연대 활동을 비롯해서 시민사회 활동을 오래 하면서 권력 감시 이런 감시 활동을 했던 것과 그다음에 그때 여러 기관 가운데서 토지공사는 개성공단사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맡는 회사였기 때문에 제가 민화협을 통해서 남북관계 일을 했던 것이 그쪽으로도 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은 해 봅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냐면 공공기관들의 청렴도 평가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때 당시 후보자님께서 근무했던 시절의 기관 순위를 보니까 19개 공공기관에서 몇 위를 했느냐? 꼴찌, 19위를 했어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공공기관은 성과를 가지고 성과급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김대식 위원 그런데 2007년도 성과연봉이 9670만 원, 2008년도 성과연봉이 8615만 원, 이것 봉급 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009년까지 급여를 포함하면 4억 7000만 원을 수령했어요.

성과도 없이 기관 청렴도가 바닥인데 이 성과연봉이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권력 기반의 보은 인사입니까, 아니면 낙하산 인사로 이거를 대우를 해 주는 겁니까? 성과가 이런데 어떻게 이런 연봉을 받고 성과급을 받았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당시 기준에 감사에 대한 성과급은 그 회사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따르도록 이렇게 연동해서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7년도에 청렴학교를 새로 개설하고 해서 2008년도에는 실제로 청렴도가 많이 상승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국민 눈높이에 맞다 안 맞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식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대식 위원님이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정성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위원장 김영호 정성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정성국 위원 아까 제가 자료 확인을 하나 요청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방 직후에 미국이 없었으면 사회주의 모범국가가 됐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기억을 못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최교진 교육감님 재직 시절인 2020년 8월 17일 페이스북에 그대로 이걸 딱 올려 가지고, ‘공감하며 공유합니다’ 돼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호 ‘공감하며 공유합니다’?

○정성국 위원 예.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민웅 씨 글입니다.

‘해방의 공간이 미군의 군사 점령으로 장악되었다. 미국에 의해’……

○고민정 위원 지금 끝났으니까 자료제출 요구만 해 주시지요.

○강경숙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정성국 위원 그거 들어 줄 시간 없습니까?

○고민정 위원 원래 원칙이 그렇잖아요.

○정성국 위원 지금 시간이 가고 있는데요. 2분 가고 있는 걸 왜……

○고민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시간 아니니까요.

○정성국 위원 아니, 고민정 간사님. 제가 2분, 시간 안에 하고 있는데 왜 방해를 하시나요?

○고민정 위원 아니지요. 의사진행발언의 원칙은 지키자는 겁니다.

○정성국 위원 아니, 시간 가는 것 보세요.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신 건데, 하여튼 우리 여당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세요.

○정성국 위원 위원장님, 3분 다시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호 하세요. 끝나면 더 드릴게요.

○고민정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이 자꾸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하여튼 신청하셨으니까……

○고민정 위원 자료 요구만 해 달라고요, 3분 다 하셔도 되니까.

○정성국 위원 그러니까 3분 주세요.

○위원장 김영호 자료 요청 부분인가요?

○정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료 확인했는데 아까 그 말 했잖아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해서 확인했더니 했잖아요. 그렇지요? 확인된 거예요. 확인했는데……

○위원장 김영호 이따가 오후 질의 때 그거를 PPT로 띄워 주세요. 그래서 후보님이 확인을 하고 기억난다 안 난다, 나면 어떤 태도이신지 한번 여쭙볼게요.

○정성국 위원 제 말씀은 이것도 분명한 위증입니다. 위원장님, 위증 맞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런데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정성국 위원 그걸 속기록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한 후에……

○위원장 김영호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정성국 위원 그걸 확인한 후에 이것도 위증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고 우리 간사님들께 위증 여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제가 정리해서 한번 상의드릴게요.

○정성국 위원 왜냐하면 위증 여부를 가려 주셔야지요.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시간 있으니까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교육부장관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와 교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까요? 교육부장관후보자가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사고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치 공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이 사회주의 모범국가가 됐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공감하고 공유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저는 선생님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도 없고 이렇게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 페이스북을 저희도 아직 확인을 못 했으니까요.

○정성국 위원 간사님 두 분께서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이따가 위원님들 페이스북 다 확인하고, 후보님도 페이스북 말씀 주신 부분을 확인하고 오후 질의 때 그것 관련해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요, 여야 간사님들께서 1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합의하셨거든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시 반이 조금 넘었는데 이제 오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아까 김대식 위원님까지 하셨지요?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조정훈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지금 후보가 오전에 있었던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6명의 국민의힘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대략 정리해 보니까 열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후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전에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한 건도 없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막 진짜로 시작하기 1분 전에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하나 왔으니까 그걸 빼면 13개가 됩니다. 목원대 재학 당시 등록금 납부 여부 그리고 후보자 5·18 민주화 유공자 보상금 신청 내역 및 수령액 또 법무부 출입국, 방북 및 해외 기록 그리고 세종교육청에 저희가 지적한 4명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그리고 한국토지공사 감사 재직 당시의 감사 검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규. 감사 재직 당시의, 한국토지공사 내규 이게 공공의 문서인데 이런 것도 안 주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가 아까 다 내겠다고 했고 위원장님께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교육위는 자료제출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고 이것은 안 지키면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셨는데 이 건 교육위와 국회를 저는 너무 가볍게 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자꾸 꿈수 부리지 말고 널 자료를 빨리 다 내시고 만약에 못 내겠다는 건 왜 못 내는지 이유를 좀 받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교육위원회가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고요. 다만 후보님이 꿈수라고 볼 정도로 무성의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1750건의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 후보님이 현재까지 927건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 교육부장관후보들은 주로 거의 90% 안팎으로 자료제출을, 타 상임위보다는 굉장히 성실하게 제출하셨다는 점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 보고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자료 요청 건이 있었는데 아까도 제가 기억나는 것은 개인정보 관련된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은, 국민들의 상식이나 국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제출을 해야 된다고 볼 때는 저는 제출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말 무슨 개인정보에 아주 치명적인, 한 개인의 치명적인 어떤 정보가 노출되고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정 간사님, 지금 상임위 중에 후보님을 따로 불러서 제가 말씀을 못 드니까 김문수 위원님 질의 중에 고민정 간사님이랑 두 분이 좀 얘기를 하셔서 후보님에게 요청하고 또 후보님 측으로부터 답변받을 수 있으면 잠시 상임위를 멈추더라도 여야 간사님들께서 좀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질의대로 하면서 여야 간사님들께서 좀 고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정훈 위원** 그것은 저는 동의하고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종특별시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이 건 교육부 자료거든요. 이것 교육부 검토했는데 교육부 답변을 제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건 후보의 입장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영호** 그런 문제까지 하여튼 두 분이 좀 상의해서, 잠시 후에 자료제출할 건 자료제출하고 교육부의 보고 들을 게 있으면 보고 듣고 그걸 좀 두 분이서 논의해 주세요.

그러면 예정대로 김문수 위원님 오후 첫 질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최교진 후보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김문수 위원** 오늘 아무래도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중복물리로 후보님의 어떤 검증이기도 하고 많이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보기에 지금 교육부장관후보자를 놓고 이런 걸로 검증하고 공격하는 게 적절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또 검증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까 북한의 이중적 지위, 어떻게 보면 군사적 적대국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어 내야 할 동포들이기도 하다 보니 이런 논란들이 항상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보면 학생운동권 시절에 사회주의운동을 하다가 막상 러시아나 중국, 북한을 갔다 오신 분들이 더 빨리 ‘사회주의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그게 아닌

것 같더라’라고 오히려 그 현실을 보고 오신 분들이 빨리 깨우친 경우가 많습니다, 가 보지 않고 이래저래 말하는 것보다.

최교진 후보님이 북한을 많이 방문했는데 그것도 정부 허가받아서 갔고, 또 심지어는 이명박 정부 때도 허가받아서 간 적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개성 갔을 때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도 다 개성이라든가 금강산 위주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프레임 씌우는 것을 이제 국민의힘도 벗어나고 그만해야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뭐냐 하면 2002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이겠지요. 북한의 김정일을 만나고 온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편지에, 물론 언론의 내용이라 제가 진위까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런 편지도 썼다는 사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 논리로만 따지면 이것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될 일이지요. 어떤 일로 갔을 것 아닙니까. 좋은 일로 잘해 보자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까지, 사진 한 장 가지고 중복물을 하는 것 타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천안함 관련해서도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무방비 상태로 무능하게 우리나라의 국방부가, 해군이 아무 대응도 못 하고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총 한 방도 반격을 못 하면서 청년들이 그냥 몰살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니까? 대통령 사과하고 국방부장관 사퇴하고 그때 해군 지휘부 했던 사람들 다 처벌받고 감옥을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 대응도 못 하고 그때 북한이 어디서 미사일을 쏘지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어디 반격 하나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처벌받았습니까, 그때 당시?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그것을 갖고 엉뚱하게 이런저런 논란, 저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굉장히 이중적이고 잘못됐다.

천안함 사건만 해도 그때 당시 대통령 국방부 또 해군 지휘부들의 무능함을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감사원에서 합참의장 등 지휘부 25명을 징계해야 된다, 이 중 12명에 대해서 형사책임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적 형사처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우리 국방을 제대로 좀 하려면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처벌들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는 없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교진 후보가 그렇지 않아도 천안함 관련한 추도식에 가서 추도도 하고 그런 것이 있었지요.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김문수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있지요. 이번에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예산이 8733억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래 가지고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충분한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단계적으로 높여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 정

도 예산은 우선 지금 9개 지역 중에서 세 군데 정도를 착수하는 것에 필요한 정도의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고등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김문수 위원** 일단 어떤 개념인지 조금 개념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대를 똑같이 복제해서 금방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혹시 구상을 하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발전도 균형발전이지만 특히 대학입시가 매우 치열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 서울대학교 일인당 투자하는 것의 거의 40% 수준에 머무른 지방거점대, 그것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투자가 많이 되는 그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투자를 전국적으로 고르게 해서 대학입시도 해결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매우 훌륭한 계획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역의 거점국립대 전체를 대상으로가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경쟁력을 세우고 그곳에 지역 학생들이 진학해서 지역에서 학교를 나오고 대학까지 나오고 취업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전체 부서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문수 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님, ‘중복’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중복이라는 뜻을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고 계세요, ‘친북’ ‘중복’?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한자 그대로 하면 중복은 일방적으로 북을 추종한다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후보님이 북한의 어떤 체제를 동경한다든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호** 남쪽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보시지는 않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72년도 전에는 북한이 우리보다도 경제가 조금 앞섰다는 통계도 있지만 정말 지금 이 시대에 북한을 동경하고 북한을 우리 체제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 몇 분이나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지나친 중복에 대한 우려는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만큼 우월하잖아요, 또 월등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후보님이 북한 방문의 횟수가 그냥 많고 그때 민화협 시절의 공식적인 방문이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어떤 편견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 정말 대한민국에 중복 세력, 특히 우리 국회에는 거의 없지요. 없고 대한민국 사회도 중복을 지금 하는 분이 진짜 있으면 저는 정말 제정신 아니라고 보거든요, 죄송하지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위원장님, 짧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조금 아까 김문수 위원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제가 처음 2000년대 초반 6·15 선언 이후에 북한을 직접 가 보고 나서 여기는, 이미 우리 남한과 북한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속에서 실제로 이곳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잘살 수 있게 해서 우리 함께 평화통일을 해야 될 대상이지 이게 경쟁의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오히려 측은한 마음 그런 마음이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그래서 후보님의 그런 입장을 저희도 공식적으로 들었으니까 질의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김민전입니다.

지금 목원대의 장학금 수혜증명서라고 하는 것을 받았는데요.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매 학기 160만 원 정도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는 그 당시에 2년간 약 5억 원의 월급을 수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하면 아마 아파트가 두 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대학으로부터 장학금을 꼭 받아야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장학금을 받은 것이 결국 지도교수와 친분 때문에 이렇게 받은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2005년 2학기의 경우에는 대학원 근로조교장학금을 9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 아시다시피 2005년 11월에 토지공사로 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일한 기간은 석 달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여섯 달 일해야 되는데 석 달밖에 일하지 않았다고 하면 45만 원은 토해 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토해 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위원님, 제가 그 대학원을 다닌 때가 2005년과 2006년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그 수업을 같이 들은 분들이 동료 학생들이, 지역에서 시민 사회 활동을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말과 저녁 시간에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수업을 했습니다.

○**김민전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잦는데요. 2006년의 경우에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받고 계실 때인데 이때도 지역서 시민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장학금을 받는 것은 양심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2005년 2학기의 경우에는 이미 토지공사에 임용이 되고 나서이기 때문에 근로조교 장학금을 받았으면 토해 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근로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수업시수 조정이라든가 수업장소 안내 이런 일들을 하는데 실제로 2005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하순에 제가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2학기는 거의, 2005년 9월 10월 11월 그래서 거의 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 시작할 때 그렇게 계약이라 그럴까요, 그걸 받기로 하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민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05년 2학기라고 하면 9월부터 2월 말까지가 2학기

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오전에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의 하나는 후보께서 교육자로서 40년을 보냈다, 교육자 40년이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후보가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언론에서 접하고 사실 21세기 교사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에게 폭행을, 여학생의 뺨을 때린 바도 있고요. 본인이 음주와 흡연을 학교 다닐 시절에 했던 것을 아주 모험담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금연 구역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위 취중 임명이라고 하지요? 어찌 됐든 그 여부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인마’ ‘전마’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사신 것으로 이미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후보가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굉장히 놀라운 것 중의 하나는 ‘반공 의식 때문에 통일교육이 어렵다’, 그렇다라고 하면 통일할 때는 반공하지 말고 통일하자 이 얘기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아닙니다. 반공·반북 의식을 가지기보다는……

○김민전 위원 반공은 반북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북한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반공은. 그런데 ‘학교의 반공 의식 때문에 통일교육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한 토론회에서 토론하시는 것을 보기도 대체 그러면 중립으로 통일하자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PPT 좀 띄우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음주 한 번, 그것도 20년 전에 음주 한 번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교육감으로 재직하시면서도 교통법규 위반을 총 10번을 하셨고요. 이로 인해서 과태료를 47만 2000원을 냈고 속도위반이 7건 이고 주정차 위반이 3건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를 한다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내가 운전한 게 아니라 기사가 운전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후보가 차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마디만 하셔도 이것을 이렇게 계속하지는 않으셨지 않을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달라지 말라고 늘 주의를 주고 있었구요. 실제로 이런 적발이 된 것이 제가 댔을 때인지 아닌지를 정말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민전 위원 만약에 주의를 줬음에도 기사분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저는 후보의 조직관리 능력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종교육청의 징계, 교사들에 대한 징계 비위 유형을 좀 보시게 되면 음주가 있으면 정직·강등 이런 처분 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내로남불 아니냐, 위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게 되고요. 세종교육청에서 2022년 이후의 교장 임명을 봐도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서 교장으로 발령된 숫자는 2022년 9월 이후에는 1건도 없다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내로남불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금 조금 그런데요 어쨌든 세종시교육감으로 계시면서 있었던 굉장히 문제 있는 일 중의 하나가 신입생 배정 오류 사태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입생 배정 오류가 있고 나서 교육감이 다 구제해 주겠다고 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구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이기고 나서는 학생들에게 그 비용까지도 회수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구제하겠다고 말하고 난 이후에 구제하지 않고 식언을 한 것인데 오히려 소송한 학생들에게 돈을, 소송비용을 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당시 학생 배정 오류는 실무자가 우선전형인 국제고나 이런 학교에 합격한 학생을 제외하고 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실무적인 착오로 인해서 생긴 일이었고 그 일이 정말 우리 교육청 12년 역사에서 가장 힘들고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자기가 원하던 학교에 배정받지 못했던 그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교육청에 와서 하소연도 하시고 호소하실 때 어쨌든 제가 회피하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최대한 너희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전체를 다 100% 구제하기에는 법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 그때 사정을 다 말씀드렸는데 몇몇 일부 학생들이 십여 명이 그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로 교육청이 승소를 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비용을 징구하지 않을 수 없는 또 이게 법적인 절차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실제로 그 일은 실무자의 착오이기는 하지만 전체 조직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시민들에게도 사과를 몇 차례 드렸고 그랬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민전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배정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배정 사태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면 백번 사과를 해도 모자랄 텐데, 사실 오늘 동영상을 틀려고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교육감이 화내는 장면이 있어요, 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반말을 하면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을 찾는다고 하면, 패소한 이유는 정말 교육청이 훨씬 더 좋은 변호사를 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패소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비용을 징구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민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제출 관련해서.

○**위원장 김영호** 예.

○**조정훈 위원** 아까 여러 가지 논의 중에 고민정 간사님이 검토하고 있는 자료도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 제가 반드시 요구하는 자료가 교육부의 세종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원본입니다. 그런데 못 주겠다고 교육부에서 지금 한 장짜리, 개인정보법 65조와 71조를 줄 쳐 갖고 갖고 왔습니다, 개인정보법상 이런 징계받은 사람의 이름을 낼 수 없다.

그런데 저는 실은 이것 위원장님 때문에 배운 것인데요. 인사청문회법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회증언감정법에서는 개인정보법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등을 회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따라서 교육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줄 수 없는 이유에 개인정보법을 했는데 저희 국회증언감정법은 개인정보법 등을 이유로 회피할 수 없고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것. 이것은 아니라고 짐작하고요.

두 번째는 후보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형사소추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은 안 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 냈다고 국가 외교·안보 기밀이 누출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계가족이나 본인이 형사소추될 위험, 이것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에 경고합니다. 교육부가 이것 오늘 저녁시간 전까지 내지 않으면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에 의해서 청문회의 경우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고발합니다. 저녁까지 반드시 2018년 세종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원본 제출하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번에는 고민정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국민의힘에서 요청하셨던 자료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제가 많이 협조를 해 드렸고, 그래서 이미 자료가 제출된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 자료는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삼자의 개인정보를 우리가 공개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지금 후보자를 고발하시겠다 혹은 교육부를 고발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정보 교육부가 판단 없이 그냥 공개했을 경우에는 이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고발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수많은 인사청문회와 국감들을 했지만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민주당이 늘상 달라고 요구는 했지만 늘상 국민의힘에서는 안 주셨지요, 개인정보 보호라는 미명하에.

그래서 당사자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사자에 해당되는 목원대 관련 정보는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저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정보를 국회의 권한으로 공개해라? 그것은 저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간사님……

○고민정 위원 그만, 저랑 따로 논의하시지요.

○조정훈 위원 아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고민정 위원 아니, 따로 저랑 얘기하시자고.

○조정훈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 법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저희한테 안 주신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정훈 위원 이 법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등을 회피할 수 없고, 두

번째, 개인이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사람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 아니고요 후보가 세종시교육감으로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승진한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후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지 어떻게 관련이……

○고민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질의를 통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조정훈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제출이 어려우면 제가 열람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파악하고자 하는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럴 권한이 교육부에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제 정리하시지요.

○고민정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오셔야지요. 그러면 나머지 자료들도 저희가……

○조정훈 위원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국회법에 돼 있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감한 문제 또 개인정보 문제들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여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목원대도 아마 고민정 간사님이 잘 설득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의 개인정보가 아니라 다른 분들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는 자칫 잘못하면 후보뿐만 아니라 교육부 공직자들도 정말 고발당할 수 있다고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역지사지해서 조정훈 간사님도 생각하면 그럴 우려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간사님께서 조금 더, 피곤하시겠지만 상의해 주세요. 사실 저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상식으로 이 자료제출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여야 모든 위원님들도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우려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혜를 찾아 주세요. 일단 계속 두 분은 논의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 김준혁입니다.

제가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되나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자꾸 지금 이념 논쟁으로 가는 것은 지양하고 정책 논의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아까 앉아 있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계사 편력’, 네루 수상이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자기 딸에게 보내는 편지가 책으로 묶여졌는데 거기 맨 마지막 편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지 말고 과거를 기반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라고. 너무 오늘의 잣대로다가 과거 20년 30년 전, 40년 전의 이야기를 하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책질의 하기 전에 화면 하나만 보고 정책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계속 천안함 논쟁이 좀 있었는데요. 아까 김문수 위원님께서 잠깐 보여 주신 게 있는데 천안함 5주기 추모식 때 후보자님께서 직접 참관하셔서 참배한 내용 이런 게 공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천안함 용사들에 대해서 폄해를 했네 마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안 나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하셨던 일, 세종시교육감으로 3선 하시면서 여러 혁신정책 추진하셨고요

성과도 있고 한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하셨던 일들이 교육감이 아니라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교육의 성과에 대한 내용, 제가 죽 봤을 때 굉장히 혁신적이고 좋았던 내용이 세종캠퍼스고등학교, 영상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세종캠퍼스고등학교, 캠퍼스형 고등학교가 사실은 굉장히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상도 있고 올해 2025년도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선정도 됐습니다. 어떤 취지로 만들게 됐고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세종시에 일반,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학교를 꾸준히 짓게 되는데 학생들 가운데는 처음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갈 때 예를 들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호해서 갔는데 가서 다니다 보니까 이것을 좀 바꾸고 싶은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싶는데 학교에 준비되어 있는 선생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과목은 들을 수 없는 이런 것을 생각해서 2014년 처음 제가 당선되면서 일반계 고등학교 3개를 한 캠퍼스에 지으면 어떨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제2외국어를 일반 학교 같으면 일본어밖에 배울 수 없는데 세 학교에 일본어·중국어·불어 이렇게 세 분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 학교에서 그 시간에는 움직이면서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출발을 해서 인문계·자연계·예체능계가 한 캠퍼스 안에서 같이 공존하면서 실제로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김준혁 위원** 지금 질문할 게 많은데 또……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어쨌든 그 생각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세종 지역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 반응은 좀 어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이제 올해 개학해서 한 학기가 지난 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매우 기대도 크고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런데 이게 최근에, 이따가도 정책질의를 하겠지만 고교학점제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지금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보다 이 세종캠퍼스가 고교학점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고교학점제의 아주 주요한 대안은 세종에서 캠퍼스 그 이전에 실험했던 세종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학교를 떠나서 주말에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건데요. 그 강사는 선생님들도 일부 담당하시기도 하지만 세종 근처에 있는 대학교 교수나 연구단지의 박사님들이 담당을 해 주셔서 실제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관련 과목을 학생들 신청자가 한 10여 명만 되면 개설을 해서 미리 대학, 학점제 대비를 2016년부터인가 꾸준히 해 오고 있었고 그것이 실제 대학 진학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만약 장관이 되신다면 세종교육감 시절에 했던 세종고교캠퍼스 이 시스템을 전국에 확대시킬 생각이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많은 분들이 이것을 원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연구해 보고 적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실질적으로 온라인수업과 함께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고교학점제를 보완하는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이미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세종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농어촌이나 산촌 지역에, 학생이 많지 않은 지역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반론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그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런 학교가 가능한 것은 일정한 규모의 도시에서 학교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거나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학생 수가 아주 소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서 캠퍼스고등학교 자체를 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캠퍼스고등학교의 운영 원리인 아까 말씀드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지역을 뛰어넘는 온라인수업까지 같이 연동해서 한다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준혁 위원** 고맙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쨌든 미래형 고등학교의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좋은 역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오늘 인사청문회를 쭉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감을 오래 하셨다 보니 정책에 대한 질의는 별로 없으시고 다들 후보자께서 북한을 방북하셨던 일들 그리고 지난 과거 전교조 활동과 관련해서 정치 편향이다 이런 논란들이 계속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누가 보면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 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그런데 제가 여당 간사이긴 하지만 후보자님께 조금 아쉬운 것은 아까 민주화운동 참여하시고 또 87년 6월 민주화 항쟁도 참여하시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소위 빨간 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자신 있게 강하게 반박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다시 그런 시대가 와도 그런 역할을 피할 생각은 없지만 2025년 기준에서 볼 때 그 모든 행동이 똑같이 그렇게 볼 수 있을까, 다르게 보실 수도 있겠다, 다르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다……

○**고민정 위원** 이미 경험하신 분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런 겸손의 말씀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자칫 우리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가 그냥 몇 마디 말로 다 폄훼되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모욕적이었거든요.

그러면 87년 6월 항쟁에서, 그 당시 어쨌든 옥고를 치르시고 하셨는데 후회하지는 않으시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고민정 위원** 그리고 80년 5·18 이후에 공주의 봄 민주화운동 참여하셔서 삼청교육대

까지 끌려가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후회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아닙니다.

○고민정 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후보자님 같은 그런 역사를 누군가는 대신 치러 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욕도 하고 권력자들을 향해서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다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이것은 정치 편향이니까 얘기하지 말아야지. 대통령과 관련된 일이니까 비판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만 하셨더라면 과연 우리가 지금의 이런 민주화 세상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후보자님께서 박수를 받으셔야 될 부분인데 너무 겸양을 보이셔서, 너무 고개를 숙일 필요는 없으시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후보자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수많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셨던 많은 유공자들에 대한 모욕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자신 있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북한 방문과 관련해서도 열여섯 번 방북을 하신 거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북한을 가셔서 지금 또 이렇게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가셨던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후회하지 않습니다.

○고민정 위원 저는요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좀 평화를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반공’이라는 단어를 들어야 되는 이 현실이 참 슬픔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늘상 말씀하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 혹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이분들 보면 그 누구보다도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엄혹했습니다. 머리에 빨 달렸다고 얘기할 정도의 사람들을 북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했었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 왔던 시절이지요. 그런데 박 대통령 어떻게 하셨느냐?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위해서 남북 간에, 그때 중앙정보부장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서울과 평양을 계속 오가면서 이 협상안을 끌어냈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노태우 정부 때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표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계속 남북을 오가며 누군가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

왜 이 말씀을 제가 굳이 드려야 하면 향후에 교육에 대한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철학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그냥 인사청문회 안에서 보수당 진보당 서로 막 으르렁거리면서 얘기하니까 ‘나는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닌 걸 해야지’ 이렇게 되면 그냥 회색 인간들만 계속 만들어 내는, 생산해 내는 대한민국 교육으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게 아이들 사이에서 마치 놀잇거리처럼 회자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가 될 정도면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그런

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사들이 제지를 해야 되는데, 교사들 제지합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안 될까요? 바로 이런 논란 때문에. 제지하면 당신은 어느 쪽이나 편 가르고 학부모들이 민원 제기하고 그러니까 교사들이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놈의 정치중립성 때문에. 정치중립성을 따질 때가 있고 안 따질 때가 있는데 저는 이게 아이들을 회색 인간으로 만드는 대한민국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후보께서 가지고 계셨던 지금까지의 길들을 부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신 있게 아이들에게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경험담도 얘기해 주시고 교사들에게도 그런 자신감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국회에서도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어떻게 하면 더 확보해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장관후보자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실 의향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고민정 위원 우리가 벌써 몇 달 전이긴 하지만 서부지법 폭동이 있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고민정 위원 그것은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고민정 위원 이런 것은 바로잡으시라는 겁니다.

계엄이 있었습시다. 그것은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잘못된 일이라고 판결이 났습시다.

○고민정 위원 판단이 났습시다.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도 계엄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모두가 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요 계엄 얘기 못 합니다. 왜? 또 정치적 편향성을 얘기하니까 교사들이 못 가르쳐요.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이것 바꾸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노력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장관, 얼마큼이나 그 임기를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장관님 계시는 동안만큼이라도 민주시민교육만큼은 꼭 한 획을 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고민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후보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좀 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후보님이 자꾸 ‘교육 경력 40년’ 하시는데 40년 아니에요, 20년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반평생은 정치인으로 사신 거예요.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정치인은 아니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열린우리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정치인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그 기간은 1년……

○**조정훈 위원**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 지역 위원장, 정치인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그것은 정치 아닙니다.

○**조정훈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 이것 당과 관련돼서 얻은 것 아니세요? 대한체육회 이사, 이것도 정당과 관련 있는 사람들 임명해 준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아닙니다.

○**조정훈 위원** 제 말씀은 40년 교육 경력이라고 했는데, 제가 따져 보면 교사로 9년 6개월 계셨고 교육감으로 11년 계셨어요. 따져 보니까 20년 정도 돼요. 나머지는 굉장히 정치와 관련된…… 민화협, 대한체육회 이사, 이게 교육활동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지요? 40년 교사라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 40년 동안 교편 잡은 분들이 화답니다.

두 번째, 이진숙 후보의 낙마 이후에 저희 국민의힘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후보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 지명할까? 그리고 최교진 후보라는 분이 발표됐을 때 저희가 많이 찾아봤습니다. 어떤 분일까? 이진숙 후보보다 뭐가 낫고, 뭐가 더 나쁠까? 당연히 저희 쪽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가지 저희가 확인한 게 있습니다. 최교진 후보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이진숙 후보보다 나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뻗속까지 우리 편입니다. 뻗속까지 우리 편이어서 진영에 대한 착각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전교조 활동을 넘어서 정당 활동 그리고 재단 활동 그리고 정권을 잡았을 때 나눠 줄 수 있는 공공기관을 여러 번 다니셨기 때문에 뻗속까지 우리 편이세요. 그것까지 인정합니다. 교육부장관,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우리 일반 국민들,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지 않고 또는 아직까지도 경계의 눈, 걱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 최교진 후보가 교육부장관이 되면 교육이 어떻게 바뀔까라는 그 질문은 당연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지금, 정책질의 없다고 간사님 말씀하셨는데 기다리십시오. 저희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오늘 청문회를 들으면서 드는 여러 가지 생각은 과연 나처럼 살면 교육부장관 된다는 그 교훈이 무엇을 의미할까?

비록 옛날얘기지만 학생에게 손찌검하셨지요, 여학생에게? 그것도 성적 떨어졌다고 우는 학생한테 손찌검하셨습니다.

후보님, 물어볼게요.

비록 과거지만 그 손찌검이 유일한 손찌검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학생들한테도 손찌검한 적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그때 한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1982년의 일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 외에는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교육부장관이 되시더라도 어떤 제자가 나와서 나는 최교진이라는 사람한테 맞아 본 적이 있다라고 양심선언하시면 그 즉시 교육부장관 사퇴하실 겁니까? 위증이잖아요.

○**고민정 위원** 아직 임명도 안 된 사람한테 사퇴를 물어봐요?

○**조정훈 위원** 만약에.

○백승아 위원 만약이 어땠어요? 이프(if)는 없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가정을 하고 하는 그 질문을 하셔야 될까요?

○조정훈 위원 왜 못 해요, 자신 있으시면? 음주운전 한 뒤로 한 번도 운전 안 하신다며요. 전 그것 존중합니다,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손찌검 그것 한 번이 마지막이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음주운전도 그게 마지막이었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조정훈 위원 자, 보십시오.

논문 표절도 그게 마지막이었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논문 자체를 써 본 것이 그거 한 번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2025년에 교사로 일하는 분들이 학생들한테 손찌검하면 안 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조정훈 위원 그런데 교육부장관은 했기 때문에 ‘나는 했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너는 안 된다’ 하실 거고요. 음주운전, 교사가 하면 교장 못 되는 건 말도 못하고 승진도 못 한다고 하셨는데 ‘나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너 때는 더 엄격해졌으니까 네가 받아들여라’ 하실 거고. SNS에 이렇게 부적절한 메시지들을 수십 번 써도 괜찮은 겁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다 넘어갈 수 있었던 그 생각은 뭘까? 뻗속까지 우리 편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까지 제가 인정하는데요. 저희가 걱정하는 시작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 ‘교육부장관 돼서 뭐 하고 싶으십니까?’, 제 서면질문 1번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쟁을 완화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2번에서도 과도한 입시 경쟁, 경쟁 부담. ‘경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시고 또 경쟁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장관후보님, 경쟁이 나쁜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

○조정훈 위원 저는 경쟁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공정하지 않은 경쟁이 나쁜 것 같아요. 제가 틀립니까?

경쟁이 나쁘니까, 공정하지 않은 경쟁이 나쁜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공정하지 않은 경쟁은 정말 나쁜 것이고요.

○조정훈 위원 그렇지요.

자, 솔직히 생각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가능하면 경쟁보다는 우리 학생들에게 함께 가는 것을, 공동체를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교육 사다리, 지금까지 작용해 왔고 최근에 끊어졌다고 다들 걱정하는 교육 사다리라는 그 자체가 과연 뭘니까? 막말로 아무런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집안에 학생이 태어나서 열심히 교육 경쟁해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 가고 직장 얻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잘살게 되는 그 과정이에요.

그러면 경쟁하지 말자는 건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예요? 경쟁에 뛰어드는 그 학생 잘못된 겁니까? 그 아이에게 오히려 더 많은 문을 열어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경쟁 경쟁 경쟁, 마치 경쟁을 얘기하면 나쁜 사람 취급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승아 위원 공정한 경쟁이 안 돼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학생들은.

○조정훈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예, 말씀해 주시지요.

○백승아 위원 말조심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한 가지로 경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모든……

○조정훈 위원 잠깐만요.

지금 어떤 위원님이 ‘말조심하세요’ 하셨습니까?

○백승아 위원 가만히 있으라면서요.

○조정훈 위원 아니, 어떻게 다른 위원이 발언하는데 ‘말조심하세요’ 이런 발언을 하세요?

○백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조정훈 위원 발언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저는 세종 교육을 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세종에 있는 학교에서는 한 학급에 25명이 들어가는데 1등부터 25등까지 한 가지로 줄 세우는 교실이 아니라 한 교실에 스물다섯 가지의 1등인 학생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교실을 꿈꿉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성적이면 성적 이거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서로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상대방도 인정해 주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이 옳다는 것 때문에 경쟁보다는 상호 협력하고 가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 실제로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라고 생각해서 경쟁을 좀 과도하게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 자체가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후보님이 말씀하신 거는 경쟁은 인정하는데 과열 경쟁을 우려하신다는 거잖아요, 사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사실 교육 선진국을 가면 선행학습을 못 하게 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룰인 거예요, 같은 시기에 같이 공부해서 마무리하는. 그 안에는 경쟁이 있는 거지만 선행학습 자체를 교육 선진국에서는 반칙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치고요, 이제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 김용태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시지요.

○김용태 위원 제가 오전에 교육부장관 사회부총리로서의 우려가 되는 지점, 천안함 음모론 동조와 관련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일회성 말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PPT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후보자님 SNS를 좀 보니까요 한충목이라는 분이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SNS에 ‘한충목 동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한충목이라는 분 잘 아시는 분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김용태 위원 제가 알아봤더니 한충목 씨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구속됐었고 2024년 최근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도 여러 차례 오가셨고 또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가 2001년 창립할 당시 고문을 맡아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오기도 했습니다.

한충목 씨의 주장은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군사훈련 반대,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씩 여쭙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아닙니다.

○김용태 위원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전체를 바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
다만 일부 조항은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위원 논의는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미군사훈련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그건 적절하게 정부에서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러면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 여쭙보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부총리후보자이시기 때문에 여쭙보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

○김용태 위원 대답 못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아니, 중단…… 한미군사훈련 국가에서 판단해서 적절하게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김용태 위원 아니, 사회부총리후보자로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저는 아직 사회부총리가 아니라서……

○김용태 위원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걸 듣고 저희가 판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청문 위원들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한미군사훈련 적절한 수준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용태 위원 적절한 수준에서 할 수 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의……

○**김용태 위원** 그러면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식에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용태 위원** 한충목 씨의 여러 주장에 동의하는 바도 있으신 것 같고 동의하지 않는 바도 있는 것 같은데, ‘동지’라는 표현 계속 알고 쓰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젊었을 때 함께 활동할 때 부르던 것을 그냥 관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 사상 하나하나를 행동 하나하나를……

○**김용태 위원** 2018년 2025년 최근에 쓰셨는데 교육감이실 때 쓰셨던 거잖아요, 재야 시절에 쓰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한충목 씨의 그런 생각들도 동조하신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쭙보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태 위원** 제가 계속해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후보자께서 세종시교육청 교육감을 역임하셨을 때, 2019년 발간한 교사 학습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교육감이셨지요? 내용에 ‘NLL이 유엔사령부의 일방적 통보로 설정됐다는 북한의 주장, 설득력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요. 저 교재는 우리 교육청이 행정적인 지원을 했을 뿐이고 실제로 우리 교육청에서 저 내용을 함께하거나 하지는 않았습시다.

○**김용태 위원** 제가 계속해서 천안함 음모론 동조와 관련해서 계속 여쭙보는 이유는 후보자께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편향성이, 사회부총리로서 아까 저랑 처음에 대화하실 때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자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역할을 수행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우려되는 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청년들, 2030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노를 했었습니다.

후보자님, 조국 전 장관 당시에 많이 옹호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그……

○**김용태 위원** SNS에 많이 옹호하셨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옹호하는 글에 동의한 일은 있었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렇지요? 여러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 확정판결 받았는데 후보자께서는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분을 느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가 좀 과도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러면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교육부장관후보자로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후회하는 것은 그것만 봤지 실제 그 일로 인해서 그걸 바라보는 젊은 친구들이 나는 어떻게 해도 참 갖기 어려운 기회를 저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가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고 그런 불공정 이런 것에 대해서 몹시 마음이 상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잘못 생각했다 교육자로서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준 위원** 후보자님, 냉전시기에 우리나라 박정희·전두환 정권이 있었지요? 박정희 정권은 유신을 통해서 영구 집권을 모색했지요? 유신 반대운동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시대정신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시대정신이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준 위원** 그래서 구속됐다고 하면 온몸을 희생하신 겁니다, 후보자님이.

그리고 박정희 정권 이후에 전두환의 군부 통치가 있었지요?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온몸으로 저항하는 게 그 당시 시대정신 아니었어요? 그래서 구속됐지요, 삼청교육대도 가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박성준 위원**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준 위원** 그리고 그런 냉전시기를 거쳐서 탈냉전시기에 남북에 화해의 물꼬가 트고 사회주의권에 있는 공산국가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평화 정책,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평화 정책, 햇볕정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당시에 남북교류라고 하는 것은 시대정신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민화협을 맡아서 북한을 방문하고 남북교류를 하고 평화 무드를 만들어 가는 그 역사 현장에 후보자님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을 받을 정도의 중요한 계기가 있었고 그때 그 민화협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지금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리고 군부 통치의 냉전시기에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정적을 제거하는 하나의 도구화로 써서 고문도 하고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폐해가 분명 있었던 거고요.

윤석열 정권 어떤 정권입니까? 공산 전체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영구 집권해서, 내란까지 범했던 정권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후보자님?

윤석열 정권에서 했던 일들이 뭐예요? 공산 전체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적 갈라치기를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홍범도 장군을 무슨 공산주의 세력으로 해서 육사에서 흉상을 철거하고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정권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런 정권이었어요, 그런 정권, 윤석열 정권이. 그것이 무슨 정권이었나? 냉전시기에 있었던 군부 통치의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모습을 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통치의 이데올로기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내란까지 했고 김건희 정권하에서 영구 집권을 모색했던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12월 3일 날 내란의 밤을 볼 때 이재명 대표, 김민석 총리, 정청래, 박찬대 대표 다 수거 대상 아니었습니까. 수거 대상이라는 건 뭐예요? 어느 날 끌려가서 고문받고 삼청교육대 또 끌려가는 것 아니에요? 최고진 후보자도 그런 리스트에 올라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김영호 위원장도 리스트에 올라가서 어느 날 구속돼 가지고, 구속돼 가지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그런 정권의 모습이 윤석열·김건희 정권이었습니다.

과거에 최고진 후보자가 유신을 반대하고 전두환 군부 통치를 반대해서 구속되고 구금됐던 그런 상황이 지난 12월 3일 날 내란 이후에 우리나라에 또다시 재현될 수가 있었고 그 모습이 뭐였냐? 반공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적을 제거했는데, 윤석열 정권이 공산 전체주의를 내세우면서 이데올로기적 잣대로 자신들의 영구 집권을 모색했는데 오늘 청문회에서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데올로기적 잣대로 최고진 후보를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윤석열 내란 정권의 연장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요.

지금 여기 계신 국민의힘 위원들이 김건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받은 것에 대해서 다 옹호하고 발언하지 않았어요? 그 의원들 많아요, 지금. 그러면 자격들이 있습니까? 내란에 대해서 옹호했던 사람들이 오늘 여기서……

○서지영 위원 여기서 누가 옹호했습니까?

○박성준 위원 최고진 후보자의 과거에 역사 현장에서 온몸으로 저항하고 고문당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란 옹호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최고진 후보자에게 그런 질의를 할 수가 있어요?

○서지영 위원 이 자리에서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위원장 김영호 발언 빨리 마무리하세요.

○박성준 위원 내란, 방해하고 비상계엄에 대해 옹호했던 국민의힘 위원들이, 수많은 위원들이 최고진 후보자에 대해 이런 질의를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발언한 사람들이 여기 자리에서 질의를 할 자격 있습니까? 그 정도로 얘기를, 최고진 후보자가 과거의 역사에서 그렇게 고문받고 온몸으로 고생했던 그 후보자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신들의 이념적 잣대로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윤석열 내란 정권의 연장 아니예요, 지금. 반성해야 돼요, 오히려. 무슨 소리를 합니까, 지금.

○위원장 김영호 발언 끝나셨지요?

하여튼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희 당 위원들 대표해서 제가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감사님이시니까, 조정훈 감사님.

○조정훈 위원 박성준 위원님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 하고 싶으셨는지 또 이렇게라도 후보를 방어하겠다는 절절한 마음은 이해하는데요. 저는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박성준 위원 후보의 방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정훈 위원 저희 국민의힘 교육위원 중에 내란을 옹호했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투표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내란 옹호지 뭐야?

○김민전 위원 어디서 고향이야!

○조정훈 위원 실명 거론해 주십시오.

그러면 투표 안 한 민주당 의원들은 다 내란 옹호한 겁니까, 그 논리로 가면?

○박성준 위원 김민전 의원은 할 자격이 없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조정훈 위원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투표 안 한 의원님들도……

박성준 위원님, 제가 질문합니다. 투표 안 한 민주당 의원들 내란 옹호한 거라고 인정하시면 저희도 인정할게요.

○백승아 위원 말꼬리 좀 그만 잡으세요. 민주당이 무슨 계엄을 옹호해?

○박성준 위원 조정훈 위원 발언한 것 다 조사해 볼까? 뭘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어디서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 청문회장을 홀트리고 있어!

○조정훈 위원 왜 그런 표현…… 제 발언 조사해 가지고 계엄에 대해서 옹호한 발언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제가 사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없으면 어떡하실래요?

○고민정 위원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옹호하고 있잖아요.

○조정훈 위원 우리 당 위원 중에, 교육위 위원 중에 내란에 대해서 옹호한 위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제가 사과합니다. 좀 알아보고 얘기하세요.

○서지영 위원 민주당에서 투표 안 한 사람들, 내란 옹호자입니까?

○위원장 김영호 이제 하실 말……

조정훈 간사님, 발언 마무리하셨지요? 지금까지 저희가……

○김대식 위원 민주당에서 투표 안 한 분들은 그러면 내란에 동조한 겁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백승아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여러분이 일부러 안 했잖아요, 투표.

○문정복 위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오라 그래서 당사에 있었던 분들은 의도적으로 투표 안 한 거니까.

○정성국 위원 청문회에 집중합시다, 청문회에.

○위원장 김영호 조정훈 간사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이번에는 고민정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지금 위원님들……

○김민전 위원 내란인지 아닌지 재판 중이잖아요, 지금.

○위원장 김영호 잠깐만요.

○문정복 위원 내란 옹호자 맞지.

○김민전 위원 내란인지 아닌지 재판 중인데 무슨……

○백승아 위원 뭐라고요? 내란인지 아닌지가 재판 중이라고요?

○김민전 위원 그럼요. 지금 재판 중인데.

○문정복 위원 그러면 내란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데, 헌법 재판소……

○김민전 위원 재판 결과가 나와 봐야지. 무슨 소리야?

(장내 소란)

○위원장 김영호 고민정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 중단해 주시고요,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지금도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계엄, 내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느냐?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우리 당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매일같이 얘기하는데 당에서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저희가 매일같이 그런 뉴스를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다른 의견들이 두 갈래로 존재하는구나. 그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당 위원으로서는 아직도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의견을 물은 거고, 이걸 왜 못 합니까?

○조정훈 위원 교육위 위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특정해서.

○정성국 위원 우리 교육위 위원들에게 왜 그러세요?

○조정훈 위원 그게 누구냐고, 지정하라고요.

○정성국 위원 아닌 사람도 있지요. 왜 그걸 통칭해서 그러시냐고.

○고민정 위원 지금 그러면…… 저도 의심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바인데 그게 마치 아닌 것처럼, 우리가 부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그 문제 제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힘이 계속 이것을 물고 늘어지면 질수록 오히려 계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조정훈 위원 그것은 민주당이 우리한테 할 충고가 아니에요, 이 청문회 자리에서는.

○고민정 위원 그래서 사실은 교육위 인사청문회가 앞으로 교육과 관련된 정책질의들이 오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북한 문제 나오지, 국민의힘에서 계속 천안함 문제 얘기하시지.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듣기 위한 질의를 한 것뿐이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조정훈 위원 그게 이념 질의라고 생각하셨어요, 천안함이?

○고민정 위원 그래서 이념 질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조금 그런 내용들은 빼고 하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여태까지 이념 질의 다 해 놓고서 저희한테는 이걸 하지 말아라, 계엄 얘기 하지 마라. 이게 됩니까?

○정성국 위원 질의는 저희 자유지요.

○위원장 김영호 정리하시지요.

○고민정 위원 교육부장관후보자 앞에서 참 민망스러운 일인데 앞으로 교육정책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더 많이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민의힘에서도 정책질의 많이 준비하셨다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검증을 하시다 보니까 이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방향이 이제 정책질의로 좀 전환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너무 잘해 오셨거든요. 잘해 오셨으니까 4시까지 정회했다가 속개하면 오전의 질의에서 보여 주셨던 모범적인 우리 상임위의 모습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준비되셨지요?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 PPT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는 민주평통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에서 통일교육 하는 데 가장 힘든 게 동료 교사가 벽이다. 그리고 그 교사는 체득된 반공을 기초로 한 체제 우월의 전제 속에서 분단체제를 칭송하는 다수의 교사들이다’.

우리나라 체제가 우월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비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우월합니다.

○서지영 위원 그런데 왜 체제 우월의 전제 속에서 반공을 기초로 생각하는 교사가 통일교육의 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2006년도면 거의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명확하게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서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때 얘기하셨던 거랑 생각이 다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그러니까 동료 교사들이 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서지영 위원 2006년도에는 반공의식을 가지고 체제 우월적 사고를 하는 동료 교사가 통일교육의 벽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다르시다는 얘기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서지영 위원 후보자께서는 오늘 하루 종일 ‘과거의 생각이 잘못된 것 같다, 반성한다, 사과한다, 후회한다’. 그렇게 인생 전체가 반성과 후회와 사과로 점철돼 있다면 대한민국의 교육부 수장이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그 반성과 후회와 사과를 가지고 고해성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지요.

후보자께서는 전교조 통일위원장을 역임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서지영 위원 전교조 통일위원장을 역임했던 자료는 없으시더라고요, 이력에.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과거의 자료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전교조 통일위원장을 역임하실 때 전교조 통일위원회에서는 반전평화 공동수업이라는 것을 하시면서 여러 교재들을 당시에 홈페이지에 게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퀴즈를 냈지요. ‘이라크 전쟁 퀴즈, 부시 대통령이 공식으로 내세우는 이라크 전쟁 이유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면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이라크 침공의 진짜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후보자, 한번 답을 말씀해 보시지요. 후보자가 통일위원장 시절에 전교조 통일위원회에서 만들었던 교육자료입니다. 몇 번이 정답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처음 보는 문제인데요. 제가 2003년 2월에 해직이 되고……

○서지영 위원 한번 풀어 보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자랑스럽게 전교조 통일위원장에 재직하실 때 당시 전교조 통일위원회에서 만들었던 반전평화 공동수업입니다. ‘이라크 침공의 진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석유가 탐나서, 유럽이 단합해서 미국과 대등한 관계 요구할까 봐, 반미 확산을 위해, 첨단무기 팔려고, 후세인을 없애고 지구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해당하지 않는 게 뭘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모르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정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교조가 인정한 정답은 5번, 후세인을 없애고 지구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가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반미 의식을 고취시키는 반미 의식을 위한 교육자료지요. 그것을 본인이 통일위원장 시절에 통일위원회에서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후보자가 이러한 의식과 사상을 가지고 전교조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교육부 수장이 되어서 이런 식의 통일교육을 하실까 봐 굉장히 걱정됩니다.

심지어 당시에 이러한 전교조의 활동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우려하셨습니다. 당시에 크게 보도가 됐었지요. ‘국가가 해야 할 중등교육의 가치관 교육을 전교조가 대신하려 하거나 국가 사이의 우호동맹 관계를 집단적으로 획일화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대통령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지영 위원 또 반성과 후회와 사과로 점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왜 계실까요?

전교조 통일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넘겨 주시지요.

후보자가 2003년 통일위원장을 하시고 후보자의 후배들이 쭉 이어서 통일위원회를 이끌어 가셨을 겁니다. 2005년, 전교조는 북한 역사서를 바탕으로 교육자료를 제작·사용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2006년,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학생들을 인솔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역시 대법원 유죄 확정입니다. 새시대교육운동 결성 사건, 청소년 통일캠프, 각종 행사에서 반미, 주체사상을 전파해서 대법원 유죄 확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시기에 새시대교육운동 결성 사건을 이끌었던 사람을 후보자는 나중에 세종시교육청에 초대해서 학부모 특강까지 시키고 후보자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자리에 참석하셨지요. 그리고 그 후배를 굉장히 칭찬하시고 칭송하셨습니다, 참교육을 행한 동지라고.

저는 후보자가 활동했던 전교조 활동, 특히 전교조 통일위원회는 친북·반미 사상을 고취시키는 핵심 코어 위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후보자가 몸담았던 전교조에

서 활동했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학생들에게 교사들에게 반미·친북 사상을 소위 통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고취시키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후보자는 후보자직에서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답변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제가 2003년에 해직되고 잠깐 통일위원장을 한 일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중간에 그만뒀고 그 이후의 통일위원회의 많은 활동은 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세종교육청에 오고 나서 초청강연을 왔었던 한 선생님은 그때 하고는 상관없이 중학교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다스리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시고 그것을 책으로 내서 그 책이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한테 공감을 얻어서 그 선생님을 초청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뜻에 의해서 강연을 한번 다녀가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지영 위원 위원장님, 저에게 1분만 추가로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1분은 덜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이것 질의하지 말고 그냥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서지영 위원 이걸로 의사진행발언해도 될까요? 1분을 쓴다고요.

○고민정 위원 그러면 3분을 안 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이따가?

○위원장 김영호 어떻게요?

○서지영 위원 이따가 1분을 안 쓰겠습니다. 1분만 추가로……

○위원장 김영호 1분이요?

○문정복 위원 그러면 저 이따가 5분 발언 때 죽 안 쓸 테니까 15분 더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영호 아이, 그러지 말고요. 하여튼 1분……

○조정훈 위원 1분 더 달라고 하는데……

○문정복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발언할 것 있으면 이따 다음 자기 발언시간에 하면 돼요.

○위원장 김영호 서지영 위원님, 이따가 3분 때 발언을 하시는 건 어떻겠어요?

○서지영 위원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죄송합니다, 이게 룰이 또 적용되면 그래서.

감사합니다, 서지영 위원님.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승아 위원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말씀 더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지금 추경호 의원이 특검에서 압수수색 받고 있습니다. 이제 내란 계엄해제 방해한 것 수사하면 어떤 일로 누가 방해한 건지 다 나올 겁니다. 계엄해제 안 됐으면 여기 있는 민주당 위원들 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민전 위원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란인지 아닌지는 아직 재판 중이

다, 안 나왔다고 하셨어요. 그런 발언 한 자체가 이미 국힘이 내란 옹호당이라는 증거입니다.

○**김민전 위원** 재판 중입니다.

○**백승아 위원** 탄핵이 됐잖아요.

○**김민전 위원** 재판 중이에요.

○**백승아 위원** 그리고 탄핵 반대했던 장동혁 의원이 당대표 됐지요. ‘윤 어게인’ 외친 사람이 당대표 됐습니다. 탄핵 반대했던 자들이 국힘의 지도부가 되었어요.

○**조정훈 위원** 청문회에서 지금 무슨 논평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청문회와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셔야지……

○**고민정 위원** 이제 질문 들어가겠지.

○**백승아 위원** 영원한 독재를 꿈꾸던 윤석열·김건희, 내란까지 일으켰습니다. 왜? 독재 계속하고 싶어서.

그런데 친일파들이 하던 게 바로, 독립군 때려잡으려고 하던 게 종북·빨갱이로 몰아간 것이었고요. 독재자들이 하던 것들이 민주화운동하던 사람들 종북·빨갱이·간첩이라고 몰아간 것이었습니다. 지금 계속 민주화운동했던 최고진 후보자를 빨갱이로 종북 몰이를 하시는데 그러면 국힘이 이렇게 친일·독재의 후예라는 걸 자인하는 셈입니다. 이제 그만 하십시오. 계속하면 할수록, 이념적으로 계속 몰아갈수록 국힘한테 안 좋습니다. 수렁 속으로 빠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진 후보자님, 민주화운동하셨던 것, 전교조 활동으로 교육 현장 살리려고 하셨던 것 저는 너무 존경스럽고, 당당하게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침울하게 앉아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속이 상해요. 더 당당하게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백승아 위원** 정책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교사로서 20년 이상 재직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교사들의 어려움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 선생님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행사를 여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불법집회다 징계하겠다고 이렇게까지 했을 때 후보자께서는 교사들에게 공감하는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SNS에 ‘선생님들의 외침은 잘 가르치고 싶다는 다짐이다’ 이런 제목의 글을 올리셨어요. 당시에 이런 글을 올렸던 취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선생님들이 서이초 사건에 충격을 받고 조직적으로라기보다는 개인으로, 점으로 참석하신다 그러면서 30만이 넘는 선생님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 여의도에 모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배 교사로 그리고 교육감으로 그걸 지켜 드리지 못한 것, 어떻게 보면 교육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선생님들을 지키는 일인데 그걸 하지 못한 것에 통렬하게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 집회에 저도 한 번 참석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십구재 되는 추도의 날 행사를 9월 4일 한다고 할 때 그것을 가지 못하게 하

려고 할 때, 실제로 선생님들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려는 분들도 계시고 두려움에 못 가는 분이 계시고 하면 교단 자체가 이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동체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날 재량휴업일로 해서라도 뜻을 하나로 모아 주면 좋겠다라는 권유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승아 위원 예, 지금 시간이 짧아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SNS에 적어 두셨듯이 추모행사는 잘 가르치고 싶은 선생님들의 열망일 뿐만 아니라 학습권이 제대로 지켜지기를 바랐던 학생들과 학부모님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행사에 대해서 학부모·학생 지지 선언도 많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96%가 교사 징계가, 학생·학부모님의 의견이에요, 교사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생님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불법시위로 몰아세운 건 윤석열 정부의 분명한 실책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교육감으로 계시는 동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지금 말씀 나셨던 서이초 사건 이후에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할 때 저는 이것이 교사들만의 일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 주체 전체가 진보·보수를 떠나서 같이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하는 조례를 만들자 그래서 주민발의 조례를 세종에서 처음으로, 좀 늦더라도 만들 수 있게 해서 지금도 선생님들의 교권 또 그러면서 동시에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들이 어떻게 한 데 어우러질 것인가를 중심으로 같이 협의해 나가는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런데도 매해 4000에서 5000건가량의 교육활동 침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서도 선생님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민원처리 지원 강화법, 현장체험학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법들을 통과시켰지만 이행계획이 아직 실행되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계속 불안에 떨고 계시는데요.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교육 현장의 시급한 과제인 교육활동 보호 강화에 대해서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학교에 민원이 생겼을 때 교사 개인이 절대로 담당하지 않고 학교 민원 대응체제를 갖추어서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리고 민원인과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제도적으로 분쟁조정을 하기 위한 제도 마련,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원하시면 해 드릴 수 있는 법률상담이라든가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실 때 정신치료 강화 이런 일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과 학부모 사이에 일원화된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일도 제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사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교육이 망가진다고 하는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내

기 위한 문화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승아 위원 장관이 되신다면 꼭 말씀하신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감사합니다.

○백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 후보자님 오전에 발언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PPT 화면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좀 굉장히 심각해요. 뭐냐하면, 지금 제가 자료를 딱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 2020년이네요. 그렇지요? 2020년 8월 17일이니까 교육감 재직 시절이시지요. ‘공감하며 공유합니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정도가 아니고 공감을 표하셨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이런 것을 올린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넘겨 주세요.

오전에 어떤 질의가 있었느냐 하면요. 여기 자세한 것 다 읽어 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을 때 제일 문제는 ‘한국이 사회주의 모범국가가 됐을 것이라는 주장에 동조한 적 있지요?’ 저는 이래 물었습니다. 후보자님이 그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저는 표현을 ‘동조한 적 있지요?’ 했었는데 ‘없습니다’ 하셨고요. 나중에 화면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자, 분명히 없다고 하셨습니다.

후보자님,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한 20년 전의 이야기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감 재직 시절이고 불과 한 5년 정도 전의 일인데 이 정도의 글, 이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파생의 글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중북좌파 이런 것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사회주의 모범국가가 되었을 것이라는 데 대해서 공감한다는 표현을 한 부분은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제가 실제로 위원님께서 저 대목, 사회주의 국가의 모범이 되었을 것이라라는 말을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한 일이 있냐고 잘못 들었습니다.

○정성국 위원 동조한 적 있냐고 물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동조한’ 이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가라고 제가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기억이 없어서 아니라고 했었는데요, 잘못 들었습니다.

○정성국 위원 화면 보시면 알지만 제가 아까 동조한 적 있냐는 것을 굉장히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면 알겠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제가 많이 당황한 상태여서 잘못 듣고 그렇게 말

씀드렸습니다.

○정성국 위원 결론은 이 자체는,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위증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사님하고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청문회는 엄중합니다. 국민 모두가 보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서로 간의 그런 의견의 차이나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정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 자랑스러운 세계 10대 강국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회주의 모범국가가 될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 공감한다는 부분은요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1명도 인정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간사님들께 이 부분은 위증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님, 외부장의 신고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시 세우는 공교육’ 해 가지고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하고 같이 행사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정성국 위원 이 행사를 주최한 기관이 어디냐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보이시지요? 빨간색 한번 보세요. ‘전주교육대학교 산하’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정성국 위원 전주교육대학교 산하 전북미래교육연구소가 공동주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전주교대에 확인해 보니까 전북미래교육연구소가 전주교대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면요 후보자께서 교육감 시절의 외부장의 신고가 허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확인을 해 봤어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전주교대 산하가 아닌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이 기관을 적고 출장을 가고 강의를 갔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저의 추측이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천호성 교수가 전북교육감 후보로 나간 적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서거석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아마 2026년 선거에 나온다는 말들이 지금 꽤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요, 저는 이렇게 합리적 추론을 합니다. 천호성 교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고는 이것을 굳이 이렇게 전북교대 산하 연구소라고 허위신고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강연료도 55만 원을 수령하셨거든요. 아니, 이것 왜 이렇게 전주교대 산하 연구소라고 허위신고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그쪽에서 초대를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그냥 믿었습니다. 그것을 의심할 일이 없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성국 위원 교육감님, 교육감이 출장 가고 외부장의 가는데 이 기관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신고서를 내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포스터에 그렇게 되어 있고 초청인이 초청할 때 그렇게 해서 보내 준 공문을 믿고 갔을 것 같은데요.

○정성국 위원 이 부분은요 그래 되면 어찌 되냐 하면, 이것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분명히 잘못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제가 나중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위원님 잠깐만……

○위원장 김영호 예.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아까 말씀하셔서, 답변을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실제로 문제 된 아까 글 중에서 한 부분을 따서 저에게 ‘동조한 적 있지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정신이 없고 좀 당황한 상태여서 그랬는지 그냥 그렇게 발언, 그러니까 이야기한 적 있는 것으로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글을 보여 주시니까, 그래도 저런 글이 있었나 싶은 거고요.

SNS에서 더러 어떤 일이 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쪽 전체를 다 읽고 그러기보다는 ‘해방전후사 이야기를 이렇게 보는 수도 있겠구나’ 이런 취지에서 너무 가볍게 동의를 했던 것 같은데 잘못 들어서 그랬다는 말씀과 함께 신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랬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성국 위원 대한민국의 교육감이라는 분이 그렇게 쉽게 페이스북에 공감하고 공유한다는 글을 올릴 수 있나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저도 아까 ‘애초 이 나라는 해방정국의 현실을 그대로 두었다면 사회주의 국가의 모범이 되었을 것이다’ 이 문장을 보면서 전문을 한번 읽어 봤어요. 전문을 보니까 아마 진보 학자의 민족주의적 입장의 어떤 주장이었는데 여기 밑에 부연설명이 있는 것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모범이 되었을 것이다. 이 시기 이 나라의 민중은 민중이 주인이 되어 정치와 사회를 주도하는 것을 사회주의라고 여겼다’라는 부연설명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전문에 있었던 ‘이 나라는 해방정국의 현실을 그대로 두었다면 사회주의 국가적 모범이 되었을 것이다’가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빗대서 한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민중이 생각했던 사회주의는 민중이 주인이 되어 정치와 사회를 주도하는 것을 사회주의로 여겼다는 시대적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여야 위원님들 한번 전문을 읽어 보시고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 전문을 읽어 보니까 이 의도가, 이 문장을 잘라서 얘기하면 상당히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전문을 읽어 보면 좀 이해되는 부분도 저는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제가 책상 위에 올려 드렸으니까요.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을호 위원 후보자님, 지금 전교조 출신이라는 이유로 야당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어느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보수 성향 교원단체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진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전교조 출신 선생님이라든가 그 능력으로 교육부장관후보자 오신 것 아니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정을호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교육부장관후보자는 능력과 현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받고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아 왔던 전교조 출신 교육감 중에 울산교육감 고 그 선생님 계시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노옥희 선생님.

○정을호 위원 그 선생님을 제가 저번에 글로 봤는데 그분의 업적이 훌륭하시더라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어느 출신…… 그러면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수 성향 교원노조 출신의 교육부장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 주시면.

그런 것처럼 여기 나온 모든 위원님들 말을 잘 새겨들어서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게 다만 말해 주신 대로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부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명심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후보자님,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친일 뉴라이트 역사 기관장들의 그동안의 망언 잘 알고 계시지요? 예시로 말하자면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2023년도 한국인이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 이런 망언을 한 적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지요, 당연히?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정을호 위원 그리고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일본이 쌀을 수탈한 게 아니라 쌀을 수출한 것이다’, 일본 측 입장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이런 말에 당연히 동의 안 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정을호 위원 더 나아가 박지향 이사장은, 현재입니다. 8월 4일, 5일 8·15 광복 80주년 기념 동북아역사재단과 서울대가 공동주최한 학술회에서 균형적이고 검증된, 지속적으로 국회 교육위에서 역사왜곡 문제점 지적을 계속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승만의 공만 치하하는 그런 역사왜곡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직접 그걸 제가 보지 않아서 그런데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렇지요. 이와 같이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뉴라이트 역사 기관장들이 국민의 정서와 상식, 역사관을 거스른 채 현재 기관장으로 알박기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이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맞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과연 이재명 정부와 같이 합을 맞춰서 국민주권정부에 맞는 역사교육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참담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들이 자리를 끝까지 버티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국민의 역사관을 친일 뉴라이트식 역사관으로 왜곡 주입하려는 자신들의 소명을 완수하려는 그런 자기만의 소명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명권자조차 쉽게 해임할 수 없는 부실한 면직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화면을 보시면 현재 세 기관 모두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현재 기관장과 임원 임명할 때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보급법을 적용하고 한중연과 동북아역사재단은 정관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법과 정관에도 별도의 기관장 면직 규정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고요.

이런 제도적 공백, 후보자께서 장관님이 되시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혹시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을호 위원 이런 역사 기관장들과 함께 장관직을 수행하는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서라도 교육부장관 임명되시면 이들 기관장들 역사왜곡 행태 꼼꼼히 살펴보고 국민 상식과 역사관에 맞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제가 갑자기 들었던 생각은 아마 야당 위원님들께서 후보님에 대한 사상이 좀 좌편향적으로 치우쳐졌다고 우려하시는데요. 우리 국회 상임위가, 만약에 그렇게 좌편향적으로 치우쳤다 해도 여당 위원님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사실을 근거로 해서 교육을 해야지 한쪽에 편향됐든지 너무 일방적인 교육이 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교육에 미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든 야든 우리가 너무 우편향 좌편향, 요즘에 이런 이념적인 갈등들이 많은데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만은 우리 교육이 한쪽 이념으로 편향되고 일방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여야 위원님들께서 중심을 잡아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하니까요.

후보님은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위원장 김영호 세종시에서도 좋은 사례를 남겨 주신 걸로 알기 때문에, 하여튼 후보님에 대한 질의를 이어 가는데요.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교육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는 발언, 특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문정복 위원 장관후보자님,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엄청난 경제 낙제점으로 인해서 세수가 엄청나게 덜 걷혔어요. 그 직격탄을 맞은 곳이 바로 교육부지요. 그러니까 교육예산이지요.

지금 연속된 세수결손과 그다음에 2024년 12월부로 국고 지원이 종료된, 고교무상교육

이 축소된 가운데 사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부금 제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 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시면서 중장기 개편 논의의 기본원칙을 어떻게 가져가실지 궁금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는데 실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거의 모든 교육감들의 의견은 2022년도에 미뤘던 세금을 받았던, 잠시 반짝했던 것을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그것으로 겨우 2023년 24년을 지내 왔을 뿐 이후로 실제로 AI 인재 양성이라든가 그런 교육재정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우려를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곧 고등교육 재정도 매우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국회 교육위원님들께서 나서 주셔서라도, 교육계가 다 함께 나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적어도 지금 수준으로라도 유지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특별하게 별도로 확보하는 노력을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정복 위원 윤석열 정부가 2025년도 고교무상교육 9800억 원을 확보하지 않는 바람에 실제로 일선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적립해 왔던 기금을 빼서 쓸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고갈 상태에 들어간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그랬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 차관께 말씀드렸지만 교부금 괴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위원은 교부금이 남는다고 하고 어느 위원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는 학생 일인당 교육비가 얼마 정도 되냐면 대략 53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종은 일인당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

○문정복 위원 갑자기 여쭙봐서, 대략 520만 원 정도입니다. 경기도보다도 낮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전라남도는 얼마냐면 일인당 927만 원이고 경상북도는 일인당 987만 원이에요.

이게 일률적으로 학생 수와 관련해서, 학생 수 이런 걸로만 따질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권이 상대적으로 교육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실제로 학생이 숫자가 적어도 학교 학급 수를 줄이거나 선생님 수를 줄일 수 없는 데서 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도 단위에서는 학생 일인당 교육비가 많이 소비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계 자체가 가지는 함정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경직성경비는 지속적으로 또 일정한 비율로 끝없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새롭게 필요한, 올해 우리가 2025년도 새 정부 들어서 국정 기조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 오던 유보통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든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정복 위원 후보자님, 그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것이 일단 학급 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일반 교부금 배분 기준을 다시 재정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특히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교육을 걱정하시는 국회 교육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오히려 저희도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에서는 어쨌든 위원님들 모시고 제대로 된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약에 제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후보님,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지요? 시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진선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교육감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우려나 또 문제점 지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듣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시겠지만 2017년부터 방향을 정하고 도입 일정을 제시하면서, 그때부터라고 쳐도 거의 한 칠팔 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 되고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저는 이게 쪽 준비해서 또 선도학교 선정해서 선도학교에서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서 실무적인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딱 시기가 이 3년을, 저희 AI 디지털교과서니 이런 것들하고 의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방치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올해 시행이 되니까 4월 달에 다른 교원단체나 여러 분들과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함께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얘기들도 좀 들어 보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단적인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적인 예로 NEIS라는 체제 자체가, 시스템을 실무적으로 최소한 교사, 선생님들에게 부담이 덜 갈 수 있게 미리미리 다 조정했어야 하는데 애초에 NEIS라는 시스템 자체가 학급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개인으로 뭔가를 정리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사, 선생님들이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출결 체크를 하고 있다는데 그것 듣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진선미 위원 이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취지는 너무 좋은데 지금 계속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불과 시행한 지 몇 개월 안 돼서 이제 2학기인데 폐지론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실제로 이 고교학점제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준비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들은 보다 철저하게 단계적으로 잘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막상 올해 첫째 시행을 하고 보니까 현장 선생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비판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교육부에서도 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고교학점제 이것이 취소하거나 할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보고 현장의 비판을 정책 혁신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교학점제 현황에서 제일 큰 문제는 고교학점제와 딱 걸맞지 않은 대학입시제도와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데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선생님들 숫자를, 교원 증원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큼니다. 장기적으로 해결할 건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NEIS 미비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지금 당장이라도 교육부에서 논의해서 고쳐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다면 제일 먼저 현장의 의견을 들으면서 우선 현재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모아서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현장 선생님들께 드리고 국민들께 보고드리고 장기적으로 꼭 해야 할 일들에 관해서는, 교원 증원 문제는 행안부와도 협의하고 입시제도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와도 협의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는데요.

저는 이게 문제일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2028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2023년에 확정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진선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화롭게 바꾸는 것을 할 수 있나요, 이미 정해진 건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28년 대입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2028년 대입과 상관없이 지금 현재부터 서둘러서 논의를 하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하게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기회에 2032년 대입제도를 보다 완벽하게 만들어 가는 노력을 그야말로 전체가 같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답변 중에는 교사, 선생님에 대한 걱정을 말씀하셨지 학부모나 학생들의 대혼란 또 그 고통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시간이 짧아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제가 혹시, 이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많은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도 있잖아요. 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고교학점제를 처음 시행하게 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이 학생들의 학부모님들께서 오히려 가장 혼란스럽기도 하고 가장 힘들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그래서 적어도 우리 학생들이 시험도구가 되지 아

니하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와 교육부를 믿고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완할 것이고 학부모님들께서 온전히 만족하지는 못해도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 성장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만약에 오늘 청문회 통과하시면 고교학점제 문제를 현장에 가서 빨리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학생들 이야기 경청하셔서 부족한 정책에 대해서는 보완해 주시지요.

특히 제가 보니까 학생들이 시행 초기 단계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이해력도 부족한 데다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에 대한 컨설팅 이런 부분을 학생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질의는 이재명 정부 고등교육정책 방향성에 관한 것입니다.

교육부장관후보자를 지명할 때 유초중등 교육의 전문성 그리고 고등교육 전문성을 모두 다 겸비한 전문가가 없나, 아마 그런 것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최교진 후보자님은 고등교육에 대한 전문성 우려가 있기는 하지요. 왜냐하면 초중등 전문가였고, 지금은 인재 양성이라는 것이 국가의 명운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대한 우려 어떻게 보완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실제로 고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 저 스스로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적어도 초중고 교육에서의 교육혁신을 실제로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고등교육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고등교육의 전문가들, 특히 교수님들과의 대화 그다음에 학생대표들과의 대화 그리고 대학총장님들이나 대학교육협의회를 비롯한 분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당연히 그러셔야 합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료들과 함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고등교육 파트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잘 이끌어 주십시오. 이미 고등교육 분야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보시면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에서 ‘인재’라는 용어를 가진 것을 다 뽑아 봤거든요.

직관적으로 보시면 과학기술인재 양성은 과기부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인재라든지 디지털시대 인재는 교육부에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이렇게 여러 부처가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것이어서 어떻게 거버넌스를 잘 구축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나라 인재를 제대로 양성해 낼 것인가, 인재 강국을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가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당한 거

대 과제예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후보님, ‘의대에 미친 한국, 공대에 미친 중국’이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를 보시거나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강경숙 위원 있으시지요. 제목에서 되게 극단적으로 나타난 거기는 하지만 전 세계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 패권전쟁에 이미 뛰어들고 있는 것이예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인재 양성 역시 사활을 건 전쟁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 이제까지 후보자께서 경험하신 초중등의 그런 어떤 토양, 생태계와는 조금 다른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치열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처럼 전일적이고 굉장히 집중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부처에서 고등교육 인재 양성을 도모하는 시스템들이 막 여기저기 사방팔방 흩어져 있는 것으로는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잘 담당하셔야 하겠는데 과학기술인재의 집중 육성을 위해서 교육부의 과제는 어떤 것이고 이재명 정부의 인재 육성 거버넌스 방향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3대 AI 강국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인재 양성과 인재 유출을 막는 일과 인재를 가능하다면 모셔오는 일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대통령 산하에 국가인재위원회를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속에 지금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과학기술 인재도 함께 포괄해서 그야말로 교육부가 주관하지만 전체 부서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셔야 합니다. 사실상 인재 양성 그러면 굉장히 범부처 과제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체 정도로 어떻게 잘 덤벼 보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했다가는 사실 말잔치로 끝나 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거든요. 이제부터는 굉장히 치열한 인재 전쟁에 교육부장관후보자님도 끼어드신 것이고 거기서 우리나라의 사활을 움켜쥐어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가셔야 하는데 이게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긴장해서……

○강경숙 위원 그런데 사회부총리를 다른 부처로 옮기게 되면 국무총리가 직접 인재 양성 정책의 책임을 지고 가야 하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인재 양성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부총리도 어떤 면에서는 내려놓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인재 양성을 국가 차원에서 교육부장관으로서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그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을 따르면서 그 속에서 교육부가 맡아야 될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이 교육부에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 인재,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세계와의 싸움에서 앞장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교육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보다 한 발 더 적극적으로 거버넌스를 만들기도 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일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식 위원 후보자님, 저는 과거 현재 미래 얘기를 하면 ‘미래’라는 단어를 굉장히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으면 인사는 당연히, 정무직 인사는 정권 잡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나는 교육감도 인사를 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교육부장관은 뭔가 모르게, 공정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김대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학생들 잘 가르치려면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김대식 위원 그런데 해밀초등학교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김대식 위원 해밀초등학교의 2020년도 교장공모제, 여기는 제가 제안을 받은 겁니다. 제보를 받은 겁니다. 33년 근속 교장후보를 제치고 15년밖에 안 된 전교조 출신의 평교사를 교장으로 발탁을 했어요. 그것 어떤 이유로 그랬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공모 절차에 따라서 교육공동체가 결정을 했는데요. 실제로 세종에 유일하게 딱 한 학교 있는 내부형 공모제 교장선생님이 바로 그 해밀초 교장이었는데요 이 해밀초가 그야말로 세종 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모위원회 절차에서 교육공동체가 정말 바른 선택을 했다고 지금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저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그렇게 과감하게 혁신을 한 것도 하나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초등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경험과 경륜,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교조 출신의 교사라는 그게 영향을 미쳤다고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교조 출신하고는 정말 상관없이 해밀초등학교가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만들고 있는데, 1400명이 넘는 굉장히 거대 학교가 됐는데요. 그 학교가 이제는 5년 차입니다만 그 교장선생님이 운영했었던 4년 동안 구체적으로 학폭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을 정도로 학교가, 교육공동체가 함께 잘하고 있고요. 실제로 해밀교육마을로 알려질 정도로 교육부에서도 세종 교육 혹은 대한민국 교육을 자랑하고 싶을 때 해밀교육마을에 직접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 과거에 어떤 활동을 했든 간에 그것은 과거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여러 부처가 있지만 1년 예산을 100조 이상 쓰는

부처가 2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인데 이 전체적인 예산과 그리고 수많은 공직자들, 공무원들 인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기용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연수만 계속 계산하고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편파적이 없이 정정당당하게 누가 봐도 보편타당한 인사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교조 교사 출신이 발탁이 되고 편향적으로 인사했다라는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이 과연 교육부장관 돼서도 그런 전교조 쏠림현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결코 전교조 출신이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떤 전개가 되더라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준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의 그것을 과거의 잣대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 입장에서의 발언과 공직자 입장에서의 발언은 확연하게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을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위원님 말씀 우려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우려를 하시지 않아도 될 수 있게 신경을 더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단순히 경력만 보기보다는 실제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창의력, 그야말로 미래 지향적인 사고 이런 것들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사를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걸어온 길을 보면 그런 우려를 씻을 수가 없다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그런 우려가 없도록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호** 김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아까 천안함 관련해서 간단하게 다시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젊은 군인들 46명이 북한에 의해서 무방비 상태로 아무 대응도 못 하고 그때 엄청 물살을 당하고 죽었는데 그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도 그렇고 국방부장관, 당시에 해군을 지휘했던 어느 누구도 그것이 잘못됐다, 그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색깔론 뒤집어씌워서 이것을 야당이나 국민들을 욕하는 데 온 에너지를 쏟아 가지고 정작 국방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데는 소홀히 한 것이, 아직까지도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최교진 후보님, 교육감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개인주택으로 이사를 가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김문수 위원 그러면 관사는 어떤 용도로 썼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관사가, 처음에 갔을 때 초대 교육감이 있었는데요. 저는 세종시 내 좁은 곳에서 굳이 관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마침 당시 조치원여고 테니스부 아이들의 합숙소가 매우 불비해서 그 관사 예산으로 조치원여고 테니스부 학생들의 합숙소를 바꾸어 준 일이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개인을 위해서는 관사 쓰고, 내 비용이 별도로 안 들어가도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된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기부를 5년간 약 한 8000만 원 넘게 하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기부를 많이 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

○김문수 위원 너무 기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하여간 뭐 기부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글로벌 대학 지금 20개 선정해서 열한 군데가, 지역이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영남 지역에만 그냥 지난 정권 때 글로벌 대학을 이렇게 많이 또 대학교 수로는 31개 중에서 18개가 글로벌 대학이 파란색, 영남지역에 편중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한번 들여다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또 10개 글로벌 대학이 추가 지정이 될 텐데 지금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편중이나 이런 우려가 있는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일부러 지역을 형식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심하게 균형이 안 맞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너무 의대로 쏠려서 참 질의하기가 죄송스럽긴 한데 그러나 전남같이 소외지역, 의과대가 아예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병원이라든가 상급종합병원이 없어서 대도시로 병원을 옮겨 가다가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또 큰 수술이나 이렇게 하려면 대부분 서울이나 광주의 대도시로 가서, 오히려 지방 분들이 어려운데도 병원 치료하는 데 그런 부대비용들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이런 역전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전남의대 신설 부분도 국정과제까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하여간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어디서든 좋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지역에만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고.

그런데 전남에 의대를 세우는 것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순천과 목포, 두 지역 간의 문제를 어떻게 통합해서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라남도에도 직접적으로 상의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랑 협의해서 최대한 빠르게 전남 지역 주민들이 좋

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국립대 사무국장을 갑자기 대기발령을 시킨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2년 9월에 국립대 사무국장 10명을 갑자기 대기발령을 시켜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22년 10월 24일 4명 또 23년 7월 1일 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이분들은 국립대 사무국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대기발령시켜 가지고 제임과 같은 이런 폭탄을 맞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제할 건지, 어떻게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그 문제에 관해서 국립대총장협의회에서 일정하게 의견을 주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 선택을 국립대 총장들께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특정한 어느 직종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시라고 들었고요. 저는 그것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호**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님, 글로컬 대학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점검 좀 해 보셨나요? 아직 깊게 살펴보는 못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글로컬 대학이 한 번 지정이 되면 5년 안에 1000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그 예산집행이 잘 안 된다는 평가가 지금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청문회 잘 하시고 나서 혹시 청문회가 통과되시면, 글로컬 정책에 대해서는 한번 국회 차원에서도 정말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지역적인 불만의 목소리도 많고 그래서요. 또 아마 이번 국정감사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글로컬 대학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실 것 같은데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필요하면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김민전입니다.

앞에서 2019년에 있었던 고교 신입생 배정 오류 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못 드렸기 때문에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교육감이 ‘기다려라’ ‘기다려 달라니까’라고 반말로 하시는 장면이 뉴스에까지 나왔는데요. 저는 이때 교육감께서 학생들을 세 번 울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원하는 곳에 배정을 시켰다가 두 번째, 오류라고 하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배정을 했어요. 그러자 학생들이 반발하자 다시 ‘아니, 원하는 곳으로 옮겨 줄게’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기 ‘기다려라’ 이 얘기가 ‘옮겨 줄게’ 이때 나온 얘기이지요, 항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런데 세 번째는 결국은 원하는 학교로 옮겨 주지 않고 없었던 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학생들이 반발해서 소송을 하자 교육청도 맞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 소송에서 학생들이 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지고 나자 결국 학생들에게 소송비용을 토해 내라, 부담해라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돈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자세히 보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보시면, 세종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보면 24조(소송비용 회수)에서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일일이 돈을 받아 냈다,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것은 이념 논쟁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자로서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그때 아마 소송을 학생 이름으로 하지 않고 학부모임 이름으로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김민전 위원** 아닙니다. 학생 이름입니다. 제가 그 결과 가지고 있고요. 학생 이름이든 학부모임 이름이든 결과적으로 세종시교육청이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생 탓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후보님이 행정가로서 정말 걱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편은 다 괜찮아’, 우리 편 편애주의 이것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박재동 씨가 성추행 의혹으로 만화가협회에서 제명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교육청으로 불러서 고액의 강연을 시키면서 소개할 때 ‘존경하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고요. 안희정 도지사에 대해서는, 미투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나오자 ‘사범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조국 교수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습시다만 옷나무 얘기를 했습니다. ‘옷이 드는 사람이 있고 옷이 안 드는 사람이 있다’, 마치 모두가 다 입시 비리를 하는데 조국 교수만 채수 없어서 옷이 들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우리 편 편애주의가 강해 가지고 어떻게 공정무사한 행정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인사에서도 이 부분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생각 합니다. 앞에서 해밀초에 대한 인사 문제 제기가 있었습시다만 그것 이외에도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정기 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고요.

특히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취중 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너 이제 여기로 가, 인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인마’라고 하는 말은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잘 쓰신 단어라고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추행으로 특정 고교에서 인사 발령 받은 사람을 또 특정 중학교로 인사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저렇게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기 주변의 아는 사람들에 대한 강한 편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좋은 행정가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요 75년에 긴급조치 위반 왜 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긴급조치 위반이 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수요문화회 사건, 수요문화회 문학의 밤에 박정희 대통령을 약간 비난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민전 위원** 그 제목이 뭐였어요? 그 문학의 밤에 실려 있는 시의 제목이 뭐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정확하게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고추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전 위원** ‘나는 국기에 대해서 경례하지 않는다’가 제목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그게 제목은 아닙니다. 시를 발표하러 나갔었는데요. 문학의 밤 행사에 나가면서, 그때가 5월 긴급조치 9호가 막 발표된 직후였습니다. 매우 삼엄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했을 뿐 거기 뒤에 걸려 있는 대통령께 경례한 것은 아니다’ 이런 발언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했는데 그것이 어쨌든 그때 당시 상황으로서는 문제가 돼서 학교에서 제적이 되고 바로 강제징집이 되고 구류 29일 살고 조사도 한 보름 받고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김민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호** 질의 마치셨나요?

○**조정훈 위원** 성추행 등등 인사 문제에 대한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고민정 위원** 위원님께서 다 하셨는데 왜 위원님이 또.....

○**조정훈 위원** 답변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답변 듣고 싶지 않으세요, 위원님?

○**위원장 김영호** 김민전 위원님, 다 되셨어요?

○**김민전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김민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 1975년 긴급조치가 당시 과연 정당한 국가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혁 위원** 박정희 유신정권이 과연 정당한 권력 행위였습니까? 아니지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 1960년 4·19교원노조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을 구속시키고 해직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김준혁 위원** 당시 이승만 정권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교사들이 열심히 민주주의를

요구했고 참여했고 그래서 만든 것이 교원노조입니다. 그 교원노조의 희생자가 저희 아버님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서울문리사범대학 나와서 열심히 역사 선생님이로 생활하다가 해직돼서 6년간 아무 일도 하지 못하다가 그러다 복직해서 있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많은 교사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전교조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 교사추진위원회 일명 전추위를 만들었을 때 나이 드신 저희 아버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분들을 차분히 지도하고 안내하다가 몇 달 지나지 못해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요.

당시 전교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유신시대부터 시작됐던 군사정권,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졌던 그 군사정권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참교육을 하기 위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조를 만드신 수많은 선생님들 너무나 고생하셨고 그분들의 역할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합니다. 비난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75년 긴급조치에서 시 낭송을 했다고 감옥에 보내는 일이 그것이 올바른 정권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왜 이 청문회에서 정책질의를 해야 되는데 정책질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교육감님께서 하신 일들이 잘했기 때문에 세종시민들이 무려 3선을 연임하게 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해 왔던 일들, 후보자님이 했던 일들이 잘못된 일이었다고 한다면 후보자를 교육감으로 세 번을 연속해서 당선시켜 준 세종시민들은 모두가 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세종시민들이 과연 좌파입니까? 세종시민 학부모들이 모두가 비정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시민을 우롱하는 잘못된 발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질의들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 짧게나마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만 5세 무상교육·무상보육 지원 예산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김준혁 위원 PT 화면 좀 잠깐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당시 어린이집 부모님들한테는 7만 원을 주고 유치원생 부모님한테는 11만 원, 만 5세 지원에 대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지금 청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청원을 하고 있고요,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내놓은 내용이기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불평등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보통합 전반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사립유치원 얘기입니다. 운영 구조의 차이 때문에 저런 차이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유보통합을 해 나가는 데 살펴봐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세 정부에서 의무교육을 만 5세부터 하고 그다음에 0세부터 교사 일인당 학생 수를 줄여 나

가는 그런 단계적인 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보다 더 학부모님들이 납득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적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2026년에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저는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들은 기존의 다른 공직자들과는 다르기를 무척이나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와 문제 지적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후보자님께 확실하게 그냥 사과를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해 주시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뿐 아니라 저희 당 많은 위원님들이 이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 국민들은 수많은 권력자들이 특히나 이 정치권 안에서 잘못을 하고도 사과하지 않는 경우를 너무나 지긋지긋하게 많이 봤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이태원참사로 정말 억울한 너무나 꽃다운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태원참사에 대해 책임 있는 그 누구도 고개 숙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 모든 잘못입니다 사과하는 것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뇌물 수수 다 의혹이었는데 지금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자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윤석열, 계엄을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법원 출석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매일같이 뉴스에서 봐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사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왜 굳이 이걸 교육부장관후보자에게 여쭙냐면 그걸 다 아이들이 보고 그게 다 교육이라는 겁니다. 보고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왜 그 옛날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해서 만나든 만나지 않든 어느 정도의 환상과 혹은 존경심이 있었냐 하면 법과 제도 혹은 대통령이라는 대단한 권력이 있어도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 가면서 싸우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그런 건 교과서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들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사과하고 그리고 앞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는 걸 해야 아이들도 저걸 보면서 ‘그래, 내가 한번 잘못했으면 영원히 나는 낙오자, 나는 영원히 주홍글씨,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나는 그다음에 무언가를 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보여 주고 싶었고요,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 줄 수 있는 공직자가 바로 교육부장관후보자시기 때문에 무리스럽지만 그런 부탁을 드렸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지금 학교 안에서 학폭도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 어떻냐 하면 사고가 터지면 일단 고발부터 합니다. 왜? 정치권에서 맨날 그러거든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건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혹은 피해자를 찾아가서 서로 얘기를 해서 푸는 게 아니라 변호사부터 찾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현실이고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권한을 교육부장관이 저는 일정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는 대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엄중한 자리에 지금 후보자께서 앉아 계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경쟁 완화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이유가 더 이상의 학

생들이 자살하는 세상은 좀 막고자 하는 절박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최근에는 예고에 다니는 여고생 세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옛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 하셨는데 지금 그 이후로 수십 년이 지났는데요 자살하는 학생들이 더 늘어납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저는 제가 장관이 될 수 있다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건강을 다스리는 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1년 전에 세월호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로 300여 명의 학생이 한꺼번에 죽었을 때 온 국민이 받은 트라우마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매년 그 숫자만큼의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온 국민이 함께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일인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아이들의 표정을 살피고 할 수 있는 여건, 과도한 업무로부터 선생님들을 해방시켜 드려야 되고 또 하나,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나 이걸 버리고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이야기를 들어 주는 문화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단 한 명의 아이도 적어도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생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 우리 선생님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교권 보호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민정 위원 그래서 장관이 되시게 되면 내가 최소한 이 한 아이만큼은 살렸다 하는 정도의 뿌듯함을 갖고 끝내실 수 있게끔 목표를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고민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조정훈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자료제출에 관해서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아직 제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요청한 세종시 감사보고서 제가 분명히 저녁 식사 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고발한다고 했는데, 저를 시험해 보셔도 좋은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희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저희가 여당일 때 개인정보법을 무기 삼아서 제출 못 한다라고 주장한 적 있습니다.

지금 국회증언감정법에서 개인정보법 등을 이유로 회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안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지 마시려면 마시고, 제가 한번 고발하겠습니다. 고발해서 무죄가 나면 앞으로 이제부터는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요구하지 맙시다. 만약에 유죄가 나면 그때부터는 개인정보법 등으

로 회피할 사람, 앞으로 나오지 않겠지요.

저는 이것 끝장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 제가 분명히 이 유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정보를 내지 않으시는 교육부의 행태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질타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녁 식사 전까지 이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어서 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위원장 김영호** 간사님이 요청하신 것은 실명이 지워진 상태로는 지금 제출이 된 거고 거기에 땡땡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실명을 넣어서 보내 달라는 거지요?

○**조정훈 위원** 예, 주지 못하면 제가 열람까지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두 분이 얘기를 아직 안 하셨구나.

○**고민정 위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동의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발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후보님, 오늘 제가 너무 전교조를 비판한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저는 후보자님이 전교조 활동을 시작하셨던 89년 즈음에 고등학교를 다녔던 학생으로서 전교조 선생님들이 했던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했던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사립 고등학교의 비리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서 저도 힘을 보탰던 사람 중의 하나이고요. 또 대학 시절 독재정권·군사정권 비판했다가 여러 가지 불이익당한 것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2025년인 거지요. 그때부터 후보님이 살아온 그 길, 그것이 과연 숭고한 교육자의 길이었는지 그리고 전교조가 그때만큼의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전교조 현황 보시면, 고꾸라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전교조의 회원 숫자가? 저는 전교조로 상징되고 있는 교육 노동운동이 왜 이렇게 정치화됐는지, 그럼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잃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기득권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그 제보는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주장합니다. ‘세종시교육감으로 선출되고 보니 교육청에 자신의 교육철학에 동조하고 구현할 사람이 없어서 전국 각지의 혁신교육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내가 장학사로 임명시켰다’, 워드 바이 워드(word by word)는 아니더라도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전국에서 오셔서 절차를 거쳐서 장학사로 일하게 된 분이 많이 계십니다.

○**조정훈 위원**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사람 같이 옆에 두고 싶은 것 인지 상정이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제가 알던 사람은 아니고요.

○**조정훈 위원** 예, 하여튼 혁신교육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대부분 전교조 인사들인데요. 후보께서 그 과정에서 법을 지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부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PPT 좀 보여 주시지요.

감사결과 처분서, 저희한테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징계·경고를 받으시면서 현장평가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자신이 직접 땡땡땡, 땡땡땡과 함께 현장평가를 하셨어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승진발령을 하는데 승진발령 과정에서 10순위에 있는, 소위 10등에 있는 사람을 2순위로 올렸습니다. ‘정상적으로 작성하였다면 승진임용 배수에서 배제되었을 위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을 장학관으로 승진발령한 사실이 있으며’, 교육부 감사결과보고서입니다. 법을 지킨 거 아니에요.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신 겁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제가 직접 한 일은 아니고 저건 실무적으로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이렇게 비겁하면 안 되지요. 세종시교육감으로 있으면서 세종시교육청에서 일어난 일인데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전반적으로는 제가 책임은 지겠습니다만……

○**조정훈 위원** 이거에 대한 책임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저거에 대해서 실제로 감사 결과로 저 일을 실행했던……

○**조정훈 위원**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그러니까 저런 절차를 일일이 다 교육감에게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한 사람이, 자기네끼리 한 거군요.

그러면 이제 직구 던집니다. 혹시 임전수 세종교육연구원장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우리 교육국장을 했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당시 대구 울진중 국어교사인 임전수 원장을 장학사로 전문직 임용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준 거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제가 특별히 도움을 준 건 없습니다.

○**조정훈 위원** 임전수 채용을 위해서 교육감 측근을 통해서 시험 출제위원을 추천하고 임전수 씨가 출제한 문제 시험에 나왔다는 게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이제 계속 질의합니다.

그러면 송대헌 비서실장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당시 이런 불법을 아는 사람에게 송대헌 비서실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밖으로 알려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진보 교육감 위상 등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사실관계를 떠나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나 하나로 끝내자’라고 말했었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처음 듣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거 만약에 사실이면 정치적책임을 넘어서 법적책임도 지실 만하지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가정하시는 것에 굳이 답변을 드려야 될까 싶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시지요. 세 번의 교육감 하시면서 어떻게 의회 나와서 답변하실지 다 배우셨겠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모습들이 저는 가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안광식 세종교육희망연구소장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퇴직한 우리 직원이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장학관으로 임용할 때 안광식 소장에게 유리하게 지원 자격을 설정했다는 주장, 부정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안광식을 위해서 특별하게 뭘 했다는 거……

○조정훈 위원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그런 일 없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김성근 전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압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정훈 위원 앞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전문직 채용 과정 지적받고 관계자 징계받을 때 김 실장이 수위를 약하게 조정했다는 주장, 부정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전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조정훈 위원 이런 일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 결과보고서가 필요한 겁니다.

○고민정 위원 이런 식으로 질의해서 받으시면 되잖아요.

○조정훈 위원 이것 사실관계를 해야지요. 저 후보가 사실을 얘기하는지 위증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것을 밝힐 공적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후보는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 부정하셨습니다. 저희가 고발을 통해서 감사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실명을 확인한 후에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후보님은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사퇴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2018년 감사 결과에서도 실제로 그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감사 결과보고서 저희한테 주세요, 실명 확인할 테니까.

○고민정 위원 그거를 드렸잖아요. 다 들고 계시잖아.

○조정훈 위원 실명이, 가명이 돼 있다고요.

○고민정 위원 실명만 없을 뿐이지 내용은 다 들어 있잖아요. 마치 보고서를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조정훈 위원 아니, 그 사람이 임전수인지 송대현인지 안광식인지 김성근인지 모르잖아요.

○고민정 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지요.

○조정훈 위원 그걸 왜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 얘기해야지, 그게 문제의 핵심인데.

○고민정 위원 그러면 얘기할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시간 주시면, 저보고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위원장 김영호 고민정 간사님.

○고민정 위원 지금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원본은 통으로 다 왔습니다.

○조정훈 위원 통으로 다 오지 않았습시다. 익명 처리된 뒤에 왔습시다. 통으로 오지 않았습시다.

○고민정 위원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 이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즉 그 사람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다. 이름만 가리고 모든 내용은 다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 지적들을 한 거고요. 이렇게 감사 결과보고서까지 다 제출해 준 적이 있었습니까, 여당에서?

저희가 이 정도까지 협조했으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셔야지, 이게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까라는 얘기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지도 않은, 공직자도 아닌 제삼의 인물의 개인정보를 우리 보고 동의해 오라고 그러면 후보자는 어떻게 동의하고 저희 여당은 어떻게 동의합니까?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고민정 위원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조정훈 위원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한지 아닌지 한번 법의 판단을 받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리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고 개인정보 문제는 상식선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여야 위원님들 다 아시니까요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보충질의를 마쳤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조금 쉴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고민정 위원 그러면 3분만 하고 이제 끝내는 것……

○조정훈 위원 뭘 끝내요. 계속하는 거지.

○위원장 김영호 저녁 시간 때문에.

○고민정 위원 그러니까 저녁 시간 때문에……

○조정훈 위원 저녁 시간까지, 3분 돌고 저녁 해요, 그러면.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두 분이 향후 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십시오.

그래도 청문회 할 때 주로 파행들이 있어서 보충질의 끝나면 6시가 넘는데 교육위원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셔 가지고 파행 없이……

○김대식 위원 오늘 차수 변경합니까?

○위원장 김영호 차수 변경 원하십니까?

○정을호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7분·5분·3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예, 7분·5분·3분.

○정을호 위원 오늘 3분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호 그런 다음에 추가가 또 있지요, 추가.

○정을호 위원 추가질의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서지영 위원 추가질의, 보충질의, 재질의……

○박성준 위원 하세요, 다.

○정성국 위원 할게요. 우리가 야당이잖아, 야당. 우리한테 권한을 줘야지, 그것을.

○박성준 위원 12시까지 다 하세요.

○서지영 위원 퇴청하셔도 됩니다. 저희끼리 해도 돼요.

○박성준 위원 아니, 우리도 계속하고, 계속하시지요.

○김대식 위원 참고 표시가 왜 있겠습니까? ‘단,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음’.

박성준 위원님은 3분 하시고 가실 거지요? 가세요. 퇴청하세요.

○박성준 위원 왜 가요, 제가? 집권 여당이 책임을 다해야지요.

○위원장 김영호 여야 간사님께서…… 추가질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거의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간단히 저녁 식사 하고 다시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첫 번째 순서는 김용태 위원님, 질의시간은 3분입니다.

○김용태 위원 오전에 첫 번째 질의 때 천안함 음모론과 관련해서 사과를 해 주셨었는데 조금 전에 최원일 전 함장께서 SNS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말씀들이 있으시지만 일단은 후보자님께 하시는 말씀은 네 번째 문단입니다. ‘후보자는 상처입은 분이 계시다면과 토론해 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공유했다 등의 불특정인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하며 유채이탈 화법과 언어도단으로 오늘날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천안함 음모론 동조와 관련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아까 했잖아요.

○김용태 위원 다시 한번만 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김용태 위원 얼마나 더 한다라는 게 아니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어쨌든 제가 SNS에 올린 일로 상처를 받은 분이 계시다면……

○김용태 위원 ‘계시다면’이라는 표현은 쓰지 말아 달라고 하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상처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태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도 옹호했던 글에 대해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이 20·30세대는 극우화됐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대 대학생들 극우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김용태 위원 저는 사회부총리가 되실지 안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되신다고 한다면 이런 사회통합에 저해되는 발언들, 저는 정말 후보자께서 또 세대 갈라치기 이런 것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정책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세종교육감 하실 때 사교육 걱정 없는 개인별 맞춤형 학습과 전학 지원을 2022년도에 공약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결과들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최근 8년간 세종의 초중고 사교육 참여를 보면 전국 1·2위 수준으로 서울과 비슷합니다. 일인당 사교육비 현황도 전국에서 3·4위 수준입니다. 사교육 문제만 해도 이렇게 후보자님 교육감 하실 때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과연 장관직을 수행해도 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할 수 있겠느냐는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정말 사교육을 줄이거나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해서 세종시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정말 저 자신으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사교육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도 하고 또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뭐라 그럴까요 학부모님들의 경제력 이런 것들과도 상당히 그 이유가, 원인이 겹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입시에 대한 과도한 부담 또는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다 책임져 주지 못했던 돌봄이나 이런 과정,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세종에서 어쨌든 조금씩 지금 줄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입시 부담으로부터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원에 가지 않아도 공교육 체제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게 학교 혼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역사회와 마을이 함께 해 나가는 그런 제도들을 보완하는 등 어쨌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실제 사교육 자체가 30조 가까이 돼 버리는 이런 상황을 조금씩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종에서부터 노력을 했는데 아직 빠른 성과를 보이지 못한 것은 인정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금 질의를, 답변을 해 주셨고요.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준 위원 후보자님, 국가의 어떤 큰 정책 방향을 보면 두 가지로 집약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 이데올로기지요. 사상, 이념에 대한 가치 이런 것을 추구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기술에 대한 어떤 방

항 그래서 R&D, 성장, 이런 큰 두 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제가 오늘 국민의힘 위원들, 야당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이념적인 질의가 너무 많아서 제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윤석열과의 비교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로 집권을 했는데 이데올로기를 굉장히 강조했지요, 반공 이데올로기를. 그러면서 뭐를 했느냐 하면 테크놀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R&D 산업을 육성하고 과학,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덕연구단지를 만들어서 국가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또 KDI를 만들어서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 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강조를 상당히 했고 그래서 산업화에 성공을 한 거예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 70년대에 의료보험제도를 도입을 하는데 의료보험제도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북한의 의료보험제도에 자극을 받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해서 한국의 의료산업이 발전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실용주의 정책도 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높은 평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어떤 정권이었냐 하면 테크놀로지가 없는 거예요. 이념만 강조를 했던 것이지요. 이데올로기만 강조하고 테크놀로지가 없다 보니까, 과학기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R&D 예산을 대폭 그냥 삭감한 거예요. 국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 자체가 없던 것이었고요.

또 하나 제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의대 정원을 대폭적으로 늘리면서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에 관련된, 의료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완전히 무너뜨린 게 윤석열 정권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를 강조해서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라는 방향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에 의한 교육정책이 가야 되는 것이다. 그 측면이 뭐냐 하면 R&D 측면에서의 AI 기술인재 양성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 기간산업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야 되느냐? 바이오산업, 국방산업, 콘텐츠산업,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이 있고 거기의 가장 뒷받침이 뭐였냐면 박정희 정권도 그렇고 역대 모든 정권들이 주안점을 가졌던 것이 인재 양성인 겁니다.

그래서 최고진 후보자께서 가야 될 방향은 뭐냐? 교육정책,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으로서 테크놀로지에 대한 국가 성장동력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념, 가치, 이데올로기, 역사관을 같이 균형 잡아 주는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후보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제 의견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실제로 어떻게 AI 관련한 영재, 그러면서도 또 전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갖추면서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영재들을 길러 낼 것인가.

인재 양성 정책이 실제로 이 시기의 국제 경쟁력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의 가장 큰 책임이 교육부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이후에도 많이 여쭙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제가 얘기한 테크놀로지도 중요한데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왜곡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국가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그 가치와 기본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는 교육정책도 가야만 그것이 실용주의 정책으로서 실용주의 정부로서 완결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인재 양성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 교육부장관의 추후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야 간사님과 상의를 드렸는데 추가질의 6시까지 하고요, 6시부터 잠시 식사와 휴식시간을 갖고 8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양 간사님께서 합의를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김대식 위원님 정도까지 하시고 김문수 위원님께, 또 끊기게 됩니다. 특별히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문수 위원님.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 후보자님, 오전에 후보자님 방북 횟수와 관련해서 부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최종 확인하셨습니까? 총 몇 회 방북하신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총 몇 회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까지 제출된 자료에서는 17회 신청해서 13회 방북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법무부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총 17회 방북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 4회는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4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세한 방북 내용, 방북 목적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네 번은 무슨 목적으로 가신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하나하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내내 같은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방북한 일은 한 번도 없고요.

○서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서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후보자의 방북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고 다양한 경로로는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후보자는 총 17회 방북하시면서 그중에 8회는 공공기관 감사 시절에 방북하신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감사로 재직하시면서 북한도 그렇게 열심히 다녀오시고, 감사하라, 방북하라, 해외 출장 가라, 대학원 다니라, 그리고 세종시도 만들었다고 그때 홍보하셨는데 참 많은 것을 하신 부지런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목원대 등록금 납입 및 장학금 수령 현황을 보니 후보자께서 2005년 2학기 때 대학원 근로조교장학금을 받으셨습니다. 무슨 근로조교를 했습니까, 52세의

연세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그때 2005년 2학기는 9월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그 학기 동안 학기별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서지영 위원 어떤 근로장학생이었습니까? 어떤 근로를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지도교수와 상의해서 수업 일정을 짜고 강의 장소를 정하고 나머지 수강생들을 안내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서지영 위원 후보자님, 보통 대학교의 근로조교장학생은, 대학원생들한테 여러 장학제도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는 친구들한테 근로장학금을 주는 형태로 이행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그때 11월에 공공기관 감사로 임용이 되셨어요. 근로조교장학금 받고 근로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11월 달부터는 토지공사 감사로 임용이 됐습니다. 토지공사 감사 임용되고 나서 근로조교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사실상 토지공사 감사로 임명된 뒤에는 수업이 거의 끝났을 때였을 것입니다.

○서지영 위원 11월 17일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업 끝나지 않았고 마지막 학기말 시험도 있었을 텐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그러니까 근로장학금의 수혜 대상으로 결정된 것이 학기 시작하던 때였고 그 중간에 11월 말에 제가 공공기관 감사가 될 것이라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실제……

○서지영 위원 후보자님, 최소한 대학원 근로조교장학금 받으신 것은, 기부 많이 하셨다고 하시지만 공공기관 감사가 되시면서 그때 당시에 반납하시는 게 맞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하여간 이때 당시에……

○서지영 위원 사실은 다른, 교육자로서 저는 근로조교장학금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때 이 과정이 정규적인 대학원 과정이 아니었고요. 실제로 목원대학교에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이 대학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과정이었다 보니까, 당시 등록금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장학금으로 해 주고 나머지만 부담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대학원과는 좀 이해하기가 다른 운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호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라는 건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달 2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한민국 자살률이 OECD 평균의 2배를 넘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건강 지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13년째 자살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출생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낳아 놓은 우리의 아이들도 지키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도한 입시 스트레스 또 우울·불안 이런 이유로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계속해서 이어 가는 현실은 대통령 말씀대로 거의 재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학생들의 마음건강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가까이에서 마주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청문회 준비하면서 2024년 세종시 학생 자살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높다는 언론보도를 제가 접했습니다. 당시 교육감으로서 이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인지하셨을 텐데요.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실제로 세종시의 자살률이 재작년까지도 10만 명당으로 칠 때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른 지역과 달리 초등학교 4학년, 중1, 고1 아이들에 대한 심리검사를 하던 것을 저희는 중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서 진단을 했고요. 거기서 발견된 학생들을 위해, 상대로 하기 위한 학생정신건강센터를 세종시 충남대병원과 협의해서 만들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게 했고 세종에는 학생정신건강부장 제도를 지금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하는 등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실제로 올해 1학기에는 획기적으로 숫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백승아 위원 굉장히 효과를 거둔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에서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를 공약하고 예방·발견 또 상담·치료 전 단계를 아우르는 체계적 관리 방안을 국정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재명 정부 학생 마음건강 정책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또 아이들에게 세밀하게 이 정책에 다가가려면 교육부와 교육청과 학교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아까도 잠깐 이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렸고, 가장 가까이에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 싶어하는 정말 애쓰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이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그 일에 나서실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근무 여건을 최대한 개선시켜 드리는 일 그리고 학생들과 학생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하는 일이 결코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일 이런 일들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학부모님들께는 끝없이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일방적으로 부모가 정한 미래를 아이들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아이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특기를 살려서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함께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일 같은 일들을 교육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승아 위원 세종시에서 거뒀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부에서도, 장관이 되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건강을 위해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고맙습니다.

○백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 후보자님, 서이초 사건 참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렇지요? 기억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정성국 위원 공교육 멈춤의 날 기억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정성국 위원 공교육 멈춤의 날 9월 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모제에 직접 갔었고요, 이주호 부총리와 함께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좀 많이 현장이 어려웠던 게 제가 그때 한국교총 회장이었는데 공교육 멈춤의 날을 어찌 보면 연가나 병가를 써서 나가겠다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이유로 교육부가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냈어요. 기억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정성국 위원 그런데 선생님들은 추모 열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연가나 병가를 허락해 달라 해 가지고 사실 교육부하고 충돌이 되는 상황이 왔었어요. 그런데 교육부는 원칙과 법령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량휴업일을 이렇게 비상 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쓸 수 없다, 그래서 연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이래 되면서 교육부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추모 열기가 가득한 선생님들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는 교육부와 충돌이 생길 때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글을 올리셨냐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교육감으로서 교사들의 정당한 주장을 존중하고 교사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랬거든요. 저는 이때 기억이 납니다, 교육감님. 제가 교총 회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저는 선생님들의 요구도 충분히 공감했고 교육부가 이런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음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교육감님들께서 어떤 한쪽에 쏠리는 의견을 내기보다는 합리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했는데, 이 표현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교사들의 정당한 주장을 존중하면 연가를 내서 나가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교사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만약에 가게 되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인데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학교장들이라든지 현장이 더 혼란스러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교총은, 저는 이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냐 하면 연가 사유에 따른 징계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권 침해에 대한 학부모 우려를 고려해서 사십구재를 우리가 저녁에 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일부 회원들이나 선생

님들이 저에게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교사 출신의 교총 회장이 우리 마음을 왜 더 못 알아주느냐. 저는 그 비판을 일부 받으면서도 또 많은 분들은 정말 합리적인 대안이라 했었거든요.

교육감님, 만약 이제 교육부장관이 되신다면 이렇게 국가적으로 전국에 있는, 세종시교육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부장관으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일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건지, 지금도 세종시교육감의 위치에서 그런 식으로 교사들의 마음도 존중하면서 보호하겠다는 게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쥬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교원단체 회장으로서는 위원님께서 겪으셨을 그 어려움 정말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저도 교육감으로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분열하면 안 된다는 것과 선생님들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무엇이 최선일까. 어쨌든 저도 정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나서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저로서는 교육공동체가 합의를 해서 재량휴업을 결정하면, 그것은 물론 학부모님들 동의까지를 포함해서요. 그렇게 했을 때 교사들이 분열하지 않고 전체가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어쨌면 교육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하면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기보다는 교육감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열어 주셨으면 교육감들이 좀 고민을 덜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아마 위원님께서 책임지셨던 교총에서도 조금 고민을 덜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체적으로 학습에 피해가 되지 않으면서 결정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성국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했고요 교육부 입장도 공감하는 상황에서, 이제 교육부장관 되시면 훨씬 더 엄중하게 판단하실 일들이 생길 것인데 그럴 때 말로만 선생님들 보호하고 존중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을 보호하면서 선생님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법을 더 심사숙고하시면서 판단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호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을호 위원 제 질의 하기 전에, 아까 후보자 북한 방문 관련해서 자료 하나 받았는데요.

보니까 북한 방문을 위해서는 두 기관에서 같이 승인을 하시네요. 법무부에서는 출입국 관리를 하고 통일부에서는 출입국 승인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아까 열일곱 번 다녀오셨다는 것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고 그것은 열일곱 번

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자료를 받은 것 보니까 통일부에서는 03년 이전, 통일부 03년 이전의 승인 자료가 부존재입니다. 03년 이후에 그것 때문에 아마 통일부에 그 자료가 없어서 자료제출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열일곱 번은 맞고 그 이전 한 세 번인가 그 부분은 아마 통일부에 없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님, 사립대학 있지 않습니까? 사립대학이, 2023년입니다. 23년 한 해에만 약 9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사립대학에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립대학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에 나온, 당연히 중요시해야 하지만 자기 입맛에 맞게만 대학의 자율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사립대학이 막대한 9조 7000억이라는 돈을 받으면 그에 걸맞은 공공성과 책임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말씀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동의합니다.

○정을호 위원 그래서 사립대학이 수익사업 등을 운영하면서 분규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교육기관으로서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할 책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정을호 위원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혹시 세종호텔 고공농성 사건 들어 보셨습니까?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렇습니다.

세종호텔은 세종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수익용 재산입니다. 경영난을 이유로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는데요. 이에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지난 2월 13일부터 오늘까지 202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그동안에 나 몰라라, 법인은 별개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 계속 학교 측에 이것을 함께 협상을 종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다가 요 근래 들어서 이사회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를 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안전과 책임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호텔이 알아서 해결하라’, 이게 이사회 결론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학의 그 수익용 재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립대학 재산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자기들이 하고 있으면서 별개로 한다는 것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후보자께서 교육부장관이 되시면 이 고공농성장에 가서서 이분들 만나보고 또 학교 측과 노동자들 간의 중재라든가 그런 걸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이게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던 사안인데요. 한번 노동부장관께 여쭙보기도 하고, 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혹은 노동부와 교

육부가 함께 할 일이 있는지 등을 협의해서 그 일에 교육부가 책임지고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는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사학의 책임성을 명확하게 교육부에서도 인정을 하시고 그 부분 중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알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대학의 자율성은 그 책임성에도 나와 있다는 부분을 알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후보자님, 제가 아까 고등교육 인재 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이어서 할까 하는데요. 후보자님께서 ‘고등교육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그리고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강경숙 위원 사실 이 법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2007년에 설립되었는데요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구예요. 그런데 그것이 2009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위원이 선임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는 인적자원 개발정책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기로는 전체적인 인재 양성 거버넌스 문제를,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그 인재 양성을 위한 어떤 추진체계 제대로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강경숙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사학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국정과제에 거의 이 주제가 빠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혹시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혹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보는 것인가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 의원실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학의 비민주적인 행정에 대한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구성원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후보자님께서도 이런 사학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는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강경숙 위원 교육부의 수장이 되시면 조금 더 민감하게, 이 문제 곳곳에 들어가면 사실 굉장히 문제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정책이라든지 견인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 사업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시간이 없으니 제가 그다음 내용으로, 여기 이 사진 보시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아픔니다.

○강경숙 위원 예?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특수학교 문제 같은데요.

○강경숙 위원 특수학교 문제겠지요. 서진학교가 2017년, 지금 2025년에 성진학교 설립 집회에……

이분들이 누구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우리 학부모들이십니다.

○강경숙 위원 장애인들의 학부모입니다. 이렇게 울면서 무릎을 꿇고 있는 현상이 2017년 이후에 8년째 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 하면 특수아동,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거리를 멀리 다니는 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까운 데 학교가 없기 때문에 학교를 설립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인데 주변의 주민들도 넘비현상으로 원하지 않기도 하고 또 교육 당국에서도 그닥 챙기지 않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깐 현 정부는 다행스럽게 특수학교 20개를 설립한다고 그리고 특수교사 정원을 충원한다고는 했어요.

장관후보께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수교 배치 기준 어떻게 개선하고 교원 양성과 충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특수학교 문제 너무 중요하거니와 특수학교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설립하는 것도 설립하는 거지만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세종에서 실제로, 특수학교는 2개를 지었습니다마는 동네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으면 1명이 있어도 특수학급을 개설하려고 정책을 추진하다가 2023년도부터 교사 충원이 안 되는 바람에 심지어 두 번째 특수학교인 제2특수학교를 개교하던 해에는 그해에 특수학교 하나를 설립하려면 최소한 선생님들이 20명 이상이 필요한데 특수교사 증원을 1명밖에 안 해 줬어요. 잘 아시듯이 매년 전 해의 12월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사실 있던 특수학급도 이렇게 줄여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저는 교원의 배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결국 특수교육의 대상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폭넓게 허용돼야 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후보님, 과열 경쟁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계셔서, 지금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라는 게, 그런 부분들에 뭔가 혁혁한 성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다 기대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진선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작해서 국정기획위원회와 또 여러 군데에서 대략적인 올해 내년의 예산 반영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듣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지원하지만 단계적인 지원 더하기 이제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저는 한 5개년 계획으로 철저하게 수요 조사도 하고 이게 정말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900억 1000억 이렇게 나눠 주고 한 단과대학을 집중해서 키우는 이런 방식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이루는 것은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재정추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대략적인 추계를 해 봐도 서울대 교육비 수준의 한 70% 정도를 달성하려고 하더라도 매년 각 한 3조 이상 이렇게 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한 재정추계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지금 지방에 있는, 저희 인턴 친구가 지방대학 휴학 중인데 본인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표현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방에 있는 지역에 다니는 학생들은 일단 학교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가면 저녁에는 학교 주변이 너무 어둡고,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나 정책의 질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것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안 생긴다는 거고, 그리고 취업에 관한 정보도 너무 부족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자체에 대한 어떤 투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인프라인 거지요. 주변에 머무를 수 있게 아이들이 훨씬 더 문화에도 좀 노출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결국은 그 수요 조사나 재정 부분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위원님 말씀 정말 다 맞는 것 같고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우리 지역을, 누가 그런 얘기도 하던데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교육부에서 열심히 할 테니 각 지역에서는 각 지역을 서울로 만들어 줘라.

정말 우리 학생들과 주민들이 문화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취업이 실제로 취업 정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좋은 일자리가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제안을 굉장히 일찍부터 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취임할 수 있게 된다면 지방시대위원회와 좀 만나서 같이 협의하고 하면서 어쨌든 발로 뛰면서 정말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만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측이 좀 틀렸습니다.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김대식 위원님 차례인데 김대식 위원님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저녁 질의 첫 번째 순서를 김대식 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후보자님, 종교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김대식 위원 종교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기독교입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은 교육위원회 청문회 아닙니까? 이것은 역사에 오랫동안 남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하는 차원에서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바로잡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문수 위원님께서 최근 5년 동안 후보자님께서 거액을 기부하셨다. 8000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면 1144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2만 원까지 포함해서.

기독교가, 이거 한 것은 현금입니다. 자기 개인 십일조라든지 감사헌금 이런 것은 기부에 해당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너소사이어터 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김문수 위원님께서 좀 바로잡아 주시고 또 후보자님을 위해서도 이것은 정확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좋습니다.

○김문수 위원 간단하게 제가……

○위원장 김영호 간단하게.

○김문수 위원 법적으로는 종교 기부금도 기부금이에요. 물론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좀 더 이해하기는 좋은데 종교 기부금도 법적으로 보장받는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합산해서 얘기한 거예요.

○김대식 위원 아니, 그러면 전 국민이 바라볼 때 최교진 후보자가 거액을 사회에 공헌했다고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요. 종교 그것은 별도로, 왜 그러냐면 후보자님을 위해서.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종교 기부금과 일반 사회복지기금의 기부금이 달랐다는 것을 김대식 위원님께서……

○김대식 위원 그렇지요. 달랐다는 것을, 분리를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사회에 공헌한 것은 1144만 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게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김문수 위원 그래도 법적인 기부금이에요, 종교 기부금도.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그것은 잘 정리해 주셨고요.

우리가 추가질의는, 오후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저녁 8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20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녁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후 질의, 추가질의의 마지막 순서가 김대식 위원님에서 끊겨서 김대식 위원님부터 질의가 시작되는 거지요?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은 3분입니다.

○김대식 위원 후보자님, 세종시교육감 11년 하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김대식 위원 11년 하시는 동안에 본인이 자기 평가를 한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

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열심히는 했습니다만 스스로 점수 매기기는 좀……

○김대식 위원 공교육에 중점을 두고 아주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는데 공교육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신 결과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하여튼 최선을 다하기는 했는데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교육부에서 자료를 보니까,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종시 전체 사교육 참여율이 83.5%, 전국 평균은 80%, 서울이 86.1%여서 전국 2위를 기록했어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90%에 육박해서 최상위권인데 왜 이런 결과가 있지요? 세종시가 공무원들이 많고 여유 있게 생활수준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교육에 실패한 요인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공교육의 실패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교육 비중이 높은 것은 반성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식 위원 아주 솔직하게 인정해 줘서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 고등학교 사교육비가 16만 원에서 56만 5000원으로 253% 폭등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오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

○김대식 위원 그다음에 세종시의 일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무려 157%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교육감님으로서 진단을 하십니까? 이게 공교육이 실패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꼭 공교육 실패만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공교육에서 사교육을 막지 못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교육감님으로서 11년 근무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내가 교육부장관이 된다고 하면 어떤 정책을, 사교육을 좀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계획은 무엇이고 또 교육감님이 평소에 생각했던, 11년 동안에 실패했던 것을 거울삼아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사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학부모님들의 처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공교육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을까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런 면에서 초등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보내시는 방과후 과정 같은 것들을 최대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수렴하려고 했고 또 초등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 학원을 많이 보내는데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했는데도 잡지 못한 것은 틀림없이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시다마는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덜어 드리기 위한 노력 그리고 사교육을 하지 않아도 공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회적 인식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함께 신경을 써서 애를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대식 위원** 우리 부모들이 내 자식만큼은 한번 훌륭하게 키워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교육열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여기까지 왔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김대식 위원** 여기에 대해 정말 중점을 두시고 정책을 펼쳐야 되고 또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위원장 김영호** 김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46명의 청년 군인들이 몰살당한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국방 무능 안보 무능이라는 것이 본질이고, 이 사건은 사실 제대로 처벌도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재수사를 해서 명백하게 어떤 지휘부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꼭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부금 5년간 총 8000만 원이 넘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YMCA라든가 종교 관련된 교회 또 재단 여기가 좀 많기는 합니다, 7600. 그리고 나머지가 시민단체 등 여러 가지 이런 단체에 5년간 11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5년간 1100만 원 이렇게 일반 단체들에 하는 것도 적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170만 원인데 24년도에 245만 원이에요. 늘어났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한 단체씩 각 단체를 계속해서 월 1만 원 2만 원씩, 아마 만나서 ‘도와 달라’ 그러면 계속 기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깎아내릴 일이 아니고 칭찬해 줄 일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기부 좀 잘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면 좋겠다 해서 한 번 더 강조해 드렸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것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학교 비정규직 조리사 등이 무기계약직인데 방학 중에 무임금이잖아요, 물론 방학 때 학생들 급식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다른 데 취직도 못 하게 하고, 그러면 방학 때 이분들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이것 너무 가혹하고 잔인한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조리사 선생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에 대해서 요구도 있지만 사실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거의 전국적으로 볼 때 학교 비정규직으로 급식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일인당 조리 식수인원이 제일 높은 편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방학 중에 임금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연평균으로 해서 방학 때 나눠서 지급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방학 중에 성장 지원 프로그램, 기초학력이 방학을 지나고 나면 갑자기 다시 또 원위치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방학 중에도 급식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면 조리사 선생님 중에서 원하시

는 분들이 노동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세종에서는 합의가 되는데 이게 전국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합의가 어려워서 일부 학교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리사 선생님들의 근무 여건에 관해 가능하면 교육청과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함께하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같은 걸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실제로 노조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재작년에 단체협약에서 그걸 해 보자고 얘기했었는데 최종 합의 사인은 못 한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함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리사 선생님들을 추가로 모집하려고 그래도 지원자가 없어서 충원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식단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에 원래 당사자인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노동조합이 할 일이지만 교육부에서도 중재안이라고 그럴까요, 해서 좀 원만하고 잘 해결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질 좋은 그리고 안전한 건강한 식단을 즐길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문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조금 전에 김대식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통계는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떻게 세종시에서 교육감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렇게 사교육이 많이 늘어났는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높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맥을 같이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25년 1학기 시도별 AIDT 도입률을 보게 되면 대구시의 경우에는 98.1%가 도입한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마는 세종시는 최하위이고요 9.5%입니다. 다른 시도와 유사하게 낮은 것이 아니라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에서 빨리 움직이지 않는 게 우리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사교육을 늘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편에서는 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후보님이 NEIS에 대해서 반대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결국 후보님이 교육을 좀 더 현대화하거나 혹은 AI나 디지털화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학교에서는 불안감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NEIS 도입에 후보님이 반대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저는 정말 놀라운데요. ‘학생과 술 먹고 목욕하는 것이 학생을 아는 데는 더 도움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때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아마 학부모들은 다 깜짝 놀라서 자지러질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하나 여쭙더니, ‘태극기에 대해서 경례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당시에 비상조치 대상이었느냐?’ 이 질문을 드렸더니 ‘태극기는 아니고 태극기 그 뒤에 있는 대통령에 대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것은 ‘그래서 나쁘다’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요.

제가 같은 분에게 두 가지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제보가 그거였고요. 그래서 과연 이분의 제보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까 궁금해서 여쭙봤고요. 후보님의 말씀을

들으니 전혀 근거 없는 제보는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제보도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이 대천여중에서 교편을 잡으실 적에 소위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쳐서 학교에서 물의가 일어난 적이 있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주체사상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민전 **위원** 제가 본 게 아니니까 있다 없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어찌 됐든 두 가지의 제보를 한 분이 동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한테 줬는데 하나가 엇비슷하게 비슷했구요. 하나는 제가 지금 여쭙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장·교감이 말하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발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가 차게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냥 질의 소개만 있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간략하게라도 해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대천여중이 제 첫 발령지였고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과 함께 근무를 했구요. 그런데도 3년 6개월 만에, 84년도 9월에 해직이 되었습니다. 그때 해직이 된 사유는 여름방학 때 대천 바로 인근에 있는 탄광지역에 지역 YMCA와 함께 여름방학 봉사활동을 가게 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탄광촌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고민아들,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들이 많아서 도대체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해서 그 동네에 직접 가서 여름방학 때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제가 대학교 때부터 문제가, 그러니까 제적됐다가 복학해서 공주사대로서는 처음으로 학사 문제이었다가 발령이 난 후였고 그게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라 그랬는지 모든 감시를 받고 있었는데 그 봉사활동한 것이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의식화 교육을 했다고 해 가지고 제가 사표를 강요당했고 사표를 거절했더니 그러면 거기에 함께 봉사활동 왔던 후배들과 제자들에게 불이익이 가게 된다 그래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굉장히 악의적으로 당국에서 일부에게 퍼트린 일이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걸 사상적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여름방학에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 봉사활동한 것은 지탄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시대 상황이 그랬었는데……

○위원장 **김영호** 그게 몇 년도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1984년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전두환 정권 때는 갖은 조작과 공작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배경이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그래서 결코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어 본 일도 없고 더구나 아이들에게 그런 사상교육을 한 일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되겠

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때 주체사상을 가르쳤다 그러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겠지요, 전두환 시절에.

○김준혁 위원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질의를 주시지요.

○위원장 김영호 다음 질의가 김준혁 위원님이시지요?

그러면 김민전 위원님 질의 마치셨고요.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 최소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한국사회에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학사회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언제인지 압니다. 1986년 건대 사건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전에 한국사회에서 ‘주체사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대학가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사청문회를 왜 하느냐. 정책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저녁 먹으면서 YTN을 보니까 교육감님이 여학생을 때린 패륜아 혹은 후안무치한 인물로만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1981년도에 있었던, 물론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지금 후보자님보다 더 어마어마한 분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때 그 일을 가지고 후보자를 그렇게 매도해서 평생 낙인찍히게 만드는 것도 과히 올바른 질의는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질의도 역시 우리가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정책적 질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나 역사적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그러면 이 청문회에서 자꾸 이념 논쟁이 나오면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로당 출신인 걸 꼭 다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최소 그렇게 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후보자님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아까 김문수 위원님이 조리실 상황 이야기했는데 제가 후보님 조사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최초로 급식실에…… 뭐지요, 그것?

○위원장 김영호 인덕선.

○김준혁 위원 인덕선을 설치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아들을 폴리텍대학의 조리학과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때 열 과정에서 폐에 안 좋다고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 요리사가 이렇게 힘든 거로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막아 주기 위해서, 그 조리실에서 어렵게 일하시는 급식 종사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인덕선으로 교체를 하셨다고 하시는 내용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장관 되신다면 이것 전국으로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그렇게 노력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김준혁 위원 저는 거꾸로 이렇게 잘한 정책이 있을 수 있고, 조금 전에 김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세종에서 사교육이 그렇게 높은 것 이런 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교육을 중시한다는 후보자님께서 교육감으로 활동하셨는데 역으로 세종시가 사교육이 높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철저히 반성하고 그것이 다시는 전국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위한 그런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하게 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고민정 위원 급식 조리사들에 대한 문제는 저도 법안 발의를 했고 풀어 보려고 고용 부하고도 논의를 시작하고 하는데 인덕선은 사실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후보자께서 갖고 계시는 장점이 되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우리 교육재정교부금 관련해서 매해 매번, 뭐든 기재부에서는 늘 깎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부금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국민의힘 야당 위원들도 동의하시고 특히 조정훈 간사님이 되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교부금이 왜 지켜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설득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인덕선 문제도 결국은 예산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후보자님께서 하셨던 것 중에 제가 눈길이 갔던 게 있는데 지금 현재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교부금도 줄여야 된다, 단순히 이렇게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5년 교육통계를 봤더니요 초등학교는 9개, 중학교는 20개, 고등학교는 7개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학교 수가 줄거나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교실당 학생 수는 과연 적정한가, 과밀학급인가 아닌가를 먼저 논해야 교부금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 그 기준조차 만들어지지 않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교위에도 그 부탁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현재 과밀학급이 얼마나 존재하는가 봤더니 교육부에서 21년에 발표한 바로는 일단 기준을 28명쯤으로 잡아 놔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채우지 못하는 과밀학급이 전국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25%나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옛날 우리 60명 시절에 비하면 좋아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교부금 줄여야 된다’ 막 이러는데 우리 대한민국 수준에서 지켜야 될 과밀학급을 넘어서는 학교가 이미 25%나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여기입니다. 22년에 세종에서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1·2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는 정책을 펼친바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지금도 그게 유지되고 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고민정 위원 왜 그런 정책결정을 하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사실은 국가가 처음에 했던 약속을 교육청에서 먼저 저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코로나 상황을 겪고 나서 실제로 각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된다는 것도 있고 기초학력 지도라든가 다양한 그거 할 때, 또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OECD 평균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들부터라도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6년도에는 3학년까지 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선생님 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급당 학생 수가 교원 수를 사실상 동결을 하거나 축소시키는 바람에, 특히 세종시는 애초에 새로 도시를 지으면서 학교를 지을 때 학급당 인원을 25명 기준으로 생각해서 교실 크기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는 28명을 수용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사실은 고등학생은 코로나 상황에서 25명을 딱 맞게 넣어도 거리 유지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8명으로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교원 수를 최소한, 고교학점제도 있지만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볼 때 교육격차 해소든 AI 인재 양성이든 교육재정은 정말 지금 늘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신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용기를 갖고 있고 시도 교육감들도 정말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함께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민정 위원 그래서 세종에 있는 학생들만 혜택 보게 하지 마시고요, 부산 지역구 위원님들 많으신데 다른 지역들까지도 조금 따라갈 수 있게끔 장관으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후보님, 이진숙 전 후보 청문회 이후에 SNS에 이진숙 후보 사진 사퇴 촉구하는 메시지 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조정훈 위원 왜 내셨습니까? 보니까 이유가 ‘자질과 철학이 교육부장관을 수행할 자격에 맞지 않아 보인다’ 그러셨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일부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리고 나중에는 그 SNS를 내리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조정훈 위원 이진숙 후보의 자질이 부족하다면 과연 후보의 자질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진숙 후보도 보고 있을지 모르는데 나중에 두 분이 조우하시면 어떤 대화를 나누실지 저는 궁금하기는 합니다.

후보님, 서면질의했을 때 제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교육선택권 보장하겠지만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무성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맞지요?

후보님, 아까 민주당 간사님이 세종시의 경험을 부산에도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저는 전혀 아니에요. 세종 교육계 그것을 서울로 절대 갖고 오지 마세요. 전국으로 확대하지도 마시고요. 특히 사교육에 있어서요.

저는 후보님이 이것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잡는 노력하고 똑같았다 생각해요. 좋은 뜻이었지요. 하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 폭발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 받아 적었어요.

기초학력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세종시 학부모들 대부분이 공무원인데 자녀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학원을 보냈다?

두 번째,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덜어 주기 위해서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 불안감의 본질이 뭘니까, 후보님? 왜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짧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하지 않는 게 좋은 불필요한 비교 때문에 불안감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다음에 행복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다시 한번 만든다면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후보님, 아까 김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 하나만큼은 잘 길러 보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노력 그리고 내 환경이 어렵지만 교육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좋은 조건에서 살고자 하는 학생들 개인의 노력이 죄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아닙니다. 죄 아닙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 거예요. 세종시에서 사교육 줄이려고 이런 노력 하니까 학부모들은 불안한 거예요. 어차피 경쟁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대학을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학 나와서도 우리 사회에 과연 경쟁이라는 게 없을 수 있습니까?

선출직 세 번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경쟁 아닙니까? 선출직에 당선되려고 그렇게 노력하셔서 세 번이나 당선됐는데 왜 자꾸 경쟁, 교육 경쟁을 줄이겠다, 줄이겠다만 말씀하십니까?

저는 과도한 경쟁이 일부 있다는 것 인정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정한 경쟁은 어떻게 보면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게임의 룰을 정확하게 하고 누구도 반칙하지 않고 조국 같은 사람 다시 나타나지 않고 장학금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받지 말아야 되고, 그렇다면 정당당당하게 경쟁해서 이겨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 것 다 알지만 경쟁 어떻게 피해 가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중에 경쟁 피한 사람 있습니

까, 다 선출적인데? 후보 없이 당선된 분 있습니까? 솔직해지자는 말이지요.

우리 학부모들의 그런 욕심도 죄의식으로 만들지 마시고 학부모들의 현실적 욕구도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위원님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기본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어찌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또 기다림이라고 쉽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 자녀를 믿고 자녀의 판단, 자녀가 자기 스스로 성장할 수 있을 때를 기다려 주는 것,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믿고 기다려 주는 것, 아이들이 선생님을 믿고 기다려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혹시라도 부모님들의 판단으로 우리 아이들을 몰아붙이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아이들에게 경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조정훈 위원** 그 판단은 저는 교육부장관이 할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민정 위원** 이제 정리하시지요.

○**조정훈 위원** 자기 자녀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교육을 가르치겠다 하는 그 판단을 잘못됐다고 전제로 깔고 계시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국가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는 데 간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고민정 위원** 정리해 주십시오. 너무 갑니다. 한 번 더 하실 거잖아요.

○**조정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국가가 학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에 대한 간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민정 위원** 아니, 좀 끊어 주십시오. 너무 길어요.

○**위원장 김영호** 일단 계세요. 이 문제는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아닙니다. 간섭할 권리가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부모님들이 아이의 판단을 존중해 주고 기다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조정훈 간사님 다 하셨어요?

오늘 하여튼 공교육 강화 또 사교육 절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사실 아까도 제가 북유럽 사례를 얘기했지만 당연히 경쟁이라는 것이, 사회에 경쟁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경쟁적인 어떤 사회 분위기가 좀 정상적이지 않다. 5세, 7세부터 아이들 영어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사교육이 계속 늘어난다는 그런 걱정 아니겠습니까?

북유럽에서는 하여튼 선행학습 자체를 공정한 경쟁이라고 안 본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요. 사실 우리나라는 선행학습 없이 공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좀 비정상적인 교육 환경 아니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교육감님한테 하나 여쭙볼게요.

왜 5세 유치원, 사교육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왜 그렇게 사

교육을 해야 됩니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좋은 대학을 가야지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교육 문제를 우리가 백날 얘기해 봤자, 실제로 사교육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 현안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노동의 가치를 바꿔 주지 않으면, 중소기업을 가든 대학을 안 가더라도 아이 낳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사회가 되어야지 사교육도 줄어든고 공교육이 강화되는 거지 매일 사교육 때려잡겠다 그러고 교육 안에서만 떠들면 뭐 하겠습니까, 노동시장이 바뀌지를 않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여야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우리의 의식 문제 중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교육위원회라도 사교육 절감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고용노동부장관도 만나셔야 되고 중기부장관 만나셔서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 노동시장과 연계해서 대학을 안 가더라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 만들어야 되고요. 대학을 안 가더라도 중소기업, 자그만 자영업을 하면서 정말 잘살 수 있고 아이 낳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사교육이 없어지는 겁니다. 대학을 안 가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학을 안 가면 차별받아요. 이성 교체하기도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대학을 안 가면 좋은 직장 못 가요. 왜 의사를 잡니까, 왜? 의사를 하면 가장 안정적이죠, 사회적 지위가 있지요, 돈 많이 벌지요. 다들 의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욕구를 억제하지 말자는 게 조정훈 간사님의 말씀이고. 그렇잖아요?

○**조정훈 위원** 그게 현실이니까요.

○**위원장 김영호** 하지만 그런 현실 속에도 우리가 이런 과열 경쟁 문제를 교육 분야에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노동과 연계를 해서 정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를 대전환시켜야지 사교육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는 여야 위원님들 같은 생각이실 거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조정훈 간사님의 지적은 그거 같아요. 사교육을 때려잡기 위해서 영어유치원만 때려잡는다고 이게 근절되지 않는다. 왜냐? 아이를 낳으면 모두 다 자기 아이들 의사 만들고 싶고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그런 욕구를 단편적으로 잡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와 장치를 만들어 놓고 교육 분야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야당 위원님의 말씀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여당 위원님들 뜻은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과열 경쟁 당연히 절제하고 자제시켜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교육위원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노동, 사회, 우리 정부의 모든 부처와 연동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함께 고민해 보시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 중기부장관 만나서 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말 이런 TF 같은 것, 특단의 조치도 한번 만약에 통과되시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위원장님 말씀에 백번 공감하고요. 그런 뜻에서 조정훈 위원님 말씀에 함부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죄송하지만 그래서 국교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백년지대계 이 교육정책을 속도는 좀 느릴 수 있지만 정확한 지향점을 딱 설정해 놓고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교육 대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뀐다 그래서

교육정책이 막 급변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국교위에서 전문가 그룹과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 방향점을 제대로 찾아서 한 발짝 한 발짝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교위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고민 또 많은 힘을 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말씀이 길어서 죄송하고요.

이제 추가질의, 한 번 더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김용태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준비되셨지요?

김용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태 위원** 의대정원 증원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아시겠지만 2026년도에는 3058명으로 증원 전으로 다시 되돌아갔고요. 2027년 의대정원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정해지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처 간의 협의와 소통입니다. 의대정원과 관련해서 교육부장관도 보건복지부장관과 긴밀히 협의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의료계 등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 이끌어 내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의대정원 갈등이 발생했다고 서면으로 답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후보자가 생각하는 의대정원 방향은 어떻게습니까?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되고 있고요.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지해야 하는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국민 모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디에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데 온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의료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소외되는 지역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의사의 수를 일정하게 고르게 늘려야 한다는 데 국민적인 합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어떤 단계로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긴 협의 과정 같은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조금 서두른 감이 있어서 지난번에 파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의사, 환자, 지역, 여러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김용태 위원** 간략하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공공의대 확대 추진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위원** 공공의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대정원 확대는 지난 정부에서 겪었던 사회적 비용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실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또 의사와 병원 등 그 주체들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위원** 아마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것 이상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사와과학자 그리고 의사공학자 양성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 나중에 이러한 것들을, 아마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일 텐데요 저희 교육부하고도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의사와과학자의 대화 부분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잘 알아보고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준 위원 후보자님, 우리가 교육의 목표 여러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개인의 어떤 자아실현도 교육의 목표가 있는 거고요.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가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좋은 인재를 양성하고 그러면서 국가의 어떤 발전을 꾀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박성준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크게 네 가지로 보면 국가 책임교육을 통해서 출생부터 18세까지 공교육에 대한 전면을 강화하겠다. 알고 계시지요, 공교육 강화에 대해서?

두 번째는 디지털 AI 기반 맞춤형 교육,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권 강화, 교사 자유 보장을 해서 학생과 교사가 모두 행복한 학교, 그리고 네 번째는 지역대학의 발전을 통해서 지역혁신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 이렇게 큰 네 가지 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박성준 위원 이러한 네 가지 틀이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이 방향은 나와 있고 만약에 교육부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전체적인 어떤 방향과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성과를 내는 것이 그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지역대학을 통한 균형발전이라고 했을 때 대학의 어떤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혁신체제 또 지역의 산업체제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게 다 맞물려 있는데 교육부의 정책들을 보면 지금 상당히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좀 조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서도 글로컬 대학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글로컬 대학도 당연히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혁신체제를 만들고 지역의 발전체제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대한 플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미 20개 대학이 선정이 됐고요 나머지 대학이 선정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RISE 산업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박성준 위원 이것도 큰 맥락을 볼 때는 같은 사업체계가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에서 대선 때 나왔던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하는 정책도 지역의 국립대학을 거점으로 해서 지역의 발전을 이끌고 지역인재 양성을 하고 거기에 선순환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공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향후에 지역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AI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도 앞으로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성장 동력을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란 말이지요. 그것이 지역혁신체제와 맞물려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든가 글로컬, RISE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건데 이거를 어느 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글로컬 대학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잘못됐으면 평가해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혁신체제를 만들고 그러면서 여기에 국립대 거점대학은 또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그런 안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대학교육을 고등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만드는 시점이 지금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R&D 문제라든가 성장 동력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서 대한민국을 5대 국가로 만들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저는 그 기틀을 최고진 장관후보자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그림을 가지고 초등·중등 교육뿐만 아니고 고등교육에 대한 그림까지 다 그려서 우리나라 산업체계, 지역발전체계까지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재 양성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나와 있지만 이것을 좀 더 혁신하는 모습으로 가야만 제대로 된 자본에 대한 투입, 예산에 대한 투입과 더불어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사실은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에 매우 의미 있는 사업들이 RISE 사업,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고자 하는, 교육부에서 일방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지역이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대학 사업도 각 대학이 자기 특성에 맞는 새로운 혁신을 권장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는 정말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크게 보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명명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재정 면에서도 그렇고 일정하게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처음에 글로벌 대학이든 RISE 사업이든 추구했었던 좋은 점을 일정하게 살리면서도 선택과 집중 또는 정비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잘 토론해서 정비해서 정말 제대로 된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혁신, 이를 통해서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제대로 된 인재 양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호**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 후보자께서는 입시 경쟁에 대한 비판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시 경쟁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후보자의 교육철학으로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에 본인의 저서에서도 ‘수능은, 그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을 점수 몇 점으로 다시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다. 필기고사 성적만으로 줄 세우는 폭력’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2014년 교육감 출마할 때 본인의 공보물에서도 이러한 입시 경쟁에 대해서 ‘온몸으로 울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공보물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뒤 후보자의 공보물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최고진 취임 후 학력

급상승, 취임 후 고교 입학생 대학 진학률 2.5배, SKY 2.5배 증가, 수도권 주요 대학 3.1배 증가 그리고 심지어 수도권 주요 대학들의 대학명까지 줄줄줄 열거해 봤습니다. 마치 입시학원의 홍보 자료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후보자의 부인까지도 입시 경쟁의 성과를 후보자의 성과라며 본인의 페이스북에 광고를 아주 제대로 해 봤습니다, SKY 잘 갔다고.

왜 그랬습니까? 왜 4년 만에 후보자는 이렇게 급변하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지영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사실은 세종의 교육이 차근차근 발전해 가고 있었는데……

○서지영 위원 입시 성과에 대한 치적을 홍보한 것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그리고 있었는데 세종의 많은 학부모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세종에서 진학해서 갈 수 있는 것을 중학교 졸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종시 학생들 성적에 있어서도 결코 뒤지지 않고 잘 가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됐고, 특히 2014년·2018년 선거를 하게 됐을 때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 진영에서 대대적으로 세종 교육이 전국 꼴찌라고 하면서 막 플래카드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하는,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저게 필요했습니다.

○서지영 위원 후보자님, 결국은 본인의 선거에 필요했던 겁니다. 후보자의 교육철학이 4년 만에 바뀐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지영 위원 결국은 수능의 입시 성적을 치적이라고 홍보하는 것 자체가 온몸으로 울고 있는 아이들이라며 대학 서열화에 대해서 비판해 온 후보자의 의식과 너무나 다릅니다. 후보자는 이 자체만으로도 선거 앞에서 표리부동하고 이율배반적이며 교육자로서의 철학과 양심은 뒤로 하고 선출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급변하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보여 준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후보자가 앞으로 해 나갈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이번에 후보자의 자료와 이력들 살펴보니 학교 현장 경험이 녹아 있는 정책들이 돋보였습니다.

2014년 첫 세종교육감 당선 직후에 거창한 공약보다는 성장기 아이들을 고려해서 학생들 의자부터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춘 후보자의 세심함 그런 시각이 드러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첫 교육감 취임 직후에 관사 임차비용 2억 7500만 원 없애셨지요? 그 예산을 조치원여고 테니스부 합숙소 개축에 투입하신 사례도 봤습니다. 지방교육행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투입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고민정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2023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정책을 세종교육청에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시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추진하기에는 학교 공간도 부족하고 교원 확보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었고 무엇보다 대규모 예산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후보자님, 당시 추진 과정 전반에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는지,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면 갖춰야 될 조건은 무엇인지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제일 중요한 것이 실제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교원의 배치입니다. 세종은 작은 도시인데 세종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힘든 것이 교사였고 그래서 전담으로 뛰고 있는 선생님들을 담임으로 배치하고 전담은 기간제로 채용하면서 이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교원도 또한 월급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그렇습니다.

○백승아 위원 지금 2013년 14년 두 해 동안 미교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만 약 14조 6494억 원입니다. 여기에 올해 세수결손으로 인해서 교부금 또 감추경 될 거고요 앞으로 교부금 규모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부금이 줄어들면 아까 하셨던 책결상 교체라든지 이런 작은 사업부터 노후한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이런 대규모 사업까지 모두가 다 차질이 생기게 될 텐데요.

교부금이 줄어들면 현장에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는지 사례를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왜 중요한지 지방교육행정을 이끄셨던 경험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교육에서 당장 무슨 사업을 위해서 투여하는 돈보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교육 환경을 갖추는 일들이 어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생활하고 있는, 아까 그린스마트스쿨 얘기를 하셨습니까라는 학생들의 생활 조건을 최소한의 개선을 하는 데도 지금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일부터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어찌면 경직성경비를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아주 작아 보이지만 정말 소중한 일들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승아 위원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하고 예산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논의가 예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동안 제기돼 왔던 문제인데요 합의에 이르기 어려웠던 문제만큼 교육부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어 갈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만 줄이겠는데, 후보자께서 교부금 문제 포함해서 교육재정 전체를 바라보시는 시각을 잘 반영을 해서 앞으로 이 교부금 개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학교 아이들을 위한, 교육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좀 중심을 잘 잡아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고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 오늘 발언 기회가 마지막인지 한 번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김영호 위원장님, 균형 잡힌 사회 봐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웃음)

아이, 별말씀을요.

○정성국 위원 활짝 웃으시네요.

○위원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정성국 위원 교육감님, 조희연 교육감님 관련해서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교대나 사대를 졸업해도 치열한 임용고시 경쟁 뚫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정성국 위원 그런데 조희연 전 교육감이 2024년 8월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정성국 위원 그때 대법원이 말한 것은요 공무원 임용의 공정성을 해친 특혜성 특별채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뭐라 하셨냐면요 그날에 해직된 교사를 절차에 따라 복직시킨 업무 처리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해직자를 향한 따뜻한 배려이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포용적 실천이었고 과거 폭압적 정치 상황의 피해자를 구제한 것이라면서 조희연 교육감의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결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듯한 발언을 하셨어요. 맞지요? 제가 그대로 읽었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정성국 위원 아니, 한 시도 교육감을 하시는 분이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한 주체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조희연 교육감님의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당시 함께했던 거의 전국의 모든 시도 교육감들이 비슷한 취지로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문이나 이런 것을 다 같이 보냈었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게 17개 시도 교육감이 다 그랬다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거의 대부분이 같이 했습니다.

○정성국 위원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17개 시도 교육감이 다 그랬다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다는 아닐 겁니다.

○정성국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교육감들 중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다수로 파악했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러면 대법원이 이렇게 확정판결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 법을 가장 중

요시 여겨야 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대법원 판정은 존중합니다.

○정성국 위원 아니, 법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교육감이 법의 가치를…… 학생들을 가르칠 때 대법원 판결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는 듯한 발언 하라고 가르칠 수 없잖아요. 선생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판결 자체는 인정합니다.

○정성국 위원 그런데 인정하면서 왜 이런 글을 올리시냐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육감으로서 이런 SNS에 올린 글들이 자기와 가깝고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방어막 치는 데 급급한 발언들이 너무 많았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SNS 활동을 좀 자제했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정성국 위원 제가 대통령님의 인사권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님의 인사권도 국민의 여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 이후에 국민들 여론이, 후보자님을 향한 국민의 여론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영호 다 하셨습니까?

○정성국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을호 위원 후보자님, 지난 8월 한 달만 해도요 철인3종 합숙소 성폭력 사건 등 충격적인 사건들이 학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내에서 발생했는데요 저는 지금 특수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학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선수 학폭 문제와 관련하여 문체부는 무관용원칙을 선언했는데요. 교육부도 학생 안전에 일정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공감합니다.

○정을호 위원 그런데 합숙소, 기숙사 등 특수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학생 폭력 사건에 대해서 학생선수라는 이유 등으로 교육부가 문체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도외시키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부도 일정 정도 학생선수 관련해서 교육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떠넘기기 하지 않고 학생들의, 선수이든 뭐든 학생에게 이루어진 일은 교육부가 나서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리고 기숙사 내 학교폭력 문제도 심각합니다. 기숙사 내 학폭 건수는 2020년 107건에서 24년 306건으로 대폭 증가했는데요. 교육부가 배포한 25년도 학폭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를 단순히 반이나 층만 달리 배정하는 것도 분리 조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저도 다르게 생각되는데 후보자님도 그렇게 보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가이드북이 너무 탁상공론식으로, 학생 안전 중심이 아니라 그냥 어르신들, 교육부에 있는 당국자들 중심으로 쓰여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이후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되시면 학생 안전을 위해서 과감한 제도개선, 조그마

한 것이라도 정책 추진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감사합니다.

○정을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니까 교육부가 과거 제도 정비를 이야기하면서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쉽게 말하면 신학대학교 지정 관련한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봤더니, 교육부에 제가 확인해 보니 행정예고는 8월 14일에 났지만 이주호 장관께서 교육부 수장으로 있던 지난 3월 4월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주호 장관부터 수렴해 오고 8월 14일에 공시했던 건데요.

이 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해당 학교, 신학대학교 해당 학교겠지요. 이 학교에서 의견 수렴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있는데 일방적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이 오시면 다시 한번 챙겨 봐 주고 그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제대로 한번 파악하고 요구하고 있는 주체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후보자님, 교육 현장에 오랫동안 몸담아 오셨기 때문에 유아 사교육 문제의 심각성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강경숙 위원 요즘에 교육계에서 나름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25일에 인권위가 이런 조기 사교육에 대해서 명백한 아동 인권침해다라고 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후보자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인권위의 권고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숙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다음 두 가지를 후보자님께 강력하게 요청하고 싶은 건데요. 첫 번째는 아동 사교육비 본조사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동, 그러니까 유아 영어학원의 레벨 테스트 전수조사입니다.

첫 번째는 26년에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를 앓거든요. 그런데 24년에 시험조사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 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강경숙 위원 이게 제대로 된 데이터 축적이 돼야만 그다음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국회 증액을 시도해 보지만 그게 안 되면 국가시책 특교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레벨 테스트 전수조사인데요 학원총연합회도 지난 8월 21일에 유아 영어학원 레벨 테스트 전면 금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레벨 테스트를. 레벨 테스트 하는 것을 대학생이, 그러니까 영어를 전공한 대학생이 풀어 봤는데 서너 개인가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저께 뉴스에 나왔거든요. 이 정도입니다.

이것은 정말 거의 아동들한테는, 아까 학대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우열을 가리면서 교육적 효과를 오히려 저하시키는 거고 스트레스를 줄 것이고 굉장히 정서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모들한테는 불안감과 조급함 이런 것을 자극해 가지고 사교육을 과열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레벨 테스트 시행하는 것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게 전수조사라는 게 보니까 선발 목적이 있고 분반 목적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발을 하는 데 ‘O, X’를 조사하라고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한 건데 그것을 이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선착순이나 추첨 방식으로 해라라고 하는 구두 권고만 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대로 된 발표 되지가 않은 것이지요.

이것과 대비해서 저는 유아 생태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세종시에서는 그걸 많이 해 왔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나름 지속해 오셨어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게 부산대학교 임재택 교수가 쓴 ‘아이행복 세상을 위한 혁명’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게 생태교육이거든요, 유아의. 제가 찾아보니까 세종시에서 어떻게 이것을 잘 시행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게 지역사회와 연계되고 숲교육을 되게 강조하기도 하고 또 조례까지 추진해 오셨던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본인의 입장도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생태교육에 대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먼저 제안해 주신 아동 사교육 본조사 예산 책거 보도록 하고요, 가능하다면. 그다음에 레벨 테스트 전수조사도 꼭 책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생태교육, 특히 지속가능한 미래를 살아야 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세종에서 전국 최초로 공립 단설유치원인 숲유치원을 했고 숲유치원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생태유치원을 지금 여러 군데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종이 작은 도시이지만 다른 도시와 다른 것이 단설유치원으로 출발할 수 있어서 유아교육의 제대로 된 모범을 만들자고 하는 유치원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책자로 소개해 주신 임재택 선생님께서도 세종시에 와서 그런 지도를 많이 조언을 해 주셔서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세종시가 그야말로 관계 중심, 놀이 중심 그리고 생태 중심 유아교육의 모델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고맙습니다.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복 위원 후보자님,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2차 추경에 보육료 물가인상분 5%를 반영해서 1136억을 저희가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급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부모급여로 갔다가 기관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시작을 해서 기관으로 잘 배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웃지 못할 넉센스가 벌어졌어요. 뭐냐 하면 물가인상분 5%를 하니까 기관에는 그 금액이 제대로 보내지는데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0세는 100만 원이고 1세는 50만 원이다 보니까 이게 부모급여가 오히려 깎이는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한번 따져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아동수당법에 0세는 100만 원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고 1세는 50만 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아무리 저희가 물가상승분을 반영을 해 줘도 부모급여는 100만 원과 50만 원을 넘지 못하니까 오히려 부모급여가 깎이는 현상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라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체크하지 못한 약간의 틈새더라고요. 뭐냐 하면 아동수당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동수당법도 같이 해서 물가상승분을 매년 5%로 인상해 주면 자연적으로 따라 올라가서 부모급여도 깎이지 않고 물가인상분이 올라가는데 실제로 그것을 놓친 거예요. 그것은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보건복지위원회도 그렇고 교육위원회도 그렇고 잘 이해를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위 소관은 아니에요. 교육위 소관은 아니고 보건복지부 소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님들께 유보통합이 적절하게 잘 되려고 하면 지원의 형평성에 따라서 부모급여도 같이 따라서 인상해 줘야 된다는 것을 보건복지위원회님들께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해서 거기에서도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주고자 하는 그 당위성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장관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부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잘 챙겨 내셔야지 따라서 부모급여도 실손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챙겨 주시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감사합니다.

저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문정복 위원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특히 유보통합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같이 협의하

고 꼭 보건복지부장관님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배워서 잘 말씀대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문정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후보자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김대식 위원 피곤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괜찮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초중고 이야기만 대체적으로 검증해서 나오고 이러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대학사회에서 후보자님이 초중고에는 전문가가 맞다 그런데, 대학사회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우리나라 대학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대학 개수요? 갑자기……

○김대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학이 4년제 200여 개, 전문대 130개, 그다음에 사이버대학이라고 있어요. 사이버대학이 방송통신대학까지 합해서 2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154개 정도 되지요.

그런데 4년제 대학은 대교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문대학은 전문대학 협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사이버대학은 지금 협의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입법을 해 봤는데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보수정권이 됐든 진보정권이 됐든 교육부장관이 누가 되든 간에 두 가지가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역사 문제는 절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역사가 왜곡되면 안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동의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정권에서 하더라도 국가의 지속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노벨상을 받든 뭘 하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시작도 하기 전에 평가부터 해 가지고 안 되면 그 뒤로 이삼 년 있다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우리 후보자님이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믿음과 기다림이다’,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요. 연구비를 줬으면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동의합니다.

○김대식 위원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김대식 위원 그래서 글로컬 대학을 지금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고받아 보셨습니까? 이거는 성공적입니까, 실패적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아직은 그걸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RISE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다음에 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이런 부분이 혼합화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정말, 초중고에서 그동안에 경험했으니까 이걸 전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장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 대학 고등교육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아까 박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답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지난 정권에서 고등교육 혁신과 관련해서는 RISE도 글로컬도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서울대 10개를 하고자 하는 이것이 국가 균형발전과 대학입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업의 장점들을 살리면서, 그러면서도 예산을 한없이 쓸 수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대식 위원 어떤 정부에서 추진했다고 해서 이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아니다, 이렇게 보다는 좋은 점은 계속 계승해 나가는 게 우리 학부형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혼란을 줄이고, 교육이 백년지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김민전입니다.

지금 제가 PT 자료 하나 올렸는데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그래프가 준비가 아직 안 됐군요.

준비하는 동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후보님이 말씀하신 ‘우리 아이들이 울고 있다’ ‘교육은 기다림이고 믿음이다’ 이런 말씀들 다 좋은 말씀인데요. 학교가 그러고 있는 동안에 가정은 더 전쟁 통이 된다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그래프가 나왔는데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가,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원 보내느라고 등골이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학생들은 또 이 학원 저 학원 뽕뽕이를 도느라고 어렵고 이런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은 점점 늘어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의 아이러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과연 어디 있을까. 이 이유를 좀 알려면 먼저 지역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부모의 SES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통계를 가지고 꼭 조사를 해볼 수가 있어야 그 원인을 추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요즘은 지역별로 차이를 낼 수도 통계를 볼 수도 없게 만들어 놔습니다. 그냥 뭐가 어찌 됐는지 알 수도 없게 만들어 놔다, 이게 정말 저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최 교육감님 같은 지역이 공부를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보수 지역 교육감이 잘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어야 저는 유권자가 제대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그런 비교조차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마침 2023년 뉴스1에 최 교육감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기초학력 미달이 급증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질문에 ‘여름방학에 급식을 실시하면 해결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한편에 있어서는 맞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한편에 있어서는 여름방학 때, 특히 가정이 어려워져 제대로 케어 못 받는 학생과 또 그렇지 않은 학생 간에 있어서의 차이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여름방학 때도 급식 실시하고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뜻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실제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것을 2014년도부터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실에 미달되는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하모니 교사, 그래서 보조교사를 투입하기도 하고요. 초등학교 수학 선생님들이 두 분이서 서로 같이 들어가서 이것을 하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급식을 하면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죽, 모든 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 지도를 죽 했는데 방학 한 달 정도 쉬고 나서 오면 다시 원위치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학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방중 성장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능하면 기초학력을 채우기 위한 수업과 함께 건강을 위해서 급식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일부만 하고 많은 학교에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민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뉴스가 아마 다 담아내지 못했으리라 이런 생각은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되게 걱정되고 아쉬운 점 중의 하나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세종교육청이 전교조 세종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협약을 보게 되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초등학교에서는 학기 초 진단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일제의 평가를 폐지해서 학생 성장 중심의 평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시험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중고등학교 역시도 반 편

성고사를 폐지하겠다 등 시험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협약을 맺고 있는데요.

시험을 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결국 학원을 많이 보내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에 있어서의 격차가 더 커진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왜 과거에는 전교조가 많이 있는 학교를 학부모들이 촛지 안 받는 선생님들이 많은 곳 이러다가 요즘은 전교조 선생님들이 많은 곳에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보내기 싫어하는가, 왜 혁신학교를 초기에는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가기 싫어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후보자님,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것 없으시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위원장 김영호 김민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순서를 깜빡해서 김문수 위원님 차례였는데 김문수 위원님을 모르고 패싱했습니다. 정말 오늘 왜 이렇게 공교롭게도 김문수 위원님한테 실수하게 되는지 죄송합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 하여간 뭐 참는 자가 승리한다 이런……

○위원장 김영호 죄송합니다.

○김문수 위원 아무튼 감사합니다.

최교진 후보님, 마지막까지 힘드실 텐데 조금만 더 잘해 주시고 버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감사합니다.

○김문수 위원 아까 마침 또 김대식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여야 힘을 합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먼저 발의를 했었는데 아까 원격대학교협의회라는 것, 대학교협의회 또 전문대학교협의회는 있거든요. 물론 협의회라는 게 이게 옥상옥으로 괜히 자기들 이해집단의 뭔가 이익을 챙기는 데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각 대학이 가진 공통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른 협의회는 있는데 지금 원격대학교협의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버대학들과 방송통신대학. 그런데 지금 시대적 흐름이 이런 사이버대나 방통대의 국민들 선호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이나 우리 교포들도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그런 대학들인데 이 협의회가 없기 때문에 협의회를 좀 꼭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가 있고, 저하고 김대식 의원님 여야에서 각각 발의를 해 놓고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김문수 위원 그다음에 아까 거점대학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라남도 광주를 예로 들자면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거점대학의 대상이 되는데 저희 지방으로 내려오면 순천대나 목포대가 국립대인데 이런 대학은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중심 국공립대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대학들은 또 어떻게 살려 나갈 거냐. 저희 지역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대학들이고 이 대학들이 잘 살아남아야 지역도 살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머물 수가 있

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방법.

그다음에 아까 과밀에 대한 해소로 20명 학생 그걸 했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 전남 같은, 농촌 같은 데는 과소 학급. 교과목은 열두 과목인데 선생님이 8명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한 선생님이 막 두 과목을 가르치고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 그다음에 고교학점제라든가 기초학력 보장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결국 교사들의 감축은 문제가 있다 이런 건데, 이 세 가지 제가 지금 말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정말 지역에 따라서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같은 도 안이라고 해도 도시형의 고민과 농촌형의 고민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교육부에서 하나의 방식을 가지고 가는 데는 정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을 내놓고 가자고 하는 교육부장관보다는 질문하는 교육부장관, 각 지역에 찾아가서 이 지역은 여기는 이 대학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곳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존중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도 내가 해야 할 방식 중의 하나가 아닐까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주신 각 지역마다 다른 여러 가지 고민 또 아까 지역거점대와 달리 국가중심 국공립대, 우리 지역만 해도 충청권에도 충남대학교와 인근의 공주대, 한밭대 등등이 있는데 각 처지들을 최대한 현장의 의견을 모으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 마지막 질의 같은데 앞서 김대식 위원님께서 하셨던 역사교육 중요성 또 국가정책의 지속성 또 사이버대학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대학교육과 관련된 고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 또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큰 틀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관련해서 김문수 위원님도 또 추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또 깊이 있게 잘 좀 정책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김대식 위원님께서 역사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조선시대 때 제왕학 교육이나 사대부 교육에서 유학 경전교육 중심이 아니라 역사교육 중심입니다. 기본적으로 70%가 역사 교재를 통한 교육이었지요. 처음에는 중국 사서가 많이 있었지요, 사마천의 사기나 사마광의 자치통감이나. 그러다가 그 이후에 우리가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고려사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동사강목 등 여러 역사서들을 공부했는데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이 로마제국 쇠망사를 18세기에 쓴 이유는 바로 로마가 발전했다가 망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시 판단하고 나라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그렇게 보자면 역사교육은 단순하게

발전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올바른 인성교육과 올바른 시대 인식, 거기에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까지에 대한 창의지성교육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어느 순간부터 근현대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그 왜곡된 걸 통해서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정치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교육부장관이 되신다면 지금까지의 축소된 근현대사 교육에 대한 강조·강화를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많이 확대해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올바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될 것인데, 특히 역사교육에 있어서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대한민국이 독립한 이후에 현대사 근대사 부분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정치적인 한계가 일정하게 있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근현대사 교육을 하는 것 자체를 매우 저어하고 이렇게 해 왔던 것이 있는데, 실제로 올바른 역사관 속에서 또한 헌법정신에 따른 중립 이런 것을 지키면서 제대로 된 근현대사 교육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새롭게 이것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사회적인 합의와 긴 논의도 일정하게 있어야 될 것이고 역사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의 일정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두루 살펴보고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간사님, 안 하세요?

다음은 조정훈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후보님, 두 가지 좀 짧게 질문 또는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기초학력 미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 대정부 예결위에서 김민석 총리한테 제가 한 질의의 연장선인데요.

슬라이드를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통계에 그렇게 잡힌다고 들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심각한 문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조정훈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말 급증하는 기초학력 미달의 시점은 전수평가를 폐지하고 표집평가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지금은 아시는 대로 우리 학생의 3%만 표본을 잡아서 이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어떤지 평가합니다.

저는 기초학력 미달에 진지하려면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 학생 중에 누가 기초학력이 미달인지 알아야 정말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초학력을 충족시켜 주는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97%는 12년 학교 다니는 동안 내 학력이 사회생활에 부적격할 정도로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걸 모르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합니다. 이건 교육의 무책임 아닙니까, 후보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기초학력……

○조정훈 위원 문제가 심각한 건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문제가 심각한 건 일부 인정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리고 어떤 학생이 어떤 분야에서 기초학력이 미달됐는지 알아야 된다는 점도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조정훈 위원 그것을 밝히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본인, 학부모 그리고 교육 당국자는 알아야 이 학생을 위해서 뭘 해 줄지 정책적인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아닙니다.

○조정훈 위원 그것은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조정훈 위원 저는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정말로 기초학력 미달, 자랑스러운 전교조 출신이라고 하시고 진보 교육감이신데 이 기간 동안 교육부장관을 앞으로 얼마나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초학력 미달 문제만큼은 정말 반드시 해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야가 아니고 우리 기성세대의 무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아까 경쟁 말씀을 해 드렸는데 지금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우리 학생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약속은 입시 경쟁을 없애겠다는 비현실적인 약속이 아니라 공정한 입시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특혜받지 않고 아싸찬스 없이 입시를 하게 해 주겠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끈질기게 보고 있는 게 입시 부정이에요. 그리고 아마 교육부장관이 만약에 되시면 자료가 있을 겁니다, 감사실에. 특히 입시 부정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갖고 있는데 예체능계가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최근에 브니엘고등학교 학생 3명 자살한 것 고민정 위원님도 언급한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조정훈 위원 그 유서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용하는 사람들이 제일 밉다’, 이게 정말 무용뿐만 아니라 예체능계의 입시 카르텔이 어마어마해요. 이것 한번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조정훈 위원 아니, ‘예’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라.

○위원장 김영호 예.

○조정훈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입시, 이것을 해치는 입시 부정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가운데

지금 위원님께서 알려 주신 것처럼 예체능계에서의 부정이 특별히 심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정말 제대로 파악하고 일벌백계해서라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훈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무용계분들이, 어르신들이 저희 의원실에 굉장히 많이 찾아왔어요. 우리 무용계를 부끄럽게 해도 좋으니 이것 제발 좀 고쳐 달라, 학원·학교·교사 다 겸직하면서 카르텔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되시면, 그것을 저희가 기대하는 건 아니고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 예체능 입시만큼은 반드시 꺾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만약에 된다면 실제로 그 문제를 제대로 깊이 있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주셨던 기초학력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고교학점제를 하면서도 갑자기 이게 막히는 원인 중의 하나도 그것인데요. 실제로 기초학력 문제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인권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초학력을 제대로 갖춰 주지 못했을 때 그다음에 계속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학력 문제는 그야말로 우리 아동·학생들의 인권 문제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혹시 취입할 수 있다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조정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체능 입시 비리가 있으면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얼마든지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위원장 되자마자 말씀드렸지만 사학 비리라든지 교육의 부조리·부정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여야 위원님들이 정말 한번 합심해서 그런 부조리에 대해서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가 강도 높은 조사를 한번 취했으면 좋겠다. 당리당락 다 배제하고요 정말 교육의 부조리·부정에 대해서는 꼭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는 국정감사 끝나고 국정감사에서 가장 핫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의견을 모아서, 10월 끝나고 여야 합동 청문회 내지 국정조사 꼭 한번 하시자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추가질의를 마무리했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추가질의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서지영 위원님과 김대식 위원님이 신데요. 우선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대식 위원님이 마지막 질의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김민전 위원님까지 한 분 더 받아 주시지요.

○**고민정 위원** 두 분만 하시기로 해 가지고.

○**위원장 김영호** 이게 여야 합의 사항입니다. 원래는 이걸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당 위원님들 안 하시기로 했고 야당 위원님 두 분……

○**고민정 위원** 그래서 저희 다, 아까 저도 그래서 안 했고.

○**조정훈 위원** 한 분만 더 하게 해 주시지요.

○**김민전 위원** 마무리발언을 그래서 아껴 두고 있었는데.

○**위원장 김영호** 그러지요, 김민전 위원님까지 세 분.

그러면 순서가 서지영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김민전 위원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지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 후보자의 전과 이력에 대해서 제가 전과 3범이라고 후보자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요. 오전에 여당 위원님들께서 마치 후보자 3건의 전과 이력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무슨 전과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후보자를 두둔하시고 때로는 미화하시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후보자의 첫 번째 전과는 1989년에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조항에 위배되어서 전교조를 결성하는 것이, 당시에 공무원은 노동운동 등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법령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되셨습니다. 당시 민주화운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요. 충남지부 부장으로 선출되면서 집단행동을 했었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2000년도 DJ 정권 시절입니다. 과연 이게 독재정권에 저항하느라 전과자가 됐을까요? 당시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때 당시 김대중 정권 교육부는 전교조와 임금인상 등 44개 항에 합의했으나, 협약을 체결했으나 단체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시 집회와 시위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를 비롯한 당시의 전교조 일동은 어디를 점거했지요, 후보자님? 당시에 어디를 점거하셨습니까? 점거 농성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서지영 위원 맞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사를 점거하고 제2정책조정장실을 점거한 후 농성하였습니다. 불법이지요. 지금 민주당사 점거해 가지고 농성하면 합법입니까?

후보자님,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특정 단체가 신고도 안 하고 가서 점거 농성하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왜 말씀 못 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민주당에 항의하러 갔었는데요.

○서지영 위원 제가 설명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정당 당사를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점거하고 정당 당사에서 농성하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예.

○서지영 위원 그게 왜 대답하기 어려우십니까? 정당 당사에 가서, 집회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점거 농성하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그때 당시 저로서는 단체교섭의 책임을……

○서지영 위원 그때 당시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그때나 현재나 이 법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고진 매번, 2025년 지금의 상황에서 ‘점거 농성’ 이렇게 얘기하시면……

○서지영 위원 후보자님, 어떤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당시에 교원들의 집회 참가를 독려하고 대표 면담이 거절되자 제2정책조정장실을 점거 농성하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회신고도 하지 않았습시다. 이게 무슨 민주화운동입니까? 후보자는 명확한 전과 3범입니다. 국가 법령을 위반한 전과 3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후보자님, 답변 안 하시겠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꼭 하실 필요는 없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고요. 89년도 전교조 그야말로 아이들이 죽어 간, 옳지 않은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 전교조 결성을 했다는 이유로 파면되고 구속됐던 것을 불법이라고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 이후에 실제로 그것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기까지 했는데 그것을 민주화운동이 결코 아니다, 단순히 그냥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섭섭함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2002년 단체교섭을 처음으로 합법화가 돼서 정부와 교섭을 하면 거기에서 사인한 만큼은 당연히 국가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하는데 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묻기 위하여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이 어쨌든 나중에 점거 농성 이렇게 법으로 해 가지고 결국 다시 또 파면이 되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이것은 불법입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다 싶지만 저로서는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지영 위원 정당 당사의 점거 농성은 독재정권에 저항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화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DJ 정권 당시에.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서지영 위원님의 발언……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저는 민주주의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두 분의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요 이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소명을 하셨다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후보자님, 12시간 정도 이렇게 지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김대식 위원 여기 교육위원 전체가 후보자의 교육철학 그리고 교권보호 의지를 검증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김대식 위원 지금 이것을 제가 질문 안 하려 했는데 전라북도 익산에서 올라온, 이런 제보를 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사건 혹시 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언론보도를 봤고 강경숙 위원님께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보도까지 봤습니다.

○**김대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교권보호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꼭 전북 사건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교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남학생이 여 선생님에게 SNS로 음란 메시지를 보낸 이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익산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전북 교육청 행정심판에서는 해당 판단이 뒤집혀 가지고 교육활동 침해로 재결정됐단 말이지요.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같은 관할의 교육청과 이게 좀 다른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게? 익산교육지원청이고 전북교육청인데 왜 이렇게 다른니까? 좀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교권보호위원회와 시도교육청의 판단이 다른데 이것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아마 전 선생님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학부모들이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교육감님을 하셨었기 때문에, 교권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학생 인권이 우선입니까? 아버지가 좋습니까, 엄마가 좋습니까 이렇게 똑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본인 소신은 어떻습니까? 교권이 우선입니까, 학생 인권이 우선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선후의 문제가 아니고 피해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먼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식 위원** 퇴근 후에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모욕, 성희롱 행위 이것 교권 침해로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대식 위원** 이런 부분이 참,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 한때 이러한 사건이 굉장히 많더라고. ‘이 나라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몇십 년 지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전국 곳곳에서 도출되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은둔하면서 하는 이런 것을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에 대한 중점을 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위원님께서 이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 모든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익산교육지원청에서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다른 곳에서도 그런 비슷한 판단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을 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나마 어쨌든 나중에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에서 바로잡은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인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럴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가서 살펴보고, 제가 만약에 취임할 수 있다면 제도적인 보완을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문회 마지막 질의가 김민전 위원님이시고요. 김민전 위원님 질의 끝나고 고민정 위원님께서 마지막 정리하는 의사진행발언, 이렇게 해서 오늘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도 자료에 대해서 아까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양 간사님께서 오늘 청문회를 정리해 주시는 의사진행발언, 두

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마지막 발언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후보님이 죄송스럽게도 안타깝게도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자질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21세기 교사로서의 자질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법 준수 의식이 지극히 낮다라는 얘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심여 차례에 걸친 교통법규 위반 등이 있고요. 또 성인지 감수성도 굉장히 낮다, 성폭행·성추행 가해자들에 대한 옹호 등을 볼 수가 있고요. 언어의 절제력도 굉장히 낮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불편부당한 행정가로서의 자질도 매우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중 인사발령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을 챙기기 위한 무리수가 지나치게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AI 시대의 교육을 열어 가기 위한 교육 책임자로서도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화에 대한 대응과 그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그럴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에서 제주해양수련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료 화면이 나올 텐데요. 세종 학생해양수련원을 83억을 들여서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샀고요. 그 옆에 신규로 175억을 들여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을 보면 제주시에 해양수련원을 두고 있는 학교는 충북 지역과 세종 두 곳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은 서해안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제주도까지 갔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충북과도 좀 다른 게 충북은 제주공항에서 비교적 가깝고 해변에서도 가깝습니다. 그런데 세종 해양수련원의 경우에는 제주공항에서도 1시간 이상 떨어져 있고 또 바닷가 까지도 꽤 먼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양수련원을 지어서 학생들이 가기도 어렵게 만들었는가. 실제 표를 본다고 하면 이 해양수련원을 방문한 학생의 숫자, 횟수도 지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학급이 200명 이상인데 100명도 채 수용하지 못하는 곳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의혹이 제주의 사위여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련원을 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편의시설 등도 부족한 곳에 지어서 학생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오히려 그 주변의 땅값만 올렸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을 봐도 행정가로서 무능하거나 아니면 특정인의 이익을 챙겨 주거나 이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민전 위원님 마지막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당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했는데 백승아 위원님, 김준혁 위원님, 박성준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셔서 여야 간사님들이 이 세 분 중에 한 분, 김준혁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합의하셨습니다.

○**김준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질의 형식으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의사진행발

언으로……

○위원장 김영호 의사진행발언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질의는 안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준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혁 위원 위원장님, 오늘 이렇게 청문회를 잘 이끌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야당 위원님들 또 여당 위원님들 모두 잘 원만하게 이끌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은 소회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사를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말에 나라가 뺏기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어느 관리도 자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본인이라도 죽어야 되겠다, 나라의 은혜를 받은 적은 없으나 그래도 누군가 죽지 않으면 참으로 부끄러운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저 전라남도 구례 땅에서 자결하신 분이 매천 황현 선생님입니다. 당시 나라를 ‘도깨비들의 나라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지요.

매천 선생님이 쓰신 역사서가 ‘매천야록’인데 그 안에 당시 고종, 민 황후 등 권력자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특이한 것이 바로 동학에 대해서는 좀 약간 다른 기술을 했습니다. 우리가 1894년 갑오농민전쟁과 관련해서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 이들의 봉기와 그리고 전주성 점령을 역사에서 매우 위대한 민중의 승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천 황현 선생은 당시 대지주였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동학을 ‘동비’ 즉 ‘도적놈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신분 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고진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도 역시 이렇게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전교조 활동을 통해서 고생했던 여러 수난의 역사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교권들의 인격과 신뢰, 그리고 교사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미래를 위해서 민주당사를 점거했던 그런 역사들이 실제 당시에 봐서는 범죄 형태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역사의 긴 안목을 보고 또 시대의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끝없는 열망과 노력 속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점을 우리 교육위원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교육적 측면에서 긴 역사적 안목을 보면서 앞으로 함께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짧은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준혁 위원님, 매우 진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답게, 아주 교육스럽게 의사진행발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야 간사님들의 마무리발언, 의사진행발언 조정훈 간사님부터 시작하시지요.

○조정훈 위원 일단 제가 마지막 소회 말씀드리기 전에 자료에 대해서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결국 안 보내 주셨습니다, 감사보고서 익명을 제거한 원본을. 후보님, 제가 누구를 부

끄럽게 만들려고 감사보고서 원본을 요구한 건 아니라고 짐작하실 겁니다. 또 특히 뒤에 있는 교육공무원들 제가 닦달했는데 지난 정부 때 저희와 열심히 일했던 얼굴 익숙한 분들 제가 왜 일부러 고발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아까 감사결과서 그리고 많은 분들의 제보에 의하면 후보가 세종교육감으로 있을 때 너무 팔을 안으로 굽혔다라는, 그래서 감사보고서에서조차 징계와 주의를 여러 건 받을 정도로, 그것까지 부정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절차를 어겨 가면서까지 정도로 내 사람들, 내 가까운 사람들 자리를 챙겼다는 그런 합리적인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교육부장관이 되신다면, 저희가 알아보니까 장관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소관 기관 57개, 교육부 소속기관이 28개 그리고 교육부 내에 열몇 개 해서 한 백여 자리나 됩니다. 이 자리들을 또 세종시교육감 하실 때처럼 전교조나 나랑 같이 고생했던 소위 동지들에게 나눠 줄까 봐, 그런 식으로 교육행정을 운영하실까 봐 걱정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하실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후보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임명이 되시면 정말 오히려 더 멀리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예,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 내 삶이 지탱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방금 하신 말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교육부 소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하시는 모든 임용 절차에 대해서 정말 매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비판하는 지점은 89년에 전교조 활동을 시작하신 그 순수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사십여 년 동안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체육회 이사로 계시고 교육인, 교육자로서, 정치인으로서 또 여러 가지 사회 정당인으로서 활동하시면서 보여 줬던 여러 가지 활동의 방향성 또는 굳이 표현하면 이념적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안함을 폭격이 아니라고 하시고 사고라고 폐북에 올리시고 또 조국 사태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많은 청년들이 공분할 때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경향들이 과연 이분이 한 방향으로 교육을 몰아가지 않고 중립적으로 우리 교육정책을 할 분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걱정,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사과를 지금 네 번, 다섯 번 하셨습니다. 음주운전 하셨고요, 여러 가지 천안함에 대해서 하셨고요. 네 번, 다섯 번 하셨습니다. 과연 이 사과에 진정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저희가 알 길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과를 해야 될 후보를 왜 굳이 임명했을까 아직도 저희는 잘 모르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제 생각은 아까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청문회 이후에 이 청문회를 바라보신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지, 국민 이기는 정치 없다

고 이재명 대통령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론의 방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에 하나 임명이 되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정말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조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사과의 표명을 해도 그게 사과인가 아닌가, 진정성이 있나 없나를 따져 묻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마저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현대사회에서 이 정도의 의지 표명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충족되지 못한다고 하시는 말씀에 좀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끝까지 철 지난 색깔 논쟁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학교 안에서 학생들 간에 좌우, 진보·보수 할 것 없이 건강한 토론 문화가 살아나야 된다는 이야기는 모두가 다 합니다, 예전에는 다 주입식교육이었지만.

그런데 건강한 토론이 과연 우리 교육위 상임위 안에서는 됐었던가. 아니라고 해도 아닌 게 맞냐고 계속 따져 물으시고 사과를 해도 그게 사과가 맞냐고 하시고, 그러면 도대체 어느 만큼이나 얘기를 해야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사회의 갈등과 간극이 이 정도로 크다 하는 것을 아주 단면,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 상임위 안에서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과자냐 아니냐, 민주화운동이냐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의 김문수 대통령 후보? 대단한 전과자이시지요, 노동운동을 세게 하셨던 분이니까요.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 보낸 분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현행범으로 현재 내란수괴범으로 구속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과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난장판이 되고 완전 그냥 흠탕물 싸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당으로서 그런 발언들은 굉장히 자제하면서 했었는데 하물며 내란을 벌인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을 받아먹은 것도 아니고 민주화운동을 했었던 걸 가지고 계속해서 색깔 논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과연 학생들에게 토론 문화를 우리가 말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야, 여당 위원들께서는 사실은 정쟁적 논쟁을 하자면 뒤지지 않는데 그래도 정책질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고교학점제 문제, 교부금 또 비정규직 문제, 적정 학생 수는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 드렸었고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들은 많이 준비되어 있고 또 많이 고민한 흔적들 또 세종시교육감으로서 했던 실질적 결과물들을 오늘 많이 보여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귀에 얼마큼 그게 와닿았을지는 저희도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책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교육부장관으로서 충분한 자질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SNS 발언 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또 소명도 하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장관의 공식이 너무 깁니다. 유보통합, AIDT, 고교학점제, 의대 정원 문제 이런 것들 풀어야 될 현안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간을 끌기가 참 국민들 앞에서 민망스러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들을 해 주셨고 또 저희 여당도 했지만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보고서 채택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오늘 지나고 나서 국민들께서 어떤지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도 있으실 테지만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무조건 하지 말아야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이 공석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후보님, 오늘 많은 질문 받으셨는데요. 좀 불편한 질문도 있었을 거고 또 격려하는 질문도 있었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편한 질문부터 격려하는 질문까지 이게 다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져서 위원님들 입을 통해서 전달됐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오늘 큰 충돌은 없었어요. 다만 후보님의 과거의 발언과 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 또 상당 부분은 후보님이 소명도 하셨고 또 어떤 부분은 야당 위원님들이 아직까지도 동의해 주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후보님이 본인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높이 평가하고요. 다만 사과를 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지요. 사과의 대상이 이 정도면 내가 마음이 좀 풀렸다, 사과를 수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사과하는 분은 계속 사과를 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두 가지, 제가 계속 마음속에 사과하고 국민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공직을 수행해 달라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는 백번 말해도, 아마 후보님도 동의할 수 있는 음주운전 부분 그리고 아까 천안함 사건에 대한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의 아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부적절했던 행동이나 표현에 대해서 사과와 사죄의 마음을 갖고 공직 생활을 앞으로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과정 속에서 저는 후보님이 꽤나 솔직한 분이다라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자료제출도 조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한 부분 빼놓고는 성실히 자료제출해 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가 끝나면 이제 국민의 시간이지요. 오늘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이 우리 후보님에 대해서 후보로서 적합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맡길 수 있다 이런 여론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 좀 부족하지 않느냐 또 이런 여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아마 여야 모든 정당에서 오늘 청문회에 따른 여러 가지 여론의 향방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면서, 앞으로 고민정 위원님과 조정훈 간사님께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여론 향방을 잘 지켜보시면서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달라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후보님께서도 오늘의 소회를 밝히실 시간이 됐거든요. 추가 질의시간이 없으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마치면 의사봉을 일단 세 번을 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후보자의 마무리발언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으면 마무리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최교진**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

오늘 긴 시간에 걸쳐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인 저에게 주신 귀중한 조언과 격려의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방금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주셨던 충고대로 다시 한번,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을 단 한 차례였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고 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천안함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이 혹시라도 상처를 받았을까, 국가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그런 잘못된 일이 있었던 것도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귀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을 귀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부터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교육자로서 살아온 저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또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야 할까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보는 참으로 귀한 기회였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거치면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우려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청문회에 임하는 동안 가장 진실되고 가장 성실한 자세로 답변드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미진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갖는 중요성 그리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무거운 책임감으로 많이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저에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늘 낮은 자세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최선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뛰고 또 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얻은 귀한 배움과 성찰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들은 마음에 오래오래 깊이깊이 새기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애쓰신 위원님들 그리고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들었고요.

오늘 김문수, 정을호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벌써 12시간이 넘었는데요. 정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발언이 우리 후보님에게 잘 전달돼서 대한민국 교육 전반에 행정을 펼치시는 데 만약에 후보가 후보로서 오늘 청문회가 통과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잘 반영해서 대한민국 교육정책에 꼭 반영을 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후보자 및 교육부 관계자 또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관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8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강경숙 고민정 김대식 김문수 김민진 김영호 김용태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서지영 정성국 정을호 조정훈 진선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윤상열

○출석 공직후보자

최교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대변인 구연희
정책기획관 배동인